

# 七 眞 傳

1996 7 5

( )

## 七 眞 傳

칠진전은 중국 남송말엽(南宋末葉)에 일곱진인이 수도하여 성도(成道)한 내용을 저술한 보전(寶傳)이다. 일곱진인은 왕옥양(王玉陽), 마단양(馬丹陽), 손불이(孫不二), 학태고(郝太古), 유장생(劉長生), 담장진(譚長眞), 구장춘(邱長春)이다.

일반 사회에서 흔히 구입하여 볼 수 있는 통속 소설과는 달리 희귀(稀貴)하고도 도의 묘(妙)함을 나타내었으니 진실로 구세(救世)하는 양잠(良箴)이요. 사도(邪道)를 깨뜨리고 정도(正道)를 드러낸 신선의 묘결(妙訣)인 것이다.

이 칠진전을 읽어보면 고인(古人)이 수도하는데 얼마나 심한 고난을 겪었는지 알 수 있다. 지금 삼기 말법시대를 당하여 인심이 황폐한때에 칠진전이야 말로 마치 어두운 밤에 밝은 등이 되는 것이다.

현재의 수도인은 역대 선불의 원력(愿力)으로 고인(古人)에 비하여 수도하기가 얼마나 용이(容易)한가를 말해 주고 있다. 일곱 진인의 수행처럼 스승을 높이고 도를 귀중히 여겨 뜻을 굳게 세웠음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부디 이글을 읽는 여러 도형제자매님께 바라건대 이 책을 하나의 전기(傳記)로 보시지 말고 각자 수행 정진 하는데 귀감(龜鑑)으로 삼아 인간 개화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

여기 이야기 하려는 것은 참다운 자비심만이 불쌍한 사람을 도우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겉으로만 보기 좋게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위한 보시(布施)는 허명(虛名)을 사는 것이니 그 이름은 있고 그 실체는 없는 것이다.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있는데서만 남을 도우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없는데서는 곧 마음속으로는 조금도 남을 돕읍지 않는 것이다.

돈을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참다운 자비심이 없는 보시(布施)는 참다운 보시가 안되는 것이니 참다운 보시가 안된다면 그것은 보물을 앞에 두고도 못보는 소경과 같다.

옛 남송조(南宋朝)말년에 험서 함양현에 대위촌이라는 마을이 있고 마을 안에 백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대부분 왕씨였었다. 왕씨는 이지방 명문 거족이 되었다. 이 가운데는 과부가 있었으니 나이가 사십여세 슬하에 일남 일녀가 있는데 일찍이 아들을 장가보내고 딸도 출가 했었다.

이 과부가 심성이 인자하므로 남의 자녀를 자기 자녀 같이 보아서 언제나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서로 시비를 걸고 다투다 강한 아이가 약한 아이를 때리면 약한 아이는 울며 엄마! 하고 외치는데 그럴 때 마다 왕씨 과부가 보면 으레 오냐 오냐 누가 우리 아갈 때리느냐고 보호해주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왕씨 엄마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왕씨엄마가 생활이 매우 넉넉해서 평생에 보시(布施)하기를 좋아 하는데 더욱이 승인 도인을 가까이 하고 항상 제승포도(齊僧佈道) 배불간경(拜佛看經)을 좋아했다.

왕씨엄마가 보시를 잘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서 많은 승인 도인이 시주를 걷우려 오고 또 많은 거지들이 구러하러 왔다. 왕씨엄마는 다소를 불구하고 수시로 그들을 접대했다.

하루는 왕씨엄마의 집에 두 거지가 왔다. 왕씨엄마가 두 거지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웬 참 점잖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꼴이야 남의 일을 보아서 살아 나가지 않고 집집마다 다니며 구걸하니 다들 먹기는 잘하고도 일은 게으르거나 또는 빈둥빈둥 놀고 먹는 사람들이 어데 필요없는 찬물 값 없는 밥이 있어서 당신들을 모시겠냐말이야.”

이렇듯 왕씨엄마가 거지들을 깔보는 가운데 여러 승인 도인이 시주를 걷우러 들어왔다. 왕씨엄마가 그들을 가리키며

“내가 맥없이 이 분들에게 친절을 베푸는게 아니야 스님은 염불이 목적이요 도사는 수행이 근본이니 내가 이분들에게 돈이나 쌀을 보시(布施)하면 스님은 나를 위해 재해를 소멸해주고 도사는 나를 위해 오래 살게 해주겠지만 당신들이야 접대해본들 무슨 이익이 있겠냐 말이야 내집 문앞에서 악자악좌 떠드는 것 뿐이지.”

왕씨엄마는 이렇게 승인 도인의 명분을 세워주었다. 사실 그들에게는 거지와 동일한 취급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의 자랑거리인 것이다.

“왕씨엄마 들어보시요.”

“은혜를 베풀었거든 갚기를 바라지 말아라 갚기를 바라는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더구나 “당신이 이제 한줌 쌀 몇푼

안되는 돈으로 재해를 소멸하고 또 오래 살기를 바라니 그것이 틀리지 않았는가요”

두 거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표연히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두 거지가 왕씨엄마의 동정심이 없는 태도를 보고 그집을 떠나 판데로 갔는데 몇걸음 안가서 붉은 칠을 한 높다란 대문 앞에서 고함을 쳤다.

“여보시오 불쌍한 거지를 좀 동정해 주시오”

그러자 조금 뒤에 그집안에서 한 사람이 뛰어 나왔다. 붉은 수염이 터분하게 자랐으나 조출하고 아담해서 남을 포섭하는 아량이 있고 호협스런 기품이 있었다. 연세는 사십 안팎으로 보였다. 이 사람이 성은 왕이요 이름은 철이요 자는 자명이요 호는 덕성이니 어려서 사서를 배웠으나 공명을 이루지 못하므로 드디어 문학을 버리고 무예를 익혀서 무과 벼슬에 올랐다.

그월인데 큰 눈이 내렸다. 매우 추웠다. 이내 주씨와 아들 추랑으로 더불어 뜰 앞에서 모닥불을 사르고 불을 쪼이는데 문 밖에서

“여보시오 좀 동정하시오”

라고 외치니 왕무거가 이 소리를 듣고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서 두 거지가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도대체 나더러 동정 하라는 것일까요 혹시 나를 동정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왕무거가 뜻밖에 이런 질문을제기하는 것이었다.

“꼭 이렇다고 잘라 말하긴 껍이나 곤란해요. 잘라 말한다면 더욱더 짙은 의혹이 생기거든요”

거지의 대답이었다.

그때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눈이 퍼부어서 바람따라 까물거리며 나무(亂舞)하니 천상에 만발한 배꽃이 분분이 땅으로 떨어졌다. 산에는 새자취가 끊어지고 길에는 사람 종적이 없었다.

왕무거가 두 거지의 입은 옷이 한겹홀옷 입을 보고 그들이 이 엄한을 결디어 나가지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별안간 측은한 마음이 생겼다.

“땀 이야긴 다 그만 두고 도대체 이같은 풍설에 어떻게 노상에서 견디겠어요. 우리집 문간 옆에 한칸 빈방이 있고 방안에 꼴이 덮여져 있으니 앉거나 눕거나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두분이 그 방으로 들어오셔서 잠깐 풍설을 피하시면 어떠신가요”

왕무거가 두 거지더러 물어 보았다.

“대단히 감사하오이다”

왕무거가 빈방의 문을 열어 주었다. 두 거지가 방안으로 들어가서 쉬었다.

왕무거가 자기방으로 들어와서 식모 아이 옥왜를 부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했다.

두 거지가 왕무거의 집에서 이틀동안 묵었다. 날씨가 비로소 청명해졌다. 그들이 떠나려고 작별인사를 나누려는데 마침 왕무거가 방에서 뛰어나오고 옥왜가 술과 음식을 들고 뒤따라 왔다.

“제가 연일 볼 일이 있어서 지금껏 두 분과 서로 인사를 나누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두 분과 술을 마시며 정담을 교환할까 합니다. 어떠신가요?”

왕무거가 두 거지의 의사를 물어보았다.

“조 좋습니다 조 좋습니다.”

그들은 왕무거의 제안을 무척 기뻐하였다.

왕무거가 옥왜를 시켜 술자리를 베풀었다. 그들은 사양 않고 아무말 없이 자기대로 부어 마시기를 시작해서 십시간에 술 두 병을 다 마셨다, 왕무가 옥왜를 시켜 술을 더 가져오게 하였다. 그들은 호기롭게 마셨다.

“고명하신 두 분의 성함이 누구신가요?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신지요?”

왕무거의 묻는 말이였다.

“우리 두 사람은 아무 직업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있다면 구걸하는 것밖에... 이 사람의 이름은 김 중이고 내 이름은 무 심창이요”

간단한 대답이였다.

“제가 자본을 빌려 드리겠어요. 두분께서 사소한 영업이라도 하셔서 살아 나가시는 것이 구걸하시는 것보다 낫지 않으실까요. 두 분께서 생각이 어떠신가요?”

왕무거의 제안이었다.

“안돼요. 우리는 구속없는 자유의 생활이 버릇이 되어 편합니다. 손발을 잡아 묶여 한 곳에 붙박혀 있기가 정말 싫어요.”

김 중이 손을 내저으며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왕무거가 김 중의 말을 듣고 그가 직업을 가질 생각이 없는 것을 알았다.

“김형이 그러시다면 무형은 어떠신지요?”

왕무거가 다시 무심창에게 묻는 것이었다.

“나의 방랑생활이란 김중이 보다도 더 심한데요. 내가 지은 방랑의 노래를 잠깐 들어보실까요.”

무심창이 말을 마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집에치는 닭오리는

먹을것이 있건만은

물이끓는 남비속에

들어갈날 머지않고

들애노는 학두루미

먹을것이 없지만은

넓고너른 하늘나라

제맘대로 날아간다

과리때를 벗을삼아

의식따라 이익다라

혜매어서 다니기란

낙이없는 생활이다

자유없는 생활이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고상하신 견해는 잘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에 중한 것은 의관(衣冠)이요. 귀한 것은 금전이니 두 분의 청정하며 담박하고 초월한 심정을 누가 과연 이해할까요?”

왕무거의 탄식하는 말이었다.

“우리는 남이 이해하고 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오. 그것이 문제라면 왜 거지가 되겠어요”

무심창의 대답이었다.

이튿날 두 거지가 하직하고 떠났다. 왕무거가 그들을 전송하여 마을 밖으로 나갔으나 선뜻 헤어지기 어려웠다. 다시 두어 걸음 앞으로 갔을 때 별안간 다리 하나가 길에 놓여 있었다.

“이거 이상하다. 우리 마을 주변에는 다리가 없는데?”하고 왕무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머리를 돌이켜서 대위촌을 바라보았다. 왕무거가 한참 의아하고 있는데

“효렴공 어서 따라오시오”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왕무거를 효렴공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었다.

무심창의 외치는 소리에 왕무거가 깜짝 놀라서 바라보니 두 사람이 다리 위에 앉아 있는데 김 중은 손바닥을 치며 “방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돈을쓰면 없어지니 의관인들 오래갈까  
세상밖에 몸을두어 세금걱정 아니하고  
자식걱정 없어지니 이세상에 팔자 좋기  
우리들이 제일이다 그야말로 해탈이다  
세상일을 모라산다 좋든긋든 흥망간에  
인간교제 끊어지니 그야말로 탈속이다  
남의시비 바이없다 몸에걸친 험웃한벌  
밖으로는 험였지만 안으로는 반듯하다  
오래간다 장구하다 험어지면 다시집고  
더러우면 물에빨아 가을별에 말리운다  
옹졸함을 잘지킨다 하나만을 잘지킨다  
이것이로 대낮에는 나의몸을 가리우고  
이것으로 밤이오면 펴고자고 덮고잔다  
아침에도 여기에서 저녁에도 여기에서

잠시라도 못놓는다 도둑맞을 우려없고  
보는사람 몰라본다 나의물건 어느누가  
탐내는지 없고보니 번뇌심이 자연없다  
높은하늘 오르고저 큰희망을 품었으니  
나의마음 언제든지 상계에서 놀고있다  
군자의맘 몸을뉘아 날로달로 향상한다  
네가과연 따라오면 나를아는 지기의벗  
머리숙여 절하련만 이내몸에 무궁무진  
좋은진리 간직하여 몇천년을 지내와도  
한사람도 알이없다 이세상에 지기없다  
나의사람 몰라보고 원수같이 미워한다

무심창의 노래를 들으며 왕무거가 빨리 걸어서 다리위에 이르렀다.

“효렴공이 우리를 위해 여기까지 멀리 따라오시니 마땅히 술을 드리오리다.”

무심창이 말을 마치고 옷소매 속에서 자그마한 아루미 주전자를 꺼내었다. 술잔이 얹혀 있었다. 맛있는 술을 잔 가득히 부어 왕무거에게 주었다.

왕무거가 술잔을 받아들고 한숨에 들마셨다. 연이여 석잔을 마시고 취해서 다리위에 쓰러졌다. 정신이 혼미해서 잠이 들었다. 무심창이 다가서서 한 손으로 왕무거를 흔들어 깨웠다.

“여보시오, 어서 일어나시오. 구경가실 의사가 있으시면 우를 따라오시오.”

왕무거가 취하여 몽롱한 가운데 무심창의 뒤를 따라갔다. 얼마쯤 가니 한 높다란 산이 있었다. 하늘 높이 버티어 서서 길이 막혔다.

“산이 높아서 못 오르겠군요.” 왕무거가 놀라 탄식하였다. 지혜가 깨지 못한 인생들은 취한 듯 꿈꾸는 듯 세상을 해매다 험난에 부닥치면 이와같이 놀라는 것 이었다.

“나를 따라오면 저절로 오르게 되오.”

김중의 야릇한 말이었다.



왕무거가 김중을 따라서 올라가니 조금도 힘이 들지 않았다. 순식간에 산 꼭데기에 이르렀다. 산 꼭데게는 매우 편편하고 크나큰 못이 있는데 맑은 물이 가득 공 있고 물 위에 일곱송이 황금빛 연꽃이 등실등실 떠 있었다. 꽃이 대야 같이 크고 매우 싱싱하고 아름다웠다.

“아아! 아름다운 연꽃이다. 아아 아름다운 연꽃이다.”

왕무거는 꿈속에서도 꿈을 꾸는 기분이 완전하였다. 그는 마음에 연꽃이 펴이나 예뻐서 갈채를 연발하였다.

“누가 나에게 저 연꽃을 따 주었으면”

왕무거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심창이 물속으로 뛰어 들어서 일곱송이 황금빛 연꽃을 따다 왕무거에게 주었다.

“이것을 모조리 그대에게 드리니 부디 잘 가꾸시오. 이 연꽃은 그대의 제자가 될 구씨 유씨 담씨 마씨 학씨 왕씨 손씨 일곱분을 상징하는 것이니 훗일에 그분들과 만나시면 꼭 건지시는 것이 연꽃을 드리는 나의 소망이래요”

무심창의 고심고구(苦心苦心) 친절 정녕한 부탁이었다.

왕무거가 연꽃을 받아서 아름답게 안고 집으로 돌아오려던 참에

“언제나 다시 뵈올까요?”

왕무거가 길을 마약 떠날 무렵 무심창에게 물어보았다.

“다시 만날 기회는 머지않아요 三二는 六 저기서 다시 만나십시다. 세상만사가 해결이 되는 저 만년교 다리 위에서,”

왕무거가 이 말을 듣고 길을 떠나 한 걸음 한 걸음 산에서 내려오다 길가의 칙녕쿨에 발이 걸려서 천길만길 산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인생의 험난한 고비란 오르기도 어렵지만 내리기도 쉽지 않는 일이었다.

왕무거 신선을 알아보다

왕무거가 일곱송이 연꽃을 안고 산에서 내려오다 칙녕쿨에 발이 걸려서 천길만길 굴러 떨어지는 순간 놀라 깨고보니 꿈이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았다. 내집 방안에 누워있는 것이었다.

그는 신기하고도 이상스런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들 추량이 자기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기침을 한 번 크게 했다.

“아빠가 깨어 나셨어”

어린아이의 반가운 목소리였다.

“나으리께서 술이 깨셨나이까?”

추랑의 외치는 소리에 부인 주씨가 뛰어와서 묻는 것이었다.

“이상스런 일이다. 이상스런 일이다.”

왕무거가 연이어 탄식하였다.

“무엇이 이상하옵니까? 모든 이상스런 일이란 내 정신이 아득한데서 생겨나는 것이올시다.”

부인의 견해가 옳은 것이었다.

“내가 정녕 손님을 배웅하려 나갔었는데 어찌 내가 이 방안에 누워 있는가?”

“나으리께서 멋이 너무 지나치신가 하옵니다. 어저께 두 거지를 배웅 나가셔서 날이 저물도록 안돌아오시게에 사람을 놓아서 여러 차례 찾아 보았으나 간곳이 묘연하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못놓아서 다시 둘째 아제 왕무와 옥왜를 보내여 찾아보았습니다. 나으리께서 二十리나 떨어진 먼 곳 어느 다리 위에서 술이 대취하여 쓰러져서 인사불성에 빠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를 빌어서 집에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하루밤 하루를 주무시고 이제야 깨어나신 것입니다.”

왕무거가 부인의 설명을 듣고 비로소 지난날의 기억이 확연하였다.

“나으리께서 앞으로는 마땅히 자중하십시오.”

당연한 말이였다.

“술을 조금씩 자시고 내력이 분명치 않은 사람과는 교제를 마시옵소서, 마을 사람이 우러러 존경하는 나라의 벼슬아치가 되셔서 만일 황야의 기바닥에 쓰러져 계시는 일이 있다면 과연 무슨 체면입니까? 자기의 권위를 상실하고 마을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인의 말씀이 지중하기가 약석(藥石) 같으오! 이 사람이 응당 마음에 기록하고 뼈에 새기리라.”

그는 일어서서 부인에게 사과하는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건대 이제 이별한 두 친구는 필연코 두 신선인가 하오.”

“확연한 두 거지를 어찌 두 신선이라 하옵니까?”

부인의 견해로서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울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일동일정을 살펴 본 결과 필연코 신선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소.”

“그네들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은 부인의 중요한 질문이었다.

“무엇 때문에 그네들이 신선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왕무거가 자본을 대겠다고 제의 한 것을 그들이 사절한 것, 배웅나가서 얼마 걸지 않았는데 二十리나 되는 먼 거리에 도달했다는 것, 노래를 들려주고 술을 부어준 것, 산 꼭대기에서 연꽃을 따온 것, 이별할 무렵에 만날 기회를 알려준 것, 등 등의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이야기했다.

“내가 겨우 술 석잔을 마셨는데 하루밤 하루를 취해서 깨지 못했군요. 그뿐 아니라 여러가지 기괴한 일, 만일 그들이 신선이 아니었으면 어찌 이런 기괴한 일이 있겠어요.”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나쁜 사람이 있다 하옵니다. 축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걸음 옮겨 놓으면 곧 十리밖에 가서 하루 천리길을 갈 수 있다 하옵니다.”

전적으로 믿을 수도 없고 안믿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였다.

“또 마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몸에 지니고 있다가 어느 으스스한 곳에서 나그네 상인을 만나면 술에 약을 타서 먹이거나 술이 입술에 닿으면 정신이 혼미해서 인사불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돈을 뺏았고 의복을 벗겨간다 하옵니다. 깨고보면 벌써 자취를 감춘는지라 찾을 길이 없다 하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조심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여도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부인의 말이 옳소. 내가 마땅히 조심하리라.”

그는 그 일을 분별하고자 함은 부인의 견해가 옳당 시정하기 어려운 것으므로 그냥 양보하고 따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의 현명한 처사였다.

부인이 물러간 뒤에 왕무거는 서재에 혼자 앉아서 김중 무심창 두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되새겨 보고 이치를 따져 보았다. 이렇듯 여러날을 경과하는 동안 그는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터득한 것이었다. 마음의 지혜가 열리면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김중(金重)이란 두 글자를 합한 것이 종(鍾)자가 되고 무심창(無心昌)이란 창(昌)자에 중심 없는 것이 여(呂)자가 되므로 솔직하게

말하자면 종리(鍾離), 여동빈(呂洞賓) 두 신선이 나를 제도 하시려고 오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내가 복이 없어서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란 말이다.”

생각할수록 그의 실망은 그지없었다.

“아아 가엾어라, 아아 가엾어라.”

자연 그의 입에서 이렇게 한탄하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다시 만날 기회는 머지 않아요. 三二는 六 저기서 다시 만납시다. 세상만사가 해결이 되는 저 만년교 다리 위에서”

그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았다.

“三二는 六이란 필연코 三월 三일인 것이다. 만년교 다리 위에서 만자는 이유는 거기서 헤어졌으므로 거기서 만나는 것이니 내가 생겨난 이유를 알려면 내가 죽는 이유에서 따져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만사가 해결이 된다는 것은 세상만사가 一언으로 요약한다면마음 하나 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결과 그의 마음에는 자연 서광이 비치는 것이었다.

## 가 (高血壓症)

일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 새삼스레 일년이라는 세월이 또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온갖 꽃들이 제각기 앞을 다투어서 전에 없던 새싹들이 더한층 분주하게 돋아나서 봄 한철이 또다시 봄비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그마한 아동들이 어른이 되고, 어느 사이 또다시 백발이 성성한 노인으로 화하는 것이다.

왕무거가 새해를 맞이하고 어언간 三월 三일이 당도해서 슬그머니 집을 떠나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길로 해서 다리 앞에 이르러 한참 망설이고 있으니라 사람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가만가만 두 신선의 형상을 마음에 그려보며 성심들여 다리 위에 서서 동쪽을 바라보고 다시 서쪽을 바라보았다.

“효령공 벌써 오셨나요?”

갑자기 뒤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와서 그는 돌아서서 살펴보았다. 틀림없이 거년에 이별한 두 친구의 모습이였다. 그는 뛰어가서 그들의 옷소매를 잡았다.

“두 신선께서 한 번 가신 뒤로 소식이 없사와 저는 궁금한 마음 그지없었나이다.”

무심창이 김중과 함께 다리 이에 이르러서 주저 앉았다. 왕무거가 그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제자 왕철은 무형(無形)을 못보고 육안(肉眼) 범부의 몸으로서 천상의 신선이 인간에 하강하신 것을 모르옵고 죄를 많이 저질렀사오니 널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선안(仙顏)을 다시 뵈오니 참으로 삼생의 다행이옵나이다. 원컨대 길 잃은 철새를 지시해주시고 광명의 길 저 언덕에 오르게 해 주소서 제자 그 은혜를 깊이깊이 잊지 않겠나이다.

왕무거가 말을 마치고 다만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절절웃다 입 속으로 눈부신 금빛을 뵈고 갑자기 형상을 고쳐 판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왼쪽 사람은 머리에 두 개의 상투를 틀었고 창옷을 입고 얼굴이 붉은 대추알 같고 눈이 반짝반짝 별 같고 긴 수염이 가슴까지 닿고 손에 아모선 부채를 갖고 있었다. 오른쪽 사람은 건을 쓰고 누른 도포를 입고 얼굴이 보름달과 같고 눈의 정기가 사람을 찌를 듯하고 수염이 오리오리 실날 같고 한 자루의 칼을 차고 있었다. 왕무거가 꿇고 절할 뿐 감히 머리를 들어서 우러러 보지 못했다. 여신선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상고시대에는 인심이 순박하고 풍속이 아름다워서 도학을 전수하는 이가 먼저 법술을 전수하여 몸을 호위하게 하고 나중에 내공을 전수하여 신선이 되게 했지만, 지금은 세도가 험악하고 인심이 교활해서 만일 법술을 악용하면 몸을 그릇치게 되므로 먼저 도덕을 전수하고 후에 신통을 전수하면 법술이 없어도 몸이 자연 건전하고 변화를 안부려도 도학이 자연 이룩되고, 도학이 이룩되면 만법이 다 통해서 법술을 자연 알게 된다. 이것을 전진법(全眞法)이라고 이르는 것이다.”

여신선이 전진묘법을 곧 설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전진이란 순진하고 거짓이 없다는 뜻이다. 사람마다 진심이 있건만 문득 섞여져서 진념이 없어지고, 사람마다 진정이 있건만 문득 쏠려서 진정이 없어진다. 본심이 진심인데 변화를 일으켜서 가심이 되고, 본념이 진념인데 계획을 세워서 가념이 되고, 본정이 진정인데 빛나가고 어갈려서 가정이 된다. 이른바 본념이란 본심에서 발하는 감정이다. 마음속에 진이 나타나는 것이다. 진심이 발해서 진념이 되고 진념이 발해서 진정이 된다. 진정은 곧 자연적인 형상이다. 진정은 언제나 천의 비밀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사람은 진정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진심이 없으면 곧 진념이 없고 진념이 없으면 곧 진성이 없어서 모든 것이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만다. 사람이 진심을 잃으면 생각이 욕망에 붙잡혀서 一동一정이 모두 망령된 것이 되고 만다.

가만히 있으면 욕망이 서로 따라 다녀서 사욕이 끊어지지 않고, 행동을 사작하면 진념이 조금도 없거나 혹은 반진반가(半眞半假)의 상태가 된다. 반진반가의 상태는 하늘과 사람이 상대하는 순간이요 사람과 짐승의 분기점이다. 사람의 생각이란 열 사람이 보고 열 사람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자연 명배하게 감정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속이지 못한다. 그러므로 진도인가 아닌가를 시험하려면 먼저 진정한가 아닌가를 시험하고, 진정한가 아닌가를 시험하면 진심인가 아닌가를 또는 진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 진도를 닦는 방법은 꼭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생각이 진실이라면 마음도 진실이요, 감정도 또한 진실이지만, 생각이 만일 진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말로 표현될 때 그말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므로 진언(眞言)이 아니요. 그것이 행동에 나타날 때 그 행동이 마음에서 지배하는 행동이 아니므로 진행(眞行)이 아니다. 닦는다는 것은 마음 밖의 마음, 생각 밖의 생각, 감정 밖의 감정을 닦는 것이니, 가를 버려서 진을 찾고 밖을 버려서 안을 힘쓰는 것이다. 마땅히 생각이 일어난고 말이 나올 순간에 주의해서 양심을 붙들어 일으키고 인심을 놓고 회의적인 두 갈래 마음, 혼잡된 생각, 악용하는 생각 등을 허용치 않는다면 비로소 조금도 거짓이 없는 진심, 진념, 진정이 되리니 곧 이것이 진도라는 것이다,

진도는 자아(自我)가 없는 보편적인 것이므로 세상 사람이 진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이다.”

여선이 왕무거에게 진진묘리를 설명한 다음 다시 진아(眞我)를 녹이고 기초를 쌓는 법, 난로를 세우고 솔을 걸고 약을 캐내고 단(丹)을 만드는 법, 불길을 가늠보는 법 등을 전수하였다.

왕무거가 다시 엎드려 절하였다.

“네가 성도한 후 곧 산동으로 가서 칠진(七眞)을 제도하라. 앞서 내가 준 일곱송이 연꽃이 시사하는 그들을.”

여선이 간곡히 부탁한 후 종선과 함께 종적을 감추었다. 만연교다리 주변에 자욱한 금빛구름이 갑자기 사라졌다, 왕무거가 하늘을 쳐다보며 절하였다. 조금 뒤에 다시 하늘을 우러러보며 묵묵히 신선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이 때 왕무거의 집 심부름꾼 왕무와 옥왜가 왕무거를 찾아온 것이다.

“마님께서 어서 오시라고요 우리는 어른님께서 가신 곳을 몰라서 여기나 저인가 했어요. 과연 여기였군요. 어서어서 집으로 가세요. 마님께서 걱정이 대단하셔요.”

왕무와 옥왜가 뛰어와서 집으로 가기를 재촉하는 것이었다. 왕무거가 집으로 가는 도중 묵묵히 여선이 전해준 도리를 생각하였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이상(理想)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사람이 이상에 잠기는 순간 그 마음이 정화되는 것이었다.

그는 자나깨나 앓으나 서나 목념을 버리지 못할 것을 느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안방에 들리지 않고 바로 서재로 들어가서 앉았다.

남편이 돌아온 것을 알고 주씨부인이 곧 나와서 만나보았다. 그는 아무말도 없이 묵묵히 무엇을 생각하는 모습이었다.

“나으리께서 귀하신 몸으로 홀가분하게 외출하시는 일이 한두번만이 아니어서 저는 걱으나 근심이 되옵니다.”

현숙한 아내로서 응당 이런 말이 있을 것은 사실이였다.

“저는 다만 높으신 인격에 손상이 있사와 마을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것만이 두려워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나 안들어 주시오니 어찌면 좋으리까?”

그는 바로 목념목상이 내공에 들어간 순간이어서 주씨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으나 보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으나 들리지 않는 것이었다. 다만 맨 끝에 “어찌면 좋으리까?”라는 한마디만을 그는 똑똑히 들은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되풀이 하였다.

그의 이야기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실없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 부인은 다시 말을 앓고 물러갔다.

“이렇게 나를 시끄럽게 구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찌 도리를 깨치려는 목적을 달성하겠는가 말이야.”

그는 심중에 가만히 헤아려 보았다.

“어떤 비상한 수단으로 진세의 인연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면 죽도록 몸부림쳐도 해탈하지 못하리라.”

그는 머리를 수그리고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한가지 방법이 있었다.

“내가 고혈압증을 가장하고 입을 다물면 내 몸에 얹힌 은애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으리라”

기묘한 생각이었다. 그는 곧 병신으로 가장하였다. 누가 자기를 보러 오는 것 같으면 짐짓 신음하는 모습을 지었다. 그는 침실에 들어가지 않고 꼭 서재에서만 잠을 잤다.

남편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주씨 부인이 잠시도 근심을 못 놓아서 하루 몇차례라도 보러 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남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입속에서 뭐라고 중얼거리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는 고달픈 모습으로 자꾸 소리를 크게 지르고 머리를 흔들었다.

“안옛 일어나는 혼란을 끊지 못하면 밖에서 오는 혼란을 막지 못하리라!”

그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었다.

“효렴공이 갑자기 말을 잊으셨습니다. 웬일인지 모르겠아옵니다. 여러 어른께서 곧 와 주시옵소서”

부인이 마지못해 왕무거의 친한 친구 몇몇 사람을 초청한 것이었다.

“효렴공 그간 기거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왕무거가 평소에 경애하는 사람들이었다. 일제히 서재에 들어와서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그는 자꾸 머리를 흔들며 손을 자꾸 허위적거리고 입속에서 중얼중얼 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한숨을 지을뿐 이상스런 일이었다.

그가 말을 못할뿐만 아니라 또 몹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친구들이 정녕 이것이 큰 병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떤 병인지 모르는 것이었다.

“내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효렴공의 증세가 꼭 고혈압증으로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오”

그 중 연상되는 이의 말이었다.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동(東)부락에 장 해청 선생이라는 명의를 있는데 그이를 오시게 해서 진맥을 해보면 확연하겠지”

주씨 부인이 문 밖에서 이말을 듣고 곧 옥왜를 보내어서 의사를 모셔오게 했다. 옥왜를 보내어서 의사를 모셔오게 했다. 옥왜가 의사를



모셔왔다. 여러 사람이 일체히 일어서서 의사를 방 안으로 모셔들었다. 그들은 왕무거의 병 증세를 의사에게 이야기했다. 장 해청이 왕무거의 두 손맥을 짚어 보았다. 조금도 이상한 맥은 없었다.

“과연 이것이 혈압이 높아서 말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약을 많이 드셔야 하겠어요.”

의사는 다만 여러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곧 붓을 들어서 약 화제를 내는 것이었다.

## 가

왕무거가 원래 병든 사람이 아닌데 병든 사람같이 가장해서 세상 일을 투철하고 전심전력 내공을 닦아서 도리를 깨치려는 것이었다. 장 해청 선생이 어찌 그의 속셈을 알리요. 그러므로 왼쪽 손을 진맥하고 또 오른 손을 진맥하였으나 그것이 무슨 병인지 알아내지 못했다. 그는 다만 여러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그것이 고혈압증이라고 이야기하고 필묵을 가져오라고 해서 천궁 삼전, 방풍 오전 등등의 약 화제를 내었다.

그는 주씨 부인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차를 한잔 마시고 곧 집으로 돌아갔다.

“효렴공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우리들은 가겠어요. 후일에 다시 뵈오리다.”

의사가 간 뒤로 여러 친구들도 왕무거와 작별하고 각기 헤어졌다. 손님간 뒤에 주씨 부인이 아들 추량과 옥왜을 서(西)부락에 보내어 약을 사다 달이고 사발에 부어서 추량이 두 손으로 받들어서 서재에 들어갔다.

“아버지 약 잡수세요.”

추량이 이 말뿐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 왕무거가 두 눈을 부릅뜨고 범이 사람을 집어삼키려는 것 같이 무서운 얼굴로 으르렁거리며 추량을 위협하였다.

추량은 혼이 나서 얼른 약사발을 방바닥에 두고 밖으로 뛰어 나갔다. 신기한 수단이였다. 추량이 얼마나 혼이 났는지 두 번다시 오지 않았다. 추량이 나간 뒤에 왕무거가 약을 복용하지 않고 집안 한적한 곳에 갔다 버렸다.

그 후부터 옥왜만이 가끔 와서 차를 따라 드릴뿐 탄 여종들은 감히 왕무거의 눈앞에 나타나지 못했다. 만일 그들이 눈앞에 보이면 그는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고 눈망울을 뒤집고 원한을 참지 못해 몸부림치는 묘기를 연출하므로 그들은 도무지 얼씬도 하지 않았다.

홀로 주씨 부인만은 부처의 정이 안타까워서 여전히 동태를 보러 왔다. 그는 부인이 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그가 병을 가장한 뒤로 가정 내외사를 모조리 여자 한 사람의 손으로 처리하게 해서 그다지 자주 보러 올 한가한 틈도 없었다.

친척이나 친구가 그의 병세를 보러 왔다. 그의 위협을 주는 모습을 보고 두 번다시 오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

“가엾어라 점잖은 사람이 병신이 되다니”

이 말 한마디로 해서 그는 쓸쓸한 곳에 내어버린 사람이 됐다. 그는 혼자 청정한 서재 안에서 도리를 깨치고 진도를 닦고 참선을 수행해서十二年만에 큰 단(丹)이 이루어졌다.

아내도 친구되고 자식도 벗이 되어 수도 일이 즐거웠다. 목마르면 물마시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 남과 다른 것이란 하나도 없건만은 그런데서 묘한 이치를 깨달았다.

세속 일에 대도리가 잠겨 있다. 이 세상에 신선이 숨어 있다. 열두해에 성공하여 양기신이 이마 위에 나타났다. 세상에 하고 많은 수행인이 이와같이 집안 일을 버릴 사람 몇이나 되는가?

왕무거가 집에서 살면서도 대도를 닦아 이룩하고 양기의 신이 출현해서 분신으로 변화를 일으켰다. 도호(道號)를 중양이라고 자칭했다. 도체가 양기에 속한다는 뜻이었다.

그날밤 왕 중양이 서재에 앉아서 일념도 생하지 않고 극도의 정적에 달하여 우주간의 모든 소리가 모조리 사멸된 순간 정(定)에 들어간 것인데 갑자기 공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왕 중양 어서 운성으로 올라와서 천명을 받들어라”

그 소리가 귓가에 쟁쟁히 들려오는 것이었다. 중양이 바삐 공중으로 올라가 보았다. 태백성군이 구름 위에 서서 “옥조가 왕 중양에게 내리니 꿇어서 낭독하는 것을 들으라”고 외치는 것이었다.

“왕 중양 너는 수행에 뜻두어 고심극력한지 十二年간 조금도 파오가 없이 이제는 도의 결과가 원만하므로 특히 너를 봉하여 개화진인이라고 한다. 어서 산동으로 가서 세상 사람을 건지고 빨리 七진으로 하여금 신선에

오르게 하라, 공이 이룩되는 날 다시 벼슬을 가봉하리니 너는 조심해서 이 일을 수행할지어다.”

태백금성이 옥조 낭독을 마치니 중양이 제배사은하고 다시 금성에게 인사하였다.

“진인은 빨리 산동으로 가셔서 세상 사람을 건지십시오. 그 수고가 대단하시겠지만 두려워 하시면 상제의 마음을 저버리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고 부디 노력하십시오. 후일에 반도회상에서 다시 만나서 정회를 푸십시오.”

태백금성이 말을 마치고 천궁으로 돌아갔다. 중양이 서재로 돌아와서 다시 정좌하였다.

그날 아침 일찍기 옥왜가 세수물을 들고 문을 열고 들어갈려고 하니 문을 안으로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 옥왜가 이 사실을 부인에게 보고했다. 부인이 두 여종을 데리고 와서 문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자꾸 외쳤다. 그러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부터 이런 생각이 늘 있었던 것이었다. 결국 문을 비틀고 들어갔다. 그러나 서재 안은 모든 것이 예전과 다름없건만 사람이 종적은 보이지 않았다. 주씨 부인이 황급해서 사람을 사방에 놓고 찾아보았다. 그러나 간 곳이 묘연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나”

주씨 부인이 목놓아 울었다. 마을 사람들이 우하고 몰려와서 사실을 탐문하는 것이었다. 옥왜가 그들에게 사실을 설명하였다.

“문이 안으로 잠겨져 있는데 사람이 안 보인다는건 이상스런 일이야 지붕을 뚫고 담을 뛰어서 나간 것이 아닌가?”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청장 및 지붕을 살살히 둘러 보았으나 종이 한 장 기와 한 장도 움직인 것이 없었다. 그들이 여러 방면으로 나뉘어 다시 수색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종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이 효령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이가 성도 하셔서 신선이 되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찾으려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중 도법을 연구 중인 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과연 고명한 의견이었다.

“효렴공이 신선으로 화하셨다는 것은 도대체 당신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여러사람의 질문이었다.

“그이는 十二年동안 서재에 앉아서서 한걸음도 바깥 출입을 하신일이 없으셨습니다. 중풍환자라는 이름을 빌고 사실은 세상인연을 끊어서 전심전력을 공부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일찍이 효렴공을 만나 뵈었는데 붉은 광채가 얼굴에 가득하고 눈 정기가 사람을 찌를 듯 신선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속으로는 반신반의였으나

“그것은 참 옳은 말씀이시구료. 고혈압이니 중풍이니 효렴공이 그럴 이유가 없단말이야. 정녕 구름을 타시고 신선으로, 오르신거야.” 했다. 마을 사람들이 각기 헤어졌다.

그런데 그날 왕 중양이 토둔법(土遁法)으로 대위촌을 벗어나서 산동을 향하여 출발한 것이었다. 수천리 먼길을 돌파하여 산동에 이르렀으나 그는 七진을 만나지 못하였다. 다만 두 사람을 만났을뿐. 두 사람이란 어떤 두 사람인가? 하나는 명예를 구하는 사람, 하나는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이 두 사람밖에 딴 사람은 없었다.

사람을 건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왕중양이 그곳에 건질만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험서로 돌아오는 도중 종남산에 당도하니 한민등산이 있는데 백리나 되는 먼 거리에 뻗어서 깊숙하고 공기가 맑고 살기좋은 곳이었다.

“내가 여기서 극토법(剋土法)으로 땅속깊이 들어가서 묻혀서 잠복했다가 세상에 수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와서 건지는 좋은거야. 그시기만 안놓치면 되겠지.”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기이한 사람은 기이한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는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몇마디 주문을 외우자 땅이 벌어졌다. 그는 땅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약 반시간 후에는 매우 깊고 청정한 곳에 들어갔다. 겨우 몸 하나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하도가 있었다. 외부에서의 모든 지껄리는 소리가 조금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구멍 속에 들어가서 뱀, 지렁이와 같이 잠복했다. 그는 흙냄새를 마시고 숨을 조절해서 생명을 존속하였다.

왕중양이 흙 속에 잠복해서 햇빛을 모르니 반년만에 하루는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우르르하는 무서운 소리가 들려오고 땅속에서 한가닥 외길이 열려졌다. 길위에 찬란한 금광이 비치었다.

“필연 우리 사존(師尊)께서 오시는 것이겠지?”

왕 중양이 놀래서 황망하게 땅이 벌어진 길을 따라가 보았다. 과연 종전의 두 신선이 흙 토대위에 나란히 앉아있었다. 왕중양이 땅에 엎드리고 감히 고개를 들어 살펴보지 못하였다.

“남들은 도를 닦아서 천당으로 오르는데 너는 도를 닦아서 지옥으로 들어가려는냐? 너의 공부하는 법이 남들과 다르구나”

그의 잘못을 책하는 것이었다.

“위로 천심을 어기고 아래로 스승의 뜻을 어기고도 신선이랄까?”

여선이 웃으며 통채하는 말이었다.

“제자 감히 천심을 어기고 스승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오라 실은 산동에 지금은 건질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잠시 잠복해 있다가 세상에 수행하는 사람이 나오면 즉각 나가서 건지려고 대기중이옵니다.”

왕 중양이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였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수행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네가 노력해서 찾아다니지 않으므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네 자신을 생각해 보라. 네가 처음부터 도학을 배우려고 마음이 있었는가? 내가 여러차례 와서 깨우치지 않았더라면 네가 한평생 효렴공으로 지냈을 뿐이지 대라금선(大羅金仙)이 못 됐으리라.

그런데 네가 일신의 안운을 피하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아서 세상에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 하니 그것이 될 말이나, 네가 과연 내가 너를 제도한 법으로 남을 제도하면 안될 것이 없으리라. 옛적에 내가 세 번 악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놀았으나 사람을 건지지 못하고 날아서 동정호를 건너가 세상에 건질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북쪽 요양으로 돌아와서 금국(金國)의 재상을 만나보니 건질만한 인품이 있어서 내가 그를 지점(指點)했다. 그가 곧 벼슬을 버리고 산으로 돌아가서 대도를 닦아 이루고 해섬이라고 자칭했다. 가서 방랑하며 그가 장자양을 건졌다. 장자양이 다시 석행림. 설도광을 건지고 설도광이 다시 진치허를 건지고 진치허가 다시 백자청을 건지고 백자청이 다시 유영연,

팽학림을 건졌다. 이 일곱사람은 모두 신선의 성과를 증명했다. 이것이 남쪽의 七진이다.

그 당시 나는 건질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많은 사람을 건지게 된 것이다. 천지도 크고 세상도 넓고 진리도 무궁하며 인재도 적지 않다. 외 건질만한 사람이 없겠느냐?

지금은 북쪽의 七진이 있다. 구씨, 유씨, 담씨, 마씨, 학씨, 왕씨, 손씨등이다. 내가 모처럼 당부하는데 너는 찾아가지 않았구나, 너의 역량이 해섬만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다만 네가 어려운 일을 꺼려하여 그런 것이다.

여선의 말을 듣고 그는 마음의 번뇌가 일시에 사라졌다. 황공하여 죄를 사과드렸다. 전신에 땀이 흘렀다.

“너의 사존께서 두 번 세 번 당부하는 것은 반도대회이 시기가 다가오는 까닭이다. 천하의 도를 이룩한 신선은 모두 대회에 참가해야 한다. 반도가 곤륜산에서 산출되는데 천년만에 꽃이 피고 천년만에 결실이 되고 천년만에 익는다. 그리하여 삼천년만에 한 번 반도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 그 크기가 배 같고 붉기가 불길같다. 한 개를 먹으면 천년을 살 수 있다. 서왕모께서 중생을 해호하는 마음에서 혼자 먹을 수가 없어서 천하의 선불성현과 나누어 먹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회를 여는 것인데 이름을 군선대회라 한다. 대회 때마다 신진 신선들이 다수 참가해야만이 대회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이다. 만일 언데나 일정한 임원들만 참가한다면 천하에 수행할 이도 도를 배우는 사람도 없게 된다. 그리고 왕모의 기분도 우울하리라.

상고시대에는 대회 때마다 천여명의 신진이 모였고 중고시대에는 백여명의 신진이 오였는데 근세에 와서는 아주 줄어들 기세이므로 네가 당부하는 것이다. 어서 七진을 건져서 이번 대회에 함께 참가하면 대회의 광경이 얼마나 장엄하고 더욱더 빛나겠느냐? 지금 반도가 한창 익어가고 있다. 만약 허송세월로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삼천년을 기다려야 다시 대회가 열리는 것이다.”

종리노선이 왕중양을 자기 곁으로 와 서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제자 이제야 조사님의 말씀을 듣자와 꿈에서 깬 듯 하옵니다. 다시 산동으로 가서 사람을 제도하겠아오니 조사께서 앞길을 지시해 주시옵소서.”

왕중양이 다시 꿇어앉아 이야기했다.

“산동은 지역이 비좁고 인구가 조밀한 곳이다. 그 곳의 풍속에 따르고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근기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며 깨워주어야 한다. 여러 사람 가운데서 스스로 너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 가운데에서 골라서 끌어올리면 큰 성과를 이루리라. 여기를 떠나 가는 길에 바다를 만나거든 머물어라, 말을 만나면 일어나고 발두령을 만나면 그치리라.”

종리노선이 이 말을 마치고 여선과 함께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 왕중양이 다시 산동을 향해 가는 길에 하루는 영해(寧海)라는 지방에 도착하였다. 영해는 상동 동주부에 소속된 지방이다.

왕중양은 종리노선이 당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다.

“바다를 만나거든 머물어라는 말씀이 응당 여기를 두고 하신 말씀이리라, 영해라는 해(海)자가 바다해字인 것이다.”

왕중양이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여장을 풀었다. 손에 깡통을 들고 거지 모양으로 차렸다. 그 전에 순양여선이 자기를 제도한 방법으로 남을 제도하려는 것이었다.

왕중양이 산동 동부주 영해현에서 거지가 되어 구걸하고 다니는 것은 실은 수행하는 사람을 찾기이한 것이었다.

그런데 영해현 서북방 마가장이라는 부락에 마 원외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옥인데 조실부모하고 형도 아우도 없이 독자로써 아내 손씨와 알뜰하게 살고 있었다.

아내의 손씨의 이름은 여정인데 얼굴이 단정하고 성질이 온순하였으며 침착하고 학식이 넉넉해서 친구(新舊)의 서적을 탐독하였다. 만일 바늘실을 가지고 고운 옷에 꽃봉우리를 수놓은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책을 보았다. 여자의 신분으로서 남자의 기개가 있었다. 이른바 여류학자였다.

그래서 마원외가 가부를 결정 못하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꼭 손씨에게 묻고 극히 짧은 말이라도 손씨의 말이라면 그의 의혹이 곧 풀리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두사람 사이는 서로 모르는 사람같이 늘 존대하지만 정은 선생 제자와도 같았다. 그런데 슬하에 자식하나 없이 벌써 중년이 다가오는 것이었다.

우수같은 세월은 머무를 수 없다. 밤낮으로 물은 흘러가고 있다. 이말이 거짓말이라면 네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보라, 옛날의 꽃같은 모습이 이제는 시들어가고 있다.

마원의 부처도 어느새 나이가 四十이 되어 가는데 슬하에 자식이 없다

“우리 두사람도 머지 않아 마흔살이 되는데 슬하에 자식이 없으니 만일 이대로 후사가 없다면 우리의 만량가산도 누구의 것이 될런지 한심한 일이 아닌가요.”

하루는 마원외가 손연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보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三황이 세상을 지배한 것도 五제가 큰 공을 세운 것도 요순이 나라를 사양한 것도 하우씨가 九年 홍수를 다스린 것도 상탕이 이윤을 초빙한 것도 문왕이 강태공을 예방한 것도 五패가 모략을 전개한 것도 七웅이 심홍을 짜내어 싸운 것도 영진이 六국을 삼킨 것도 초한 양웅이 싸운 것도 오위가 한실을 다툼 것도 유비가 제갈공명을 초빙한 것도 동진서진의 사업도 남위북위의 강산 등등 당송 이래로 허다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도 지금와서는 일장춘몽이 되지 않았는가요. 옛부터 지금까지 수만년이라는 세월이 전광석화와 같이 지나갔고 제왕 강상도 모두가 결국은 꿈같이 물거품같이 사라지지 않았던가요. 그러므로 우리 두 사람은 지나간일 앞으로 오는 일을 모두 꿈에 붙이고 우리집을 세상에 없는 고귀한 집으로 우리 두사람을 세상에 없는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야겠어요.”

손연정이 이야기 했다.

“아무리 꿈이라도 남들은 자손이 있어서 대를 이어가는데 우리는 자손이 없으니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마저 뽑아버린 것이 아니겠어요.”

마원외가 자기네 신세를 비웃는 것이었다. 인생 자체가 꿈이다. 다우기 생사의 뿌리마저 없다면 이야말로 큰 꿈이다. 사람이 능히 큰 꿈을 깬다면 곧 선산(仙山)에 올라가 신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식이 있어도 꿈이요 없어도 꿈인데 자식이 있고없는 것을 문제삼을 것이 뭐 있겠습니까? 무왕이 그 당시에 자식이 九十九명이나 있었다는데 지금와서 희씨성을 지닌 사람이 누군가요. 그의 자손으로서 그의 무덤을 보살피는 사람이 누군가요. 장공예는 九남二녀가 있고 광자의는 七남八녀가 있고 두연산은 五지의 단계(丹桂)가 있고 유원보는 두송이 나란히 핀 도리화가 있었다는데 지금와서 어떻게 됐나요. 깊은 산 옛무덤 하늘에는 먹구름이 떠돌고 땅에는 축대가 우거져서 찬비, 찬바람이 밀려들 뿐이지요.



있으나 없으나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 북망산에 내버린 무덤이 모두 자손없는 사람만이 아니고 훌륭한 무덤이 모두 자손 있는 사람만이 아닐 것이예요. 사람의 일생이란 시간문제 눈깜박할 사이 물거품같이 일었다 꺼지는 꿈같이 꾸었다 깨져서 실체가 아니예요. 칸이나 되는 큰집이 있어도 몸은 기껏해야 아홉자밖에 안되고 萬정보나 되는 좋은 토지가 있어도 하루 세끼밖에 더 먹지 못해요. 산해진미도 쓸데없고 능락금수도 쓸데없이 눈깜박하는 사이에 무상귀가 오면 만사를 모두 버리고 가게되요. 영화부귀도 모두 버리고 가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갖고가지 못하므로 무수한 금은보화도 쓸데없고 죽음을 막지 못하므로 한세상 살아온 것도 헛수고예요.

세상일을 경영하노라고 날마다 분주한 것도 거짓말 세상을 참말로 오인한 까닭이예요. 옛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변해서 없어졌어요.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거울에 비추어가며 세월과 함께 훌훌 지나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허무한 가운데에서 진실한 것을 찾아내야겠어요. 살지도 앓고 죽지도 앓는 공부를 해야겠어요. 오래오래 영구히 죽지않는 법을 배워야겠어요.”

기묘한 생각이었다.

“아씨는 쓸데없는 말이요. 옛부터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은 자연한 이치인데 영구히 살고 죽지 않는 법이 어디 있을라구요. 본래부터 시작이 있으면 결말이 있고 활동이 있으면 휴식이 있는 것,”

“제가 도학서적을 보았는데 정을 수련하면 그액체가 기가 되고 기를 수련하면 그 기체가 신이 되고 신을 다시 수련하면 그것이 허무로 돌아가서 그것이 허무로 돌아가서 진심진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말씀이 있더군요.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영의 광명이 소멸되지 않으면 영구히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일 이 법을 배운다면 자식이 없더라도 자식이 있는 사람보다 백배, 천배 얼마나 낫겠소.”

그것은 사실 백배, 천배 만배도 더 나은 편 이었다.

“그러나 말이 쉽지 어디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하면 정이 기가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기가 신이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신이 허무로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진심진정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해야 영의 광명이 소멸되지 않는지 누가 아는 일인가요?”

이것이 매우 어렵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신선이 와서 지시해 주면 문이 열려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다.

“스승님을 찾아가시면 묘법을 터득하실 거예요.”

손연정의 모습이 매우 진지해 보였다.

“그대를 스승님으로 모시겠으니 나에게 묘법을 전수해 주시오.”

마원외의 이야기가 어딘가 익살부리는 것 같이 들렸다.

“제가 뭘 알겠어요. 여자의 몸으로서 글을 대강 알아서 두어권 도서를 보았을 뿐 묘법묘리를 깨치지 못하고 있어요. 전심전력 도학을 배우시려면 스승님을 찾아가셔야 해요.”

“기인 이인을 찾아 다니는 것이 나의 일평생 소원이였었어요. 그러나 수도란 바탕이 있어야지 바탕이 없이는 신선도 못되고 부처도 못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자기의 바탕이 천박한 것을 생각하고 두 번 다시 수도라는 말을 입밖에 내지 않았던 것이요.”

마원외가 자기를 너무 작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었다. 그는 과연 신선의 바탕이 있는 사람이었다. 우매한 범부가 아니었다.

“부군께서 그 말씀이 잘못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바탕이 있어요, 바탕이 없다면 어찌 사람으로 태어났겠어요. 다만 그 바탕의 심도가 다를 뿐이지요. 바탕이 천박한 이는 육근(六根)이 완전치 못해서 눈이 어둡거나, 귀가 멀거나, 말을 모르거나, 절름거리거나, 홀어미, 홀아비, 고아, 독신, 비곤하고 하천한 사람이 되고요. 바탕이 튼튼한 이는 부귀해서 왕이 되거나 장관이 되어 만민을 지배하거나, 고급관리가 되어 이름이 날리거나 생활이 풍족해서 전원풍경을 즐기거나, 이목이 총명하고 용모가 준수하고 성질이 화평한 사람이 되어요, 세상에 중한 것은 부귀라고 하는데 부귀한 사람은 일반 사람보다 바탕이 더 튼튼한 사람이지요, 그가 만일 남을 거저주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업에 열심한다면 그 바탕이 더욱 중대해서 신선, 부처, 성인, 현인을 이룩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바탕이란 자꾸 복돋아주어야 해요. 전생에서부터 지니고 온 것이라면 내생에도 지니고 가게요. 내생에도 지니고 간다면 왜 금생에 부귀한 사람이 내생에 빈곤하게 되나요. 많이 쌓아올릴수록 그 산이 크고 높아지는 것이예요.

우리 부부가 바탕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만일 바탕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만한 가산과 노복을 누리겠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연 남보다 바탕이 크고 튼튼한 사람이죠.“

과연 옳고도 옳은 말이었다. 마원외는 본래부터 도학을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검은 구름이 달빛을 가리운 듯 한때 미매한 것이었다. 그는 부인이 설명을 듣고 갑자기 마음에 광명이 나타났다. 큰 꿈을 깬듯 하였다. 그는 일어서서 부인에게 경례하였다.

“아씨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어두운 마음이 활짝 밝아졌어요. 그런데 스승을 어디가면 찾아 뵈올런지요.”

그는 과연 큰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다.

“어렵지 않는 일이에요. 한 노인이 계시는데 손에 죽장을 쥐고 깡통을 들고 다녀요, 인물이 산뜻하고 눈 정기가 사람을 쓸 것만 같고 얼굴이 붉고 광채가난 분이요, 몇 년간 이부근에 가끔 구걸하러 돌아다녔어요. 그 모습이 자꾸 젊어만 가고 노쇠할 것 같지 않아요. 이분이 꼭 도력이 있는 분으로 보여요. 이분이 오시거든 알뜰히 맞아들여 공양하세요. 나중에 묘법을 전해주시기를 간청하세요.”

손연정이 사람을 보는 혜안(慧眼)이 비범한 것이었다.

“우리는 가산이 풍족하므로 그것으로 응당 노인을 존대하고 빈곤한 사람을 동정하는 일에 써야지요. 그분이 도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분을 모셔다 공양하겠어요. 노인께서 잡수시면 얼마나 잡수시고 입으시면 얼마나 입으실라구요. 내일은 내가 나가서 알아보겠어요.”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는 수도에 소질도 있고 용단성도 있는 것이었다.

“그리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수도해야만이 하루라도 빨리 해탈하지요. 일은 지체하면 안되니까요.”

그런데 왕중양이 영해현에 도착한 후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이때 그의 수도 자세는 정미하고도 활발한 지점에 이르러 능히 과거 미래의 일과 귀신도 예측할 수 없는 기밀을 알았다. 신통이 구족하고 지혜가 원명(圓明)하여 칠진(七眞)을 제도하려면 마원외 부처에서부터 발족시킬 것을 각오하였다. 이것이 바로 종리노선의 예언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말을 만나면 일어나고”

마원외의 馬字가 말마字인 것이다. 그래서 그는 늘 마가장부락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만 구걸하러 다녔던 것이었다. 이렇듯 수년동안에 일찍이 마원외를 몇차례 보아서 그가 덕행이 있는 것을 알았고 또한 손연정도 두차례 보아서 그가 큰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의사는 남의 집문을 두드려서 환자를 찾지 않으므로 그들이 머리를 수그리고 찾아와 배우기를 간청해 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었다.

왕중양이 이 지방에서 여러해 동안 구걸하고 돌아다녔으므로 그를 아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 그를 먼곳에서 온 고단하고, 늙고, 빈곤한 의지할 곳이 없이 이 지방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여길 따름이었다.

이것이 육안 범태의 견식이었다. 그가 신선이라는 것, 그가 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손연정이야말로 천하에 기특한 부인이요, 세상에 뛰어난 이인(異人)이었다.

좋은 인품을 알아내는 안목이 있어서 빈곤하고 의지할 곳 없는 고단한 노인이 진짜 신선이라는 것을 곧 알아낸 것이다. 이것이 혜안이다. 그래서 남편을 중용하여 그 노인을 집에 모셔다 공야해 도학을 배우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칠진인(七眞人)이 나오게 되는 시초가 된 것이다.

만일 칠진(七眞) 수행의 공적을 논한다면 첫째, 손연정을 세어야 할 것이다, 손연정의 혜안이 없었더라면 칠진(七眞)이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만일 깡통을 들고 구걸하는 노인이 여기에 왔거든 곧 나에게 알려다오.”

마원외가 부인의 말을 듣고 곧밖에 나가서 부락의 성문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하루는 마원외가 대청 마루에 앉아 있는데 부락 성문 지키는 사람이 뛰어 와서 노인이 왔다고 보고 하였다. 마원외가 노인을 영접하려고 따라나갔다.

드디어 왕중양선세의 도운이 도래한 것이었다. 종리노선의 예언이 적중한 것이다,

“누가 너를 찾아오리다.”

신선도 때가 되어야 찾아오는 것이다. 때가 오지 않으면 도를 전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신선도 부처도 성인도 현인도 다만 이 마음 하나에 있는 것이다. 석고나 금으로 만든 불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불상앞에 촛불을 켜고 향을 사루어 복을 비는 세상 사람들을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이 보고 웃는 것이다.

신선이 되거나 현인이 되는 것은 모두가 마음을 수련하는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마음이 바르면 몸짓도 바르고 또한 행동도 바르며 마음이 비틀면 몸짓도 비틀어지고 행동 역시 비틀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사람은 마음을 바로 잡고 생각이 참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망념망상이 백자지 천가지로 일어나서 영구히 참된 길을 찾지 못한다.

망념망상이 한 번 일어나면 정신이 제자리에서 떠나고 정신이 제자리에서 물러나면 육적(六賊)이 마음밭을 교란시킨다. 마음밭이 교란되면 일신에 주인공이 없어서 눈 깜박하는 사이에 육도(六道)의 무서운 길을 빙빙 돌아 짐승이나 아귀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 몸을 한 번 잃게 되면 영구히 돌아오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신선도 부처도 성인도 현인도 다만 이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생각이 참되지 않는데 한갓 불상 앞에서 향을 사루고 촛불을 켜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마음이 바르고 생각을 참되게 할려는 노력도 없이 향을 사루고 촛불을 켜서 복을 비는 것은 이 마음의 묘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우습다는 것이다.

마원외가 깡통을 든 노인이 왔다는 말을 듣고 곧 뛰어가서 영접하여 집으로 모셔왔다. 마원외의 뒤를 따라와 대청 위에 올라서 의자에 앉는 그 노인의 품이란 과연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다.

“어떤 이유로 나를 오라는 것이오?”

노인이 어쭈운 듯이 물었다. 어디까지나 공공정정한 태도였다.

“노인께서 이렇듯 고령에 하루종일 구걸다니시는 것이 매우 고될까 하옵니다. 우리집에 머무르시면 공양해 드릴까 하옵니다. 노인께서는 의향이 어떠하십니까?”

마원외는 이렇게 간단히 잘라 말하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의 도를 구하는 뜻은 아예 얼씬도 못한 것이었다.

“나는 구걸해서 살아온 사람이요. 동냥을 주는것이면 모르지만 남의 명목없는 밥은 먹지 않아요.”

마원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인은 발끈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군자는 道를 발전시킬 생각뿐 먹을 것은 생각지 않는 것이다. 노인이 화내는 것을 보고 마원외는 다시 말을 못하고 슬쩍 몸을 빼어 안으로 들어갔다.

“저 깡통을 들고 다니는 노인을 청해 와서 우리 집에서 공양하고 싶다고 말을 꺼내자 그는 화를 내며 명목없는 밥은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도저히 우리집에 머무르지 않을 것만 같아요. 어쩌면 그를 못가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손연정에게 묻는 것이다.

“호호호 그야 그렇지요. 군자는 道를 발전시킬 생각뿐 먹을 것은 생각지 않아요. 소인은 먹을 것만 구할 생각뿐 道는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이 노인을 대하자마자 곧 공양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으니 이것이야말로 먹을 것으로 피이는 일이 아닌가요.”

“군자를 어이 먹을 것으로 피이겠어요. 당신이 실언하신 것이예요. 안심하세요. 내가 나가서 대강 이야기하면 노인이 우리집에 안주하실 것이예요.”

과연 손아씨는 큰 지혜가 있는 분이였다. 선생이 머무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말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였다. 이제 나가서 노인을 만나려는 손연정은 요령이 숙달하므로 노인이 응당 수공할 것은 사실이였다.

손연정이 대청 앞에 와서 노인을 보자마자 곧 그 앞에 엎드려 나부시 절하고는

“노후에 더욱 건강하시와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라고 축복을 올렸다.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얼어먹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어서 그런 축복 인사를 받을 수 있겠어요.”

“노인께서 어떠한 욕구도 없으시고 아무런 구속도 안 받으시고 만족하셔서 안 받으시고 만족하셔서 자유자재로 슬슬 돌아다니시니 이것이 복이 아니옵니까? 거정도 없으시고 근심도 없으시고 청정하셔서 일이 없으시니 이것이 복이 아니옵니까? 이 흥진세상에 하고 많은 부귀한 집의 명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다 하루종일 애태우며 걱정, 근심이 많고, 처자의 애정과 교육 문제로 해서 괴로움이 설새가 없으니 복이 있다고 해도 실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허명(虛名)뿐이옵니다. 어찌 노인께서 누리시는 진짜 복에 다 비하오리까!”

“허허허! 그런가요. 그렇게 슬슬 돌아 다니는 것이 복인줄 알면서, 청정하고 일없는 것이 복인줄 알면서 왜 슬슬 돌아다니지 않고 왜 일없이 청정하게 지내지도 않소?”

“안하는 것이 아니오라 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옵니다. 슬슬 돌아다닐려고 해도 돌아다니지 못하고 청정하려고 해도 청정하지 못하는 것이옵니다.”

차츰 구도(求道)하는 길로 들어가고 있었다.

“법을 몰라서 못한다면 내가 가르쳐 드려도 좋을까요?”

“노인께서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다면 우리집 후원에 있는 화원안에 요월헌(邀月軒)사랑채가 있어 매우 청정하오니 노인께서 거기 머물러 계시면 저희들이 법을 배우기에 좋을까 하옵니다.”

말이란 시기에 알맞으면 옛사람의 말이 지금 사람에게도 통하고 지금 사람의 말이 옛 사람에게도 통하는 법이다. 왕중양선생이 오늘은 지기(知己)를 만난 것이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고 하는 사이에 피차가 얼굴도 다르고 연령도 차이나고 성별도 다르지만 원래부터 갖고온이 마음은 하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노인이 연정의 말을 듣고 마음 속으로 매우 기뻐서 그렇게 하자고 승인하였다.

마원외가 가복 마홍을 시켜 요월헌을 깨끗이 청소하여 침대, 이불, 요, 의자, 책상, 등잔, 촛대 등을 모조리 정돈하고 노인을 모셔 편히 거처하도록 하였다. 또 여종 진왜에게 차, 세수물, 식사 등을 나르게 하였다.

“우리가 노인과 대화중에 잇고 성명을 물어보지 못했는데 내가 가서 물어볼까 하오.”

고지식한 사람의 고지식한 이야기였다.

“큰 은혜는 뭐라고 치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큰 덕은 뭐라고 이름하지 못하는데요. 예의로써 대우하면 그 뿐이지 꼭 이름을 알아서 무엇입니까? 노선생님이라고 부르면 그것이 통정이 되겠지요.”

마원외가 부인의 말을 듣지 않고 꼭 가서 물어보기로 했다. 손연정이 막다못해 그대로 두었다. 만일 마원외가 노인의 성명을 묻지 않았더라면 풍파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노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마원외가 들어와서

“실례의 말씀이오나 노인께서 성함이 누구이시며 고향이 어디이시며 어떤 목적으로 이 고장에 오셨습니까?”

하고 이 몇가지를 단번에 물어 보았다.

노인이 두 눈을 부릅뜨고

“네 성명은 왕중양이오. 고향은 협서인데 불원천리 여기 온 것은 그대를 만나기 위한 것이오.”

드높은 목소리로 대답 했다.

“노선생님이 나를 위해 여기 오셨다면 역시 어떠한 기대를 갖고 오셨습니까?”

마원외는 조금 어리둥절한 모습이였다.

“내가 여기 온 것은 그대의 만량(萬兩) 가산을 바라고 온 것이오.”

기괴한 이야기였다.

“나의 가산을 바라고 오시다니 그 가산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설마 그 가산을 바치라는 것은 아이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마원외는 웃어 보였다. 그러나 염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왜 아니겠어요. 내가 그대의 가산에 욕심이 없다면 왜 여기까지 왔겠오?”

이 한 말에 마원외는 겁이 나서 얼굴이 흑빛같이 되어 물러나왔다. 왕중양 선생의 이야기가 사실 세상에 처음 듣는 놀라만한 이야기였다. 이유도 없이 뻔뻔스럽게 남의 가산을 욕심내는 것이었다.

“요놈의 늙은이가 그런 심통을 가졌다간 장래가 좋지 못하리다. 되든 안되든 남의 가산을 털려고 드니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입밖에 나올 수 있을까? 어린애만도 못한 저런 늙은이가 도덕이 뭐야.”

마원외가 요월헌(邀月軒)에서 나오며 혼자 이같이 중얼거렸다. 방으로 들어와 앉아서도 묵묵히 말이 없었다. 손연정이 그의 험상스런 모습을 보고 필시 노선생님에게 핀잔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가지마시라고 그랬는데도 당신은 기어이 꼭가셨군요. 묻는 말씀이 잘못되어 노선생님께 또 당하셨군요. 마음을 너그럽게 크게 가지세요. 어린애들처럼 얼핏하면 화내지 마세요.”

손연정이 웃으며 이야기했다. 현처는 남편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법이다. 마원외가 연정의 말을 듣고 얼굴빛이 조금 풀어졌다.



“우리는 저 노인을 덕행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알고보니 돈을 욕심내는 암체더군요.”

“무엇 때문에 그 어른이 돈을 욕심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마원외는 그의 가산을 바라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데로 설명하였다.

“왕 노선생이 우리의 가산을 바라고 오셨다면 필시 이유가 있을 것이예요. 왜 그 이유를 자세히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속언에 토지는 길고 인생은 짧다는 말이 있어요. 재산이란 본래 지공무사(至公無私)한 천지의 소유인데 일시일시 사람에게 빌려주는 셈이죠. 잘 이용하는 사람은 몇십년동안 누리고 잘못 이용하는 사람은 쇠잔한 꽃잎을 비가 때리고, 뜬 구름을 바람이 몰아가듯 수중에 들어오면 곧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돈은 세상에 쉼새없이 돌고도는 유행하는 공공한 물건이라는 말이 있지요. 가난했다 부하고 부했다 가난하고요. 천년 만년 변화없이 가산을 지킬 주인공은 아무도 없어요.”

만량가산이 있다고해서 자랑할 순 없는 것이다. 아무도 그것을 영구히 실수 없이 보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왕 노선생이 우리의 가산을 필요로 하신다면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예요. 그 말씀이 이치에 타당하다면 가산을 노선생님께 드려도 좋을 것예요. 우리는 아들도 딸도 없으니 결국 가산이 남의 손에 넘어갈 것이 아닌가요?”

“아씨는 수월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요. 우리 선조께서 협서에서 산동으로 오셔서 천신만고를 겪으신 결과 이만한 가산을 모으신 것이니 내가 아무리 재간이 없다한들 어찌 선조의 노고하신 피땀의 결정을 함부로 남에게 주겠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아직껏 반생을 살아온 셈인데 만일 가산을 남에게 넘겨준다면 앞으로 반생을 어떻게 지내자는 말인가요. 장래 예산을 안세웠다가는 대사를 그르치고 말아요.”

“당신은 사내대장부로서 그렇듯 견식이 여자만도 못하시네요. 우리가 가산을 노선생님께 바치는 것은 영구히 살아서 죽지 않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이니 우리가 도를 닦아서 신선이 되면 그만이지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네요. 한자손이 신선이 되면 구대조까지 천당에 오르는 일이에요, 선조께 송구스러울 것이 하나라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잘생각해 보세요. 도라는 것이 우리의 만량가산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금은보화가 바다의 모래알만큼 많이 있어도 도의 힘만 못한 것이다. 금은보화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쓰면 결국 없어지는 것이지만 도의 힘이란 영구히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아씨의 말이 옳기는 옳아요. 그러나 도를 닦다가 신선이 못되면 범을 그리다가 개가 되는 격이 아닐까요.”

“사람은 결심이 있어야지요. 결심이 없으면 무당노릇도 못한다구요. 그런데 하물며 신선을 이룰 수 있겠어요. 결심이 있으면 결국 성공하고 결심이 없으면 결국 아무일도 안되는 것이예요. 다만 향구한 결심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신선이란 본래 범인이 닦아서 이루는 것인데 다만 사람이 향구한 결점이 없어서 걱정이지 전심전력 닦기만 하면 자연 바라는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지요. 옛부터 모든 선불들이 범인이 닦아서 이룬 것이지 처음 낳을 때부터 신선이 어디 있나요.”

마원외가 손연정의 말에 결국 찬동하였다. 다음날 다시 왕중양을 다시 찾아 갔다.

“어제 노선생님께서 우리의 가신이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그 가산을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지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도를 깨치기위해 수행하는 세상의 모든 선비들을 널리 초빙하여 여기서 함께 수행하며 도를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요. 그대가 가산으로 그들이 도를 옹호하고 본성을 가꾸면 외부에 관심되는 일이 없고 내부에 수양이 없고 내부에 수양이 잘 되어서 올때도 기쁘고 갈때도 기쁠 것이요.”

왕중양이 엄숙한 태도로 마원외에게 진정을 토로하였다. 마원외는 이 말을 듣고 심중에 기뻐서 감복하였다.

능히 자기의 견해를 버리고 남의 충고를 받아 들이는 사람은 그야말로 범부의 세계에서 뛰어나 성인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허허로운 꿈이라면 우리는 무엇에 희망을 걸어야 할 것인가!

그들은 재산을 빌어서 도(道)를 발전시키고 본성을 닦으려느 것이었다. 후일에는 모든 것을 모조리 내버리고 걸것이므로 잠시 이것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노선생님의 말씀 잘겠습니다. 선생님은 도덕이 높으신 분이옵니다. 저는 형처(荊妻) 손씨와 함께 도를 받겠아오니 전해 주시겠습니까?”

가산을 빌려주면 그것으로 도무를 일으켜서 수행하는 사람을 모아들이겠다는 왕중양의 한 말에 마원외의 도심이 열린 것이다.

“그대 부부가 진심으로 수도한다면 그대 부부가 좋을 것이지 나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꼭 가산을 희사한 후라야 도를 전해 드리지요. 그래야만이 마음에 항상 걸리는 것이 없어져서 한 마음 한 뜻이 될것이요.”

마음에 걸리는 것을 없애야만 도를 이룩하는 것이다.

“노선생님이 농사를 지으시거나 장사를 하실 것이 아니고 다만 돈을 사용하실 것이므로 제게 있는 돈을 사용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희사를 하지 않더라도 돈이 피요하신대로 아낌없이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희사를 하지 않으면 그대 것이지 내것이 아니므로 내가 자유로 쓸권한이 없어서 불편하지요.”

“그러면 희사하겠습니다. 희사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밖에 있는 돈을 통털어서 희사한다는 계약서를 써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계약서를 써서 내게 들것이 아니라 그대에게 보관해 두시오. 다만 그대의 집안에 족장되시는 분을 오시게해서 그분 앞에서 계약서를 쓰고 그분이 보증을 서야 하오. 그래야 증거가 되지요.”

마원외는 계약서를 자기에게 보관해 두라는 왕중양의 심리를 측지하기 매우 어려웠다. 그리고 족장의 보증문제는 인간 욕망의 문을 여는 것이므로 응당 여러 사람이 깜짝 놀래어 반대할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원외의 기쁨이 근심으로 변하여 선생을 하직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이 일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오.”

마원외가 손연정에게 왕중양 선생과의 대화를 되새기며 말을 하였다.

“어찌 타당치 않아요.”

“아씨는 우리 일가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겠지요.”

“사람마다 다 각기 마음이 다른데 남의 마음을 어찌 다 알 수 있나요.”

“우리 일가 사람들은 우리 부부가 자식이 없는 것을 보고 제각기 우리의 상속자에 없는 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으로 상상하고 있어요. 우리 두 사람이 죽는 날엔 이집 가구 전답이 모조리 그들 것이 되리라고요. 그런데 그 가산을 일가 사람이 아닌 남모른 사람에게 희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마원외는 타당치 않다는 이야기를 했다. 응당 반대할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썸은 문제없어요. 마무 말씀 마시고 내일 당신이 몇몇 유력한 족장님을 모시고 잘 상의 하세요. 그분들께서 들어주시면 좋은 일이고 안들어 주시면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그분들이 꼭 신이나서 들어주실 것이예요. 그 일은 틀림없이 잘 될 것이예요.”

무슨 일이든 손씨의 손에 들어오면 어려운 문제란 없었다. 이렇게 이렇게라는 말 가운데 요령이 들어있는 것이다.

“하하하 됐어 아씨는 과연 슬기주머니군요. 이일은 반썸 성공된 셈이야.”

마원외가 곧 마흥을 시켜 족장 어른들은 초청하였다. 그리고 내일 오전 중으로 꼭 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튿날 족장어른들이 모여들었다.

그의 형제 향렬의 아들인 조카벌되는 사람들도 따라나왔다. 물론 한잔 하리라는 기대가 컸던 것이다. 그들이 대청마루에 올라와서 나이 순서대로 앉았는데 제일 웃어른 되는 사람의 이름은 마흥이요 직위는 향공진사였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우리를 오라고 했는가?”

마흥이 마원외에게 물었다.

“손아(孫兒) 마옥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오나 근년에 와서 자주 콜록 콜록 감기를 앓고 사흘이면 이들은 누워 있어서 百사람이 한사람 일도 처리 못하고 있는 형편이옵니다. 그뿐 아니오라 손부(孫婦) 연정도 자주 신경쇠약증이 일어나 집안 일을 관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운데 이번에 협서에서 왕노선생이라는 분이 건너와서 저희 집에 머물러 있게 되었아옵니다.”

이분은 매우 충실하고 인정이 두터운신 분이옵니다. 이분이 저희 집에 머물러 계시므로 저의 가옥과 전답을 이분에게 맡겨서 경영하게 하고 저희 부처 두 사람은 심신을 수양하려고 하옵니다. 이분이 이러한 제 이야기를 듣고 찬성해서 족장님을 모신 자리에서 재 가산을 이분에게 회사한다는 계약서를 써달라는 것이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할아버지 및 여러 친척 어른들을 모시고 원만히 타협한 끝에 이 자리에서 계약서를 써서 왕노선생께 드리려는 것이옵니다.“

마원외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마원외의 형벌되는 마명이 분개하고 일어서는 「이 미친놈아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선조의 기업이란 보수(保守)해야만 하는 것이지 남모른 사람에게 회사하는 법이

어디서 난 법이나? 네놈이 누구에게 농락을 당하고 누구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런 이치에 함당치 않는 소리를 하느냐 도대체“

손가락으로 마원외를 가리키며 나무랬다. 마명이 마원외를 중책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마원외 자신도 그러한 위치를 모르는터가 아니므로 마명의 분개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말을 못했다.

그 자리에 마원외의 당숙 유학자인 마문괴가 있었고 또한 마원외의 당형 국자감태학생인 마쇼가 있었다. 이 두 선비는 마씨 문중에서 손꼽히는 인물이었다. 문중일은 크나 적으나 이 두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다. 가부(可否)가 이 두사람의 일언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 사람을 그렇게 나무랄게 없이 마원외는 고지식한 사람이야, 원외를 책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그 왕노선생이라는 이를 이리 오시도록 하면 내가 이 말이 나오게 된 원인을 물어보면 알 수 있겠지.”

마문괴는 정치적 수완이 있는 사람으로써 마명이 마원외를 중책한 뒤를 이어 이렇게 공백을 매우는 것이었다. 마문괴가 말을 마치고 마흥을 불러 왕노선생을 모셔오도록 했다. 마흥이 나간 조금 후에 왕노선생을 안내해서 대청 앞에 이르렀다. 왕노선생도 그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고 그들의 눈에도 왕노선생이 콩알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하하하 노선생 노선생하기에 난 누구라고, 난 누군가 했더니 이거야 이부근에 늘 구걸 다니는 늙은이 아니야.”

마명의 눈이란 애꾸눈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볼줄 모르는 것이다.

“여보게 자네가 늙은 것이 이 지방에 들어와서 수년 동안을 구걸하고 다니지 않았나? 그동안 아직껏 자네가 이렇다할 솜씨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우리집 원외가 자네의 어떤 점이 맘에 들어서 집안에 끌어들었는지 모르나 이집에 들어와서 먹을것이 있고 입을것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분에 넘치는 복일세. 이것도 상천의 덕택이라고 감사히 여겨 자기 할 일을 다하고 세월을 보내다 죽으면 되는 것이지, 어찌 우리 손자들을 공갈해서 가산을 회사하라고 했는가? 자네가 五六十이 넘어보이는데 아직도 철을 모르는군. 세상에 그럴법이 있는가? 남의 비웃음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말이 입밖에 나오던가?”

마문괴가 왕중양에게 이야기 했다. 그도 역시 사람을 볼줄 모르는 것이었다.

“나는 일평생에 배운것도 없고 솜씨라거나 사기수단이라는 것도 없지요. 다만 생활이 곤란해서 그의 가산을 나에게 양도하게 한 것 뿐이지요. 내가

죽을때까지 앞으로 몇 년동안 안락하게 살아가면 그만이지 남이야 웃건 말건 관계있나요.”

큰 지혜는 바보같이 보이는 것이다. 왕중양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부, 마홍 두사람이 뛰어와서 왕중양의 뺨을 후려쳤다.

“착 착”

연이어 두세번 쳤다.

“이 후압무치한 늙은놈아, 쌍놈이 큰갓을 쓰고 거렁뱅이가 고급요리를 먹을려구, 사나운 주둥아리를 실컷 놀려서 세상 사람의 간장을 녹일려고 지금껏 죽어지지 않고 살았왔느냐?”

그들은 분을 참지 못했다.

“애 마홍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떠들석해선 안돼 이놈을 부락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제일 좋을거야.”

마부의 이야기였다. 그들이 왕중양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다.

“쫓아내지 않아도 좋다. 불쌍한 늙은이라고 동정해서 원외가 집에 머물게 한 것이니 가만뒤, 원외가 알아서 할 일이지 회사만 못하게 하면 되지 않나.”

마쇼가 가로막는 것이었다. 마부, 마홍이 그때서야 손을 놓았다. 마원외가 마지사의 귀에 대고 무슨말인지 소곤소곤소곤거렸다.

“너희는 아직 어린것들이 아니냐. 어른 앞에서 그렇게 떠들면 못쓴다. 각자가 집으로 돌아가라. 내 심중에 확고한 소신이 있다. 내가 회사를 허락하지 않는데 원외가 내 말을 안듣고 회사할줄 아느냐.”

마옹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했다. 이 마진사는 마씨 문중내에서 제일 웃 어른이었다. 그의 말이라면 누구나 모두 복종하였다. 그리하여 각자가 집으로 돌아갔다. 마원외가 마옹, 마문괴, 마쇼 세사람만 남게해서 서재로 청해들여 앉히고 식사를 관대하게 대접하였다.

마진사는 윗자리에 앉고 마수재는 아랫자리에 배석으로 앉고 마국자감생은 좌쪽으로 앉고 마원외는 우쪽에 앉았다. 어린 여종들이 술잔을 드리고 병을 들어 술을 따라올렸다. 맛있는 요리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삼종조 제당숙 당형을 모신 이 자리에서 저 마옹이 심중에 있는 일을 솔직히 말씀드려 매듭을 짓고저 하옵나이다.”

순이 세분배 돌아간 뒤에 마원외가 일어나서 이야기 한 것이다.

“그래 그 이야기를 조금전에 대강 들었으나 더 좀 자세히 이야기해 보아라.”

마수재의 말이였다.

“전들 어찌 남모른 완중양에게 가산을 진정으로 회사하겠습니까? 불과 몇해동안 저의 살림을 관리하게 해서 제가 좀 평온하게 살아보려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마원외는 손연정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신분이 불명한 사람에게 가산을 맡겨서 관리할 필요도 없는데 더군다나 양도계약이 무슨 양도계약인가?”

이것은 마쇼의 이야기였다.

“형님은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성심 성의로 우리집 일을 보살피게 할려는 일시적 술책이지요. 저도 마음놓고 그도 역시 게으르지 않고요.”

“자네가 그 사람에게 집을 관리하게하려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네 그 점을 자세히 이야기 해보게나

마문괴의 이야기 였다.

“당숙님은 소질(小姪)의 말씀을 들어보옵소서, 소질이 병이 많사옵고 질부도 또한 자주 신경쇠약에 걸려서 집안일을 처리하기 어렵게 됐아옵니다. 오래전부터 누구나 충실하고 인정이 많고 고지식한 사람이 있으면 집안일을 맡겨 관리하게 할 생각이였아온데 다행히 상천의 자비로써 저 인정많고 충실하며 고지식한 왕노선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그에게 이러한 생각을 말씀드리며 당신이 우리 가산을 맡아보는데 자기 가산같이 생각해서 두 마음 두 뜻이 없어야 한다고 했더니 그가 이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곧 제게 묻기를 그 가산을 자기 가산같이 생각하라니 그러면 자기에게 회사하는 것이야고 물어왔답니다. 저는 이것이 어리석은 얘기라고 생각하옵고 어리석은 얘기는 어리석은 얘기로 대답하기로 했아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회사하고말고 그래야 될것이 아니겠느냐?”고 대답했아옵니다. 이것은 분명 장난이야기였는데 그는 이것을 진실로 여기고 족장님을 모신 자리에서 회사 계약서를 써달라느 것이옵니다. 제가 생각하옵건데 그가四고무친하고 친척하나 없는 고독한 몸으로써 제가 이

가산을 회사하기로 하니 그것을 어떻게 팔수 있을 것이며 갖고 도망을 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나이도 지긋해서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의 요청대로 계약서를 써 주어서 그가 기뻐하여 집안일을 잘 관리하게 하고 저는 편온하게 몸을 수향하려 하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가산이 제게로 돌아오면 그뿐이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건데 당숙님이 주동이 되셔서 이 일을 성취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 일을 추진하기 어렵네. 문중 어른들이 많으신데 자네가 삼종조께 여쭙어 보게나!”

마문괴가 마옹에게 미루었다.

“여러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나도 주동이 되어 이 일을 추진하기는 어려워.”

노진사 마옹이 고개를 내저으면서 마쇼에게 미루었다.

“윗어른이 계시는데 어찌 제가 감히 주동이 되겠습니까?”

마쇼는 또한 문중 여러 사람에게 미루었다. 마원외는 그들에게 더 이상 이야기 해 보았자 공전되고 성립이 안될줄을 알았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보물들을 갖고 나와서 그들의 눈을 단번에 고리게 하였다. 가지고 온 보물중에는 누른것도 있고 흰것도 있었다. 누른 것은 금이요, 흰 것은 은이었다. 촘촘하게 단단하고 발긋발긋 둥근 것 모난 것 이것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만사가 인연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들을 보자 주동이 안될 수가 없었다.

마원외가 보물을 세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이것을 받고는 눈이 휘둥그래지고 웃음도, 이야기도 저절로 나왔다.

“마옥이 조금 전에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계약서를 써 주어서 노인의 마음을 붙잡아 매어 전심전력으로 가사를 정리하게 하는 것도 무방한 일일 듯 해.”

마진사가 마수재에게 얘기었다.

“이쪽은 일시적 술책이지만 저쪽은 죽을 각오로 노력할테니까요.”

마수재의 이야기였다.

“삼종조 당숙께서 주동이 되셔서 이 일을 추진하시면 문중 여러 사람들을 납득시키는 문제는 제가 알아서 잘해 보겠습니다.”

마국자감에게도 돈의 묘법이 발동한 것이었다.



“그야 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나! 내가 삼종조와 둘이서 주동이 되지, 그러나 자네가 어떻게 여러사람들을 납득시키겠나?”

마문괴에게도 돈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게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 마쇼가 마문괴의 귀에다 소근소근 몇마디를 이야기 했다.

아아 그것 참 묘하구나, 그렇게 말한다면야 그 사람들이 듣지 않을 수 있겠나! 물론 들을 것이 분명해.“

마문괴의 이야기였다.

“자네는 아무 걱정 말고 안심하고 있으면 돼.”

그들은 마원외에게 이렇듯 이야기했다. 마원외가 손연정의 말대로 문중의 유력자 삼인(三人)에게 뇌물을 준 것이 크게 성공한 것이었다.

“마옥이 가산을 회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의 술책이었다.”

마쇼가 문중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했다.

“술책이라니 어떤 술책인가?”

일가 사람이 반문했다.

“호랑이를 두어서 산을 지키는 술책이다.”

마쇼의 대답이었다.

“무슨 까닭에 그런 술책이 필요한가?”

여러 사람이 반문했다.

“마옥이 평온한 생활을 누리고져 늙은이를 수전노로 둔것이다.”

“늙은이가 어째서 수전노가 되는가?”

“이 늙은이란 매우 충실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으로써 그를 두어 가산을 운영하고 싶었으나 그가 충심으로 일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산을 회사한다는 조건으로 그를 속여 더욱 충실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그가 이 속임수를 진실로 믿어서 회사계약서를 쓰기를 요청해 왔다. 그러므로 그것을 써주지 않으면 그가 즐겨 가산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계약서를 써주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것으로써 그는 단 마음을 먹지 않고 진심으로 가산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호랑이를 두어서 산을 지키는 술책이 아니겠는가?”

“그에게 회사한 이상 그의 것이 되었으니 물론 잘 지킬거야.”

“그가 일꾼일리도 가져가지 못하니 그것이 됐다고 말할수도 없다.”

“어째서 일푼일리도 가져가지 못하는가?”

“그는 먼 지방에서 온 사고무친한 늙은이로써 아는 친구도 없고 나이도 지긋하여 많이 먹지도 못할뿐더러 많이 쓰지도 못한다. 매일 쌀 두되를 먹고 밤에 일곱자에서 자면 그만이다. 하루 아침 눈을 감으면 공수래공수거 가산은 옛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노인이 남을 위해서 가산을 지켜온 것은 헛수고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이것이 수전노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러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들 껄껄 웃었다.

“마옥의 사후에는 그 가산이 결국 일가 사람에게 분배될거야. 그러므로 그의 생전에 마옥이 소원대로 일시적 인정을 쓰는 것도 좋을거야, 그 노인도 충실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니 우리가 계약서를 써 주어서 앞으로 유무 상통하여 대차관계를 맺는 것도 좋을거야, 그러므로 범사에 인정을 남겨주면 후일에 상대하기가 좋게 될거야.”

마쇼가 또한 일가 사람들을 이익으로 달래는 유리한 말이었다. 그들은 이 말을 받아들였다. 말이란 원래 많은 것이 필요치 않다. 간단한 말로도 풍파를 재울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좋은 말솜씨라도 성공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마쇼는 일가 사람들이 승인하는 것을 보고 문중회의를 내일로 열자고 제의했다.

그래서 이튿날 일가 사람들이 모조리 마원외의 집으로 모여 들었다. 마진사 마옹이 왕중양선생과 대청에 나란히 앉아서 답소에 꽃을 피웠다. 손도, 빌도, 하늘도, 땅도 모조리 이야기 해서 친숙함이 그지 없었다.

마문괴가 마원외로 하여금 주석(酒席)을 마련하고 주효를 베풀게하여 일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다음가 같이 선언하였다.

“오늘 문중의 장유준비를 막론하고 전체가 모인 이 자리에서 마옥이 가산을 왕중양 노선생께 회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오? 찬성하오? 반대하오?”

그들은 마쇼가 전날 설득한 바에 따라서 이의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찬성이오.”

이구동성으로 모두 찬성하였다. 회사 계약서를 써오게 했다. 지중환 서류라 할만한 것이었다. 마문괴가 마쇼에게 그것을 낭독하게 하였다.

“회사 성약인 마옥은 이제 조부모께 물려받은 가옥, 대지, 화원, 토지, 금은화폐, 화물 및 가복, 동복, 여복, 가구, 기계, 집물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왕중양 노선생에게 회사하는 동시에 그의 명으로 이전 수속을 완료한후 그의 자유에 맡겨서 운영하기로 하고 마씨 문중 모든 가족이 이의가 없으며 마옥 자신도 이의가 없기 위하여 구두만으로는 증빙이 안되어 서명날인 서약서를 씀.

회사 서약인 마 옥  
 족장 마 융  
 족장 마 문괴  
 족장 마 문현  
 족장 마 문덕  
 족장 마 문옥  
 입증인 마 쇼  
 입증인 마 명  
 입증인 마 감  
 입증인 마 진                    이상”

마소가 회사 계약서를 낭독한 끝에 마옥에게 넘겨 주었다. 마옥이 받아서 왕중양 선생에게 넘기니 이에 왕중양 선생께서 접수하였다. 잔치가 벌어졌다.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배부르게 취해 각각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헤어졌다.

마원외가 이때 가산을 회사하는 용단성이 있었으므로 성도(成道)도 빨리된 것이다. 가산을 다 버리고 오직 수행을 갈망 했으므로 마음에 아무런 때가 묻지 않아 욕심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며 이 때 망념망상을 모조리 제거 했으므로 후일에 가장 먼저 도(道)를 이루었다.

### 求道

마원외가 이때 가산을 회사하는 용단성이 있었기에 빨리 성도할 수 있었다. 가산을 모두 버리고 수행만을 갈망했으므로 마음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욕심도 생기지 않았 이때 망념망상을 제거하여 후일에 가장 먼저 도(道)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아씨가 낭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이 일이 이렇게 잘 되지 않았을 것이요.“

일가친척들이 헤어진 뒤 마원외가 안방에 들어와서 연정에게 치송해  
마지 않았다.

“범사에 순리대로만 하면 안되는 일이 없어요.”

연정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이 일은 이제 성공했는데 다음은 우리가 도(道)를 전해받은 것이 문제요.  
왕중양께 가서 무어라 말씀드리면 될까요?”

마원외가 물었다.

“구도 문제는 천천히 추진하십시오. 스승님이 며칠간 쉬신 뒤에 우리가  
같이 가서 스승님을 모시기로 해요.”

마원외가 그 의견을 칭하 하였다. 마원외, 손연정은 이렇게 구도 문제에  
대해 상의하였다.

그런데 왕중양 선생은 천하의 수행하는 사람을 초청하고 모집하여  
여기서 수진양성(修真養性)하는데 대하여 인근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사단이 생길까 두려워하였다. 이 문제를 염려해야 하고 예방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혜택을 베풀어서 사람마다 은혜에 젖고  
은혜에 감복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왕중양 선생은 방편을 널리 행하고 어진덕을 많이 베풀어서  
돈과 쌀을 수시로 빈곤한 사람, 홀아비, 홀어미, 고아, 독신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한 마씨문내에 금전거래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이가 있으면 꼭  
도와주었다. 미혼남자는 결혼하게 하고, 출가못한 여자는 출가하게 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고루고루 보살피고 돈을 빌려가서 갚지 못하는  
이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는 이렇듯 어진 덕을 널리 펴기 위해서 남의 가산을 희사받은  
것이였다. 이것이 아니면 수전노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약서를 받지  
않았다면 그에게 이런 자유가 있을 수 없다.

마쇼가 왕중양 선생을 어질고 의리있는 사람이라고 논평하였다. 내외가  
평온하고 상하가 안심하니 선생이 많은 사람을 모집하여 도(道)를  
강론하는게 외부에서 아무런 잡음도 들려오지 않고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종종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부귀한 사람이나 윗사람이 되면 마음을 인색하게 하지 말고 남에게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 마음이 인색해서 남을 주기 싫어하면 계획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수시로 잡음이 생기는 것이다. 왕중양 선생이 만일 혜택을

배풀지 않았다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그러한 태평세월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왕중양 선생은 남에게 혜택을 베푸는 외공(外功)을 닦아서 수행인들이 정향하는 처소로 화원 주변에 십여채 암자를 지었다. 정신이 혼란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갑자기 평온해질 정도로 모든 설비가 완전하게 갖추어져 역사를 다 끝마쳤다.

선생이 중앙에 있는 암자를 차지해 그곳에서 내공(內功)을 닦으며 도를 물어오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었다.

하루는 마옥 손연정 이 두사람이 선생의 암자에 와서 도를 전해 주기를 구하였다.

“도란 깨치는 노선이다. 사람을 각성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요. 혼미의 길을 돌파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꼭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이루는 순세에 따라서 노력해야만이 성공이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도를 배우려면 먼저 본성을 연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첫 걸음이다. 본성은 선천적인 것이므로 뚜렷히 빛나게 연마하면 놀라운 작용이 있는 것이다. 본성이 정과 연결하여 발동하는 것이 용호와 같이 무섭다. 본성은 용같이 미치고 정은 범같이 영악하므로 만일 연마해서 길들이지 않으면 그 광폭성을 빼서 허무로 돌아가지 못한다. 본성을 연마하는 법은 공간도, 시간도, 남도, 자기도 아무것도 모르는 혼돈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용호를 길들이는 법을 배운 다음 다시 심원(心猿)을 가두고 의마(意馬)를 못질해야 한다. 심원의마란 마음은 원숭이 같이 교활하고 뜻은 길들이지 않은 말 같이 달아나므로 가두고 못질하여 원숭이가 재주를 넘지 못하고 말이 제 맘대로 달아나지 못하게하여 정정(정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정의 효과는 능히 천지의 조화, 음양의 묘리(妙理)도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정(靜)은 정적이니 만가지 사려가 다 사라지고 정(定)은 안정, 진정이니 한생각도 싹트지 않는 것이다.

마음속에 어떠한 잡념, 어떠한 구애도 없이 텅 비어서 남이다, 나다는 생각도 없고 아득해서 아무런 형상도 없어야 한다. 곧 마음이 최소한도의 연결도 없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도의 운곽이다. 더욱더 추상적이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과 뜻으로 깨달아야 한다. 너희들 수행이 진보되는 날 내가 꼭 너희를 지점하리라.”

왕중양선생이 말을 마치고 마옥에게 단양(丹陽) 손연정에게는 불이(不二)라는 이름을 주었다. 불이란 영구히 두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그들이 도호(道號)를 받고 스승에게 절한 뒤 자기방으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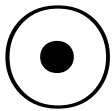
“우리가 스승을 찾아서 도를 배우기 전에는 서로 부부관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스승을 같이 모시고 도를 배우게 되었으니 도우(道友)가 된것이지요.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은애를 끊어야 하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방을 각각 거쳐해서 내가 직접 당신의 방에 가지 않고 당신도 직접 내 방에 오지 않고서로 상의할 일이 있으면 여종을 시켜 연락을 취해 대청에서 만나게 어떻겠어요.”

손불이가 마단양에게 이렇게 이야기 했다.

“당신이 하기에 달렸어요. 나는 염려를 마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지키면 나도 진심으로 지켜서 한해 두해 당신의 방에 가지 않아도 좋아요.”

단양이 말을 마치고 마흥에게 요, 이불 등을 서재로 가져가게 해서 침소를 마련토록 했다. 마단양이 손불이와 작별하고 서재로 돌아왔다.

수도는 본래 애정에 쏠리지 않아야 한다. 애정에 쏠려선 수도가 잘되지 않는 것이다. 마단양이 이때 부부간에 방을 따로 거쳐한 것은 수도에 성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손불이가 마단양과 침소를 달리한 수약 이주(二週)일만에



여종을 마단양에게 보내어 스승에게 같이 도를 물으러 가자고 불러냈다. 마단양이 세재에서 나와 손불이와 만나서 두 사람이 함께 선생을 찾아갔다.

“앞서 사존께서 본성은 선천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천이란 무엇인지 모르겠어옵니다. 이 세상에 그것과 근사한 것은 없아옵니까?”

그들은 이렇게 스승께 물었다.

“선천이란 하늘도 땅도 있기 전 아무런 형태도 없으므로 볼수도 없으며 아무런 지각도 감각도 없으므로 세상에 그것과 근사한 것이 있을 수 없다. 근사라는 말자체가 선천이 아니다. 근사 혹은 건사하다고 말할 때 이미 선천의 본뜻이 없어지게 된다. 우리가 만일 선천(先天)이 여기 있다고 말한다면 여기라는 말은 벌써 선천이 아니요, 선천이 저기있다고 말한다면 저기라는 말도 벌써 선천이 아니다. 본성이란 본래 선천적인 것이다. 그 존재는 뚜렷하고 빛난다. 형상이 없으나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요. 명칭이 있으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각도 감각도 없는 것이므로 그려내기가 어렵고 그와 근사한 것도 없다. 내가 이제 너희들 위하여 구태여 그 형상을

그럴테니 너희는 자득해야 한다. 왕중양 선생이 붓을 들어 칠판위에 한 원을 그리고다시 원안에 한점을 그렸다.

“너희는 이것을 아는가?”

마단양 손불이에게 물었다.

“제자들은 심령이 우매하여 이 뜻을 아지 못하나이다.”

“처음 한 원은 하늘도 땅도 해도 달도 공간도 시간도 아무런 분간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무극이라고 이름하여 형상이 없는 것이요. 다음 한점은 무형에서 유형이 생겨나므로 원안에 한점이 생긴 것이니 태극이라고 이름하여 형상이 있는 것이다. 이 한점에서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만물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하나에서 둘이 생기고 둘에서 셋이 생기고 셋에서 만물이 생긴다. 선천에서 태극이 생기므로 이 한점은 천지만물이 생성하는 원동력이다. 이 원동력이 선천에서 발하므로 내몸을 이루었고 내몸이 죽어도 존재해서 신선이되는 것이다.

이 원동력이 뚜렷하고 빛나게 존재하는 것이 곧 신선이다. 원동력은 인간 불생불멸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영성(靈性) 또는 영생(永生)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영성의 근원은 사람마다 존재한다. 다만 범부는 그것을 몰라 아주 캄캄하게 묻히고 있다. 묻히지 않아야만이 원동력이다. 묻히고 사람은 갈길을 모르고 헤매는 사람이다. 자기의 영성이 갈길을 모르면 사사로운 망념이 일체히 일어나 마음을 지키는 주인이 없고 온작 사마(邪魔)가 사사로운 망념을 따라 들어와서 내 마음을 공격한다. 그러면 선천이 영구히 없어지고 대도를 듣지 못하게 되어 인생의 고해에 배를 댈 언덕이 없고 지향할 곳이 없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술을 마시기에 취하는 것이다. 색이 사람을 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색에 반하기에 홀리는 것이다. 길을 아는이가 적지만 부지런히 오르면 산꼭데기에 오르고 가는 곳마다 선천을 증명할 수 있다.

인심으로 선천의 묻지 말아라, 인심으로 선천을 묻는다면 선천을 알려줘도 이해를 못한다. 도심으로 선천을 물어라, 도심으로 선천을 묻는다면 선천을 이려줄 대 곧 눈앞에서 보게 된다. 인심은 어둡고 욕심을 일으키는 마음이니 인심과 싸워서 정복하지 못하면 선천이 없어진다. 도심은 양심은 발현이니 이 마음이 있어야 선불성현을 배울 수 있다. 양심이 발현하면 선천은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얻게 되리라.

그리고 병을 치료해야 하는데 이것이 풍설열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탐진치애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 병만 치료하면 백병이 생기지 않아서 오래 살고 수한을 대해서 선불성현이 될 수 있다. 이 한가지 관제를

너희에게 내주니 힘을 다하여 실천하라, 병을 치료하는 법은 병의 근원만 알면 병을 고치기가 어렵지 않다. 병이란 대부분이 탐진치애에서 오는 것이니 이것이 내부에 상처를 입는 것이요. 또한 주색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것이 외부로부터 감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인은 먼저 주색재기를 버려서 외부의 감수를 없애고 그 다음 탐진치애를 끊어서 내부의 상처를 없애야 한다. 그래서 병의 근원을 뿌리뽑고 병든 몸이 튼튼해지면 대도를 닦아 영생을 이룩할 수 있다.

병의 근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이 수도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금주를 결심해서 술을 볼 때마다 결심을 새롭게 해 나가고 있는데 우연히 술자리에서 남이 마시는 것을 보고 또한 남이 같이 마시자고 꺾이면 갑자기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마신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병의 근원이 남아있는 것이다. 병을 고치려면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 꺾어야만이 병의 근원을 뿌리뽑을 수 있다.

우리가 색이 수도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색을 끊으려고 결심해서 색을 볼 때마다 이 결심을 새롭게 해 나가는 가운데 우연히 미인을 만나 아양을 떨고 속삭거리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동해서 여자와 교제하고 싶은 정이 생긴다. 이런정이 생기면 여자와 사귀지는 않았으나 사귄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병의 근원이 남아 있는 것이다. 병의 근원을 뿌리뽑으려면 먼저 마음을 바로잡고 생각이 진실하면 된다.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면 곳에 따라 망상이 생긴다. 술을 마시지 않으나 마음은 마시고 싶고, 여자와 사귀지 않으나 마음은 사귀고 싶다. 처음은 그런 생각이 없었으나 외부에서 감수하므로 내부에서 동요가 생긴 것이다. 수중에 비친 달이 암석에 부딪치는 파도로 해서 그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과 같다.

달은 흔들리지 않으나 달 그림자는 흔들렸고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으나 마음의 망상은 일어났다. 그러면 진도(眞道)가 아니다. 예 아닌 것을 보지말아라, 예 아닌 것을 듣지 말아라, 예 아닌 것을 말하지 말아라, 예 아닌 것을 행하지 말아라. 이것은 유가의 법이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라. 이것은 불가의 법이다. 보아도 보지 말아라, 들어도 듣지 말아라. 이것은 도가의 법이다. 우리가 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혹은 살아나가기 위해서 수행인도 먹을 것 입을 것은 있어야 하므로 이런 것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허영에 들뜨고 호의호식을 위해서 혹은 문벌을 위하고 토지가옥을 위해서 혹은 주색의 향락을 위해서 혹은 주색의 향락을 위해 주판과 저울위에서 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명리의 시장에서 분투 노력한다면 이런 사람은 도를 배우지 못한다. 명리를



구하고도 선불을 이룩할 수 있다면 세상에 이런 편리한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으로 도를 배우러 오는 사람은 그야말로 우습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활력(活力)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있다. 사람마다 천지의 정기(正氣)를 기르지 못하고 사나이다운 의기도 없고 패기 속기 광기 급기만이 얼굴에 드러나고 말로 다투고 행동으로 다투고 화내고 해서 기력만을 알고 이성을 모르며 범속을 초월해서 성인에 들어갈만한 광대한 기력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도를 배우러 오는 것은 그야말로 우습다. 이러한 병의 근원을 뿌리뽑으려면 옳지 않는 부귀를 뜯 구름같이 보라. 그 지향을 굳게 할 뿐 그 기력을 드러내지 말아라. 이것이 유가의 법이다. 남에게 욕됨을 당하고도 참으면 복이 온다. 이것이 불가의 법이다. 탐심을 다 버리고 인자한 암음으로 기력을 낮추라. 이것이 도가의 법이다. 깨라 깨우치라 깨달으라 그래서 마음을 바로 잡으면 세상 일을 뚜렷이 볼 수 있고 병의 근원을 뿌리 뽑을 수 있다.“

왕중양선생의 설법이 끝나자 마단양 손불이가 다시 참선하는 법을 물었다.

“고요히 앉아서 정(靜)을 잊고 생각이 끊어지면 마음이 죽고 신이 살아나는 것이다. 자리를 포근히 깔고 허리끈을 느슨하게 맨다. 새벽 한시에 동쪽을 향해서 두다리를 어긋나게 끼어 앉고 두손을 꼭잡고 자세를 곧게 하고 위 아랫니를 악물고 침을 삼키며 혀를 위잇몸에 붙이고 귀를 안으로 돌려서 드고 눈을 아주 가냘프게 떠서 신선을 드리워 배꼽 아래로 본다. 그러므로 현관이라고 한다. 정좌법 참선공부는 사사망념을 끊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사사망념이 있으면 신(神)이 순전한 양기가 못되고 공부를 이룩하기 어렵다. 정을 잊어야 한다. 정을 잊지 못하면 마음이 헝클어진 실 같이 혼란해서 도를 이룩하기 어렵다. 자리를 포근히 깔는 것은 오래 앉아도 물이 괴롭지 않게 하는 것이다. 허리끈을 느슨하게 매는 것은 기가 위 아래로 오르내리게 하는 것이다. 새벽 한시는 양기가 처음 발생하는 시간이다. 동쪽을 향하는 것은 생기를 취하는 것이다. 두다리를 어긋나게 끼어앉는 것은 신(神)과 기(氣)를 거두고 기르는 것이다. 두손을 꼭잡는 것은 주먹을 쥐는데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형상을 잊지 위한 것이다. 자세를 곧게 하는 것은 위아래가 서로 통해서 기(氣)가 어느 한군데서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를 악무는 것은 목구멍에서 기(氣)가 소모될 우려가 없게 하는 것이다. 입은 기가 출입하는 구멍이니 입이 열리면 기가 흩어진다. 그러므로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것이다. 귀를 안으로 돌리는 것은 귀는 정(靜)으로 통하는 구멍이니 소리를 따라 다니는 것이므로 안으로 향해서 소리를 듣지 않게 하는 것이다. 눈을 가냘프게 뜨는 것은 광명도 암흑도 다 취하지 않는

것이다. 눈은 신(神)으로 통하는 구멍이니 눈이 광명에 손상되면 신이 광을 따라 흩어진다. 눈을 아주 뜨면 신이 노출되고 아주 감으면 신이 어둡하므로 반만 뜨는 것이다. 눈정기가 현궁에서 배꼽아래로 보는 것은 하늘에 해와 달이 광명을 놓아서 만물이 성장하는 것 같다.

말을 내지 않는 것은 기(氣)를 모아서 입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요.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정(精)을 길러서 귀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며 빛을 피하는 것은 신(神)을 움츠려서 눈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루진인(無漏眞人)이라고 한다. 곧 정, 기, 신(精氣神)이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왕중양은 참선(參禪)에 대한 설법을 마치고나서

“참선(參禪)공부는 도(道)에 들어오는 문이다. 소용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힘을 다해 실천하면 자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게을리해서 앞길을 그르치지 말아라.”

고 부탁하였다.

마단양 손불이는 선생을 하직하고 각기 자기 처소로 돌아왔다. 그들은 선생이 가르쳐준 법도(法度)대로 실천하여 점차로 좋은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참선만으로 수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다시 선생을 찾아가 더욱 정미한 것을 터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공부에만 열중하여 달포를 경과했다.

하루는 마단양이 참선하는 가운데 왕중양선생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마단양은 일어서서 선생을 맞아들였다.

“대도(大道)는 끝이 없는 것이다. 모두다 가지려 해도 모두를 다 가지지 못하며 모두다 사용하려고 해도 모두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일의 천변만화에도 능히 간파해서 외곶으로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성심으로 도(道)를 반기고 진심으로 과오를 고치면 신심(信心)에 유익하다. 도(道)는 반기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는 것이니 일시일각이라도 도(道)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 일언일동(一言一動)이라도 꼭 양심으로서 우러나와서 언제나 마음이 어둡지 않고 모든 관념이 하나에 귀착하는 것이 진실로 도(道)를 반기는 것이다. 과오를 고치지 않으면 과오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니 병이 사심(私心)에 있다면 공평심(公平心)으로 사심(私心)을 없애고 병이 욕심(慾心)에 있다면 이성(理性)으로 욕심을 없애야 하며 병이 편견에 있다면 정경으로 편견을 없애고 병이 자존자대에 있다면 평등심으로 자존자대를 없애야 한다. 병이 이러한 점들에 있다면 곧 이러한 점들을 고쳐야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병이

생기면 곧 바로 알아야 하고 알았으면 곧 바로 고쳐야 한다. 고치면 곧 없어져서 자연히 심증이 봄바람 같이 잔잔하고, 별과 달같이 명량하며, 천지와 같이 넓고 크며 산악같이 진정(眞靜)하여 차츰 기운이 부풀어 올라서 천지에 흘러 일신에 충만되어 모르는 사이에 대도(大道)를 이룩하리라.”

왕중양 선생이 앉아서 마단양에게 도(道)를 일러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손불이도 자기방에 혼자 앉아서 참선하는 가운데 갑자기 왕중양선생이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손불이가 깜짝 놀라 어리둥절하게 일어서서 그에게 말을 물어보려는 순간,

“도의 이치가 정미하고 도법이 한계가 없이 넓고 커서 만사만물에 깊히 뿌리박혀있고 만과만류의 근원이 되는 것이므로 쾌활하고 자유스럽게 행해야만이 좋은 성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게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음(陰) 혼자만은 낳지 못하고 양(陽) 혼자만으로도 자라지 못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맥을 못쓰며 생각을 없앤다고 숨을 참고 있으니 음양이 서로 통하지 못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너는 아이를 벨수도 있고 아이를 낳을 수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언제나 저것에서 떠나지 않고 저것이 언제나 이것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왕중양 선생이 웃으며 이야기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연 음(陰)을 말하는 것이고 저것은 자연 양(陽)을 말하는 것이었다. 왕중양 선생이 이것 또는 저것이라는 말로 음양을 표시하는 것을 보고 손아씨는 얼굴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할 정도였다.

왕중양이 자기를 손으로 건드리며 이것이라고 하는 바람에 손아씨는 수줍음을 참지 못하고 전신이 떨려서 바삐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대청에 와서 앉아 곧 추향을 불러서 마원외를 오게 했다. 주모(主母)가 그토록 화난 것을 보고 추향이 지체없이 서재에 뛰어가서 마원외에게 알린 것이었다.

마단양이 왕중양선생을 모시고 설법을 듣는 가운데 추향이 숨가쁘게 뛰어와서

“왔가 원일이온지 화가 나서서 대청에 나오시더니 저더러 나리를 오시게 하면 사될 말씀이 계시다하옵니다.”

마단양이 이 말을 듣고

“사존께서 잠깐만 물러가기를 허락해 주시오면 제가 나가보옵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스승이 머리를 끄덕거리는 것을 보고 마단양이 물러나 대청에 와서 손불이를 만나보니 얼굴이 셋빨강고 노기를 참지 못하고 있었다. 마단양이 마주 보고 앉아서 웃는 낯으로

“손도우는 왜 그렇게 화를 내시오. 가복들이 당신에게 무례를 저질러도 주인으로서는 응당 너그럽게 양보해야지요. 그들과 맞서서야 되겠어요.”

하니 손불이가 말하기를,

“사형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런 말씀만 하시네요. 왕중양을 도덕이 있는 사람으로 믿었는데 천만에 아주 심통이 더러운 부정한 늙은이였어요. 아까 저의 자는 방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더러운 추잡스러워서 못들을 이야기로 나를 괴롭히니 나는 어쩔줄을 몰랐어요. 나는 이런 도는 안배우겠어요.”

손불이의 대답이었다.

“사존께서 언제 당신의 방엘 가셨다구요.”

“조금 전예요. 내가 여기로 오기전”

“거짓말 마시오. 사존께서 아침부터 제 방에서 설법하셔서 잠시도밖에 나가시지 않으셨고 저도 그 옆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았으며 지금도 사존께서 제 방에 앉아 계실거요. 추향이 날 부르러 왔을 때도 사존께서 설법하고 계셨어요. 이 말에 믿어지지 않으면 추향에게 물어 보시오.”

손불이가 말을 하기 전에

“제가 나리를 모시러 가 본즉 노선생님이 이치를 설하고 계셨사옵니다. 제가 나리를 모시고 온 후에도 그대로 계시은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추향의 이야기였다.

손불이가 추향의 말을 듣고 머리를 수그리고 아무말도 없었다.

스승이 서재에서 오래기다려 궁금해할까 염려되어 마단양은 손불이와 더 말을 얹고 각자가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손불이가 가슴의 울분을 담뱃 안고 마당양과 만나서 선생에 관한 사연을 이야기하면 울분이 풀릴 것으로 여겼는데 뜻밖에도 도리어 재미없이 되어 우울하고 불쾌한 기분으로 자기방에 돌아온 것이었다.

달포만에 마단양이 혼자 선생의 암자로 도를 물으러 갔다.

“모처럼 이야기 하고 싶으니 거기 앉아라.”

왕중양선생이 숨을 깊게 내쉬고

“원 세상에 별일도 있지, 도를 닦는다는 사람들이 일에서만 닦고 혹은 입으로만 닦으니 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애당초 조금도 유익하지 않는 일들이다. 혹은 귀와 눈으로만 닦고 혹은 배로만 닦으니 모두가 상을 비우지 못하는 유원법이다. 이것은 도가 아니다. 도의 근본적 요소가 없어서 도라고 할 수 없고 그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서 다 지적할 수 없다. 좌도방문에 흐르는 이도 있고 수련을 구실로 딴 목적을 갖는 이도 있고, 겉모양은 훌륭하나 속이 불완전한 이도 있고, 지향은 견고하나 역량이 부족한 이도 있어서 제각기 병이 있다. 허약증이 없으면 비대증이 있어서 중정(中正)한 노선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낙을 누리면 저기서 괴로움을 겪고 이만큼 전지하면 저만큼 후퇴하게 된다. 대도의 묘(妙)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실은 그런 줄을 모르고 있다. 그 원인은 인심이 소멸되지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일을 담백하게 보지 못해서, 의복이 남만치 화려하지 못하면 걱정되고, 음식이 남만치 싱싱하지 못하면 걱정되고, 이름이 남만치 드러나지 못하면 걱정되고, 재주가 남만치 날리지 못하면 걱정되고, 돈 물건이 남만치 못하면 걱정되고, 집, 땅이 남만치 넓지 못하면 걱정되어 모든 일들을 담백하게 심상히 보지 못하므로 탐내고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때로는 편안히 살고싶은 생각이 있다. 가슴에 가득찬 사욕이 인심이요, 세속맛이 짙어서 이 마음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사람마다 진실한 영성이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도를 만들어내는 원료인 동시에 도를 이룩하는 근기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세속일을 멧적게 보지 못하는 까닭에 영성이 어둡고 도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이 도심(道心)으로 오마(五魔)를 정복하면 오마가 자연 소멸된다. 그러므로 수행인은 인심을 버리고 뜻감을 살려야 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도심을 발휘하고 정과를 이룩하는 것 이것만이 나의 소원이다.”

왕중양선생의 설법이였다.

그런데 손불이가 앞서 대청에서 마단양에게 한마디로 설복되어 묵묵히 아무말도 못하고 자기방으로 돌아왔으나 심중에 의혹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만일 이것이 꿈이라면 내가 참선 중에 잠이 든 것도 아닌데 꿈을 어찌 꾸었겠는가? 그리고 그가 들어오는 것을 내가 정녕 보았고 그의 이야기를 내 귀로 역력 들었는데 어째서 그가 원외의 방에 계속 앉아 있었다는 말인가 참으로 이해못할 일이다. 그 이유를 알아낼 길이 없구나.”

손불이가 이렇듯 의아해하고 있는 중 별안간 왕중양선생이 또다시 창앞에 드리운 주렴을 걷어올리며 웃고 들어오는 것이였다.

“대도는 남녀의 분간이 없는 것이다. 음양이 분리돼서는 도가 성립 안되는 것이다.”

왕중양선생의 말이었다. 손불이가 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는 물러나서 문앞에가서 우뚝 서

“스승께서 암자에 안계시고 자방에 오신 것은.....”

이렇게 물었다.

“너는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조화의 도리를 모르고 있다. 쓸쓸한 방에 외로이 앉아서 도를 닦다보니 너의 원기가 날로 말라빠져 간다. 남편이 없는 여자는 원한의 여인이요, 아내가 없는 남자는 방랑의 사나이다. 내가 이제 그 이치를 밝히고자 너를 찾아온 것이다. 일음일양(一陰一陽)을 배합하는 것만이 이치이며 손에 잔을 들고 권하는 황과(黃婆)의 술을 마시면 서쪽의 여자와 동쪽의 남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며 부부가 되어 같은 방에 들어가서 두사람이 교감하여 잉태를 이루어 몸에 단(丹)을 지니고 열달동안 온상에서 기르다 시기가 차서 아이를 낳으면 이것이 참된 진인(真人)이다. 네가 이제 내 말대로 하면 곧 천궁에 돌아가서 옥황을 뵈오리라.”

왕중양선생의 대답이었다. 손불이가 훌쩍 문밖으로 나가서 문을 꼭닫고 소를 채웠다. 자기가 앞서 이야기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손불이는 마단양의 서재로 와서 보니 문이 닫혀 있었다.

“원외가 이디로 가셨느냐?”

가복 마흥에게 물으니

“원외께서는 암자에 가셔서 왕중양선생의 설법을 듣고 계십니다.”

실로 기이한 대답이었다. 한편 왕중양선생의 암자에서는 한장

“신심은 희박(稀薄)해야 하고 도심은 농후(濃厚)해야함”

에 대해 설법하는 도중에 갑자기 웃으시며 마단양에게

“어서 나가보라. 누거 너를 찾아왔다.”

고 하는 것이었다.

마단양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손님이 찾아왔는가 하고 곧 선생을 하직하고 나가보니 아무도 안 보여서 급히 대청으로 가는 도중 손불이와 마주쳤다.

“여보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와 보세요.”

손불이가 마단양의 옷을 끌어당기며 재촉하는 것이었다.

“어디로 가잔 말어요?”

마단양 물었다.

“묻지 마시고 와 보시면 자연 모든 것을 아시게 돼요.”

마단양이 손불이의 뒤를 따라서 그의 방문 앞에 이르렀다.

손불이는 문에 걸린 자물쇠를 열고 마단양에게 방안으로 들어가 보라 하였다.

마단양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나 들어가 보았다. 그는 반년 동안이나 이방에 들어와 보지 않았지만 침상이나 포장을 설치한 것이 여전하고 상자나 옷장도 그대로며 책상과 의자외에는 변한 것이 없었다.

“제게 뭘 보라고 하시는 거요?”

마단양이 물었다.

“스승을 보란 말이지요.”

손불이가 대답하였다.

“사존께서는 암자에서 제게 설법하고 계셨는데 어느 사이에 여길 오셨겠소. 댄 선생이 또 있다면 모르겠지만...”

마단양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손불이가 믿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방안으로 들오와 보았다. 이불을 걷고 포장을 헤치고 침상 밑, 침상 뒤 여기저기 찾아보았으나 스승의 종적이 없었다.

“참 이상야릇한 이야기, 참 이상해.”

손불이가 입속으로 이 말을 되풀이 했다.

“뭘가 이상야릇할게 있나요. 수도의 일념이 순수하지 못해서 마(魔)가 붙은 것이지요.”

“사형(師兄)은 그런 말씀마셔요. 저가 늘 잡념이 없이 청정을 지키는데 웬 마가 붙어요. 스승이 두 차례나 제 방에 오신 그 모습이 제눈에 선연하고 그 목소리가 제 귀에 완연하고 그 이야기가 제 기억에 생생한데 이것이 마가 붙은 것이라고 어찌 생각할 수가 있나요.”

“그 이야기란 어떤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보시요.”

손불이는 왕중양선생이 두차례에 걸쳐 자기방에 들어와서 이야기한 것을 모조리 마단양에게 일러 바쳤다.

“허허허” 마단양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야 알겠다는 듯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손도우가 총명한 줄알았는데 한편으로는 어리숙한가 보오, 이 이야기는 손도우가 어리숙한 거요. 도란 총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것이요.”

“어째 제가 어리석은가요.”

“도를 배우는 사람은 마음 속이 비어서 남의 말을 잘 받아드리고 자세를 낮추어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기를 꺼리지 않아야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 최후의 미를 이룰 수 있는 것이요. 도의 묘한 정을 수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도법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요. 그런데 당신이 참선하는 법을 조금 배우고 이쯤하면 수도가 다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빈방에서 지켜 앉아 있으니 상존께서 분신(分身)으로 제도하신 거지요.”

마단양의 이야기는 계속 되었다.

“사존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일음일양(一陰一陽)을 도라고 하는 것이여서 일음일양을 떠나서는 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요. 이 음양이란 음성양성 혹은 긍정부정의 음양을 말하는 것이지 남녀가 결혼해서 살림을 살아가는 음양을 말한 것이 아니지요. 이것이란 음양의 원리를 말하고 저것이란 음양의 작용을 말한 것인데 당신이 이해하질 못했어요. 양혼자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양은 불에 속하니 불이 많으면 조금해서 단(丹)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음 혼자 낳지 못한다는 것은 음은 물을 낳으니 물이 많으면 넘쳐서 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지요. 수도인은 물과 불이 서로 돕고 음양이 서로 통해져야만이 단을 구워낼 수 있습니다. 조화의 도가니를 너는 모르고 있다는 말씀은 당신이 음양의 이치에 어둡다는 것을 명백히 알려주신 거예요. 원한의 여자 방랑의 사나이란 역시 음혼자 낳지 못하고 양혼자 자라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이 음양이 없어서는 안되지요. 이 음양은 단을 구워내는 기틀이지요. 황과란 의욕이니 의욕으로 음양이 서로 통하는 것이 잔을 들어 맞대어서 술을 마시는 것과 같지요. 의욕은 토에 속함으로 흙의 빛깔이 누르니 황과라는 말로 의욕을 비유한 것이지요. 서쪽 여자란 금이니 금은 여자라는 거지요. 동쪽 남자란 목이니 목은 동방에 소속이므로 동쪽 남자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합한다는 것은 금도 八량중 목도 八량중 二八청춘이라는 거지요. 금은 목씨의 아들이 아니고는 못이겨요. 목씨의 아들이란 불이지요. 또 목은 금씨의 아들이 아니고는 못낳아요. 금씨의 아들이란 물이지요. 음양의 조화란 모두 금목수화토 오행(五行)이 혹은 낳고 혹은 이기는데서 생기는 거지요. 수도인이 의욕으로 음양이 통하는 것이 결혼상담소의 소개로 두집이 합하는



것 같고 금과 목이 서로 만나서 틈없이 지내는 것이 부처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같지요. 동방은 단정(丹庭)이니 금과 목이 단정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금은 낮이고 목은 혼이니 혼과 낮을 한군데 모아서 잇으려고 해도 잇지 못하고 생각을 얹어도 저절로 생각이 나서 혼이 낮을 떠나지도 못하고 낮이 혼과 헤어지지 못하는 것이 부처와 같지요. 둘이 똑같아서 수은도 八량중 연철도 八량중이지요. 교감이란 단을 결성하는 것이니 혼과 낮이 서로 의존하고 정과 기가 쾌감이 있는 듯 응결하는 것이 잉태하는 것 같지요. 열달이란 十은 수의 완성이니 시기가 닥쳐왔다는 거지요. 온상에서 기른다는 것은 정과 기가 응결한 뒤 불가능을 잘 보아서 단련하여 단을 이루는 거지요. 기한이 되어서 아이가 나온다는 것은 기가 화해서 신(神)이 되는 것이니 양신 혹은 양기신이라고 해서 분신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이신이 니환궁(泥丸宮)에서 나와서 위로 금궐에 올라가 조회보고, 아래로 진인이 되어서 영생불멸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신선입니다.”

손불이는 마단양 이야기를 듣고 크게 깨쳤다. 손불이가 마단양의 말을 듣고 보니 몽둥이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들고 미혹의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만일 사형(師兄)이 저를 깨우쳐 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대사(大事)를 그르칠 뻔 했어요. 판 일은 제가 사형보다 영리하나 도를 배우는데는 그만 못한지 모르겠어요.”

손불이가 서글퍼 했다.

“당신의 재주가 나만 못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총명이 오히려 해롭다는 말이 있어요. 총명한 까닭에 자기 몸을 망치는 이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 일이 모두 배워서 아는 것이지 난 때부터 아는 이가 몇이나 되나요.”

마단양의 대답이었다.

“스승의 말씀에 복종하겠어요. 저도 앞으로는 허심탄회하게 배우고 싶어요.”

손불이의 말에 마단양이 기뻐하며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수일이 지나서 마단양의 외숙 회갑잔치가 있었다. 그래서 마단양이 손불이와 함께 갈려고 하는데 손불이가 병이 났다하므로 마단양이 홀로 가복과함께 당나귀를 타고 외숙택을 향했다. 손불이는 자기가 배우지 않아서 도리에 밝지 못하다는 마단양의 말을 심중에 되새기고 있었다. 마단양은 부재중이고 가복들은 모두 놀러 나가고 없을 때 그는 혼자서 선생의 암자를 찾아갔다. 참선중인 스승앞에 꿇어서 “제자 손불이는 심정이 우매해서

도리에 밝지 못하여 두 차례나 과오를 범하였으니 앞서 사형(師兄)이 깨우쳐 주셔서 그제야 사존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른 노선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와서 뉘우쳐도 때가 늦었아오니 바라옵건데 사존께서 용서하시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기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간절하였다.

“일어서 내 옆에 와 서거라. 내 너를 위해 할 말이 있다.”

왕중양 선생이 그의 도를 배우기 위한 정성을 아껴하는 것이었다.

“도는 상승 중승 하승 세가지법이 있어서 누구나 그 역량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설명을 듣고 어느 법을 배우고 싶은지 말해보아라.”

손불이가 일어나 왕중양 선생옆에 가서 설법을 들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생사가 문제되지 않는다. 사람이 죽음을 알면 죽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세상에 제일 위대한 사람은 죽는 공부를 마친 사람이다. 상승법(上乘法)이란 능히 허무 적멸을 이루는 법이다. 천지의 조화를 차지하고 음양의 원리를 터득하고 구름없는 만리 창공에 떠 있는 하얀 달처럼 아무데도 매달리지 않고 일점 영성의 근원을 법으로 수련하면 허무한 영성에서 만유가 생겨나서 능히 천지와 같이 오래가고 일월과 같이 밝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상승법, 선천법이다. 중승이란 지성을 모아 청구재계하고 선불 신성을 받들어 예배하고....”

왕중양 선생의 설법은 진지하게 계속되었다.

“신선의 호를 부르고 신선의 주문을 외우고 만가지 사례를 깨끗이 쓸어 없애고 순진한 일념이 위로 천심을 동하게하여 만령이 모두 굽어 살피고 광명이 사라지지 않은 일점영성(一點靈性)이 곧 허무의 경지에 다다라서 신선의 자리에 참가하는 것이니 중승법(中乘法)이다.

하승법(下乘法)이란 공덕을 쌓고 선심을 모으고 널리 방편을 행하여 남을 건져주고 세상만물을 이롭게하고 이런 착한일을 많이 실천함과 동시에 항상 과오를 살펴서 도심이 어둡지 않고 영성이 현저히 밝아서 때가 오면 나타나고 운이 가면 숨는 것이 신선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하승법(下乘法)이다. 너는 네 역량을 헤아려보라. 어느 것을 배워야겠느냐? 그것에 따라서 너에게 수행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제자 상승법을 배워서 천선(天仙)이 되고저 하나이다.”

라며 왕중양 선생의 설명을 듣고난 뒤 손불이는 왕중양에게 대답했다.

“하하하 너는 마음은 크나 지향이 그렇게 굳세지 못할게다.”

왕중양 선생이 웃음을 터뜨렸다.

“제자 마음은 못하오나 지향은 매우 견고하나이다. 이 몸이 죽어도 지향은 가지지 않겠나이다.”

“무릇 수도인은 산천의 영기를 타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리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왕중양 선생이 손불이를 먼 타향에 가게해서 그 지향을 시험해보려는 수단이었다.

“지금 낙양은 산천영기가 왕성한 지대이다. 거기서 응당 신선 한분이 날게다. 네가 여기가서 십여년만 수련하면 성도할 가망이 있는데 네가 능히 가겠는가?”

어려운 과제였다.

“제자 가겠나이다.”

왕중양선생이 손불이를 흘깃흘깃 바라보고 머리를 흔들었다.

“안돼 못가!”

“제자 죽음을 각오하면 왜 못가겠나이까?”

“죽음도 유분수지 죽어서 보람있는 일이면 하지만 보람없는 죽음이야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낙양이 여기서 멀고 먼천리길인데다 노상에는 강패도 많고 놀잇군도 많다. 꽃 같고 옥 같은 너의 미모를 보고 그대로 둘 것 같으냐? 작으면 농담을 걸고 크면 능욕을 주리니 순결한 너의 상격은 그들에게 더럽힘을 받은걸 참지 못하여 차라리 목숨을 버려서 네 절개를 사린다면 이것은 결국 오래살기를 배우려다 도리어 억울하게 죽는 것이니 그러므로 못간다는 것이다.”

손불이가 이말을 듣고 반나절이나 생각다 결국 선생에게 아무말도 없이 암자에서 뛰어나왔다.

손불이가 부엌에 들어가서 여종들을 모조리 내쫓고 자기 스스로 불을 피우고 남비에 참기름을 붓고 끓게 했다.

그리고 냉수 한그릇을 손에 들고 얼굴을 남비 가까이 대고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마음을 단단히 먹은후 남비에 냉수를 부었다. 그랬더니 기름이 사방으로 튀며 얼굴에 뿌려졌고 얼굴은 곧 굳데굳데 살가죽이 부풀어 올랐다. 손불이는 아픔을 참고 선생을 찾아갔다.

“제자 이래도 못가겠나이까?”

왕중양선생이 얼썩 쳐다보고 손바닥을 치며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참으로 세상에 드문 일이었다.

“세상에 이렇게 큰 뜻을 품은 사람도 있단 말인가, 내가 산동에 온 보람이 있구나.”

선생이 이렇게 말하고 곧 일음일양의 묘한 이치와 조화의 비밀, 음을 녹여 양을 이루고 속세를 초월하여 성인에 드는 법 등을 모조리 손불이에게 전해주었다.

“대도는 들어나지 않고 이름이 없는데 숨어 있는 것이다. 이름이 없는 공부란 한층 더 나아가서 반미치광이가 돼야만이 내가 도덕이 있고 수행이 있는 것을 남이 모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성과를 거두는 날에 비로소 현신으로 나타나서 법륜을 굴리는 것이다. 너는 얼굴의 상처가 낫거든 내게 하직하러 오지 말고 곧 낙양으로 떠나거라. 너의 공과가 원만하는 날에 반도회상에서 다시 만나자.”

선생이 말을 마치고 눈을 감고는 말이 없었다. 대도를 다 전했으므로 이이상 말이 필요치 않은 것이었다. 손불이가 선생을 향하여 절을 여러번 했다. 신선을 쉽사리 내 수중에 들어오게한 것이 감사해서 절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손불이가 암자에서 나오다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여종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의복이 만일 바뀌졌더라면 누군지 모를 정도였다.

“에구머니, 이게 웬일이시옵니까?”

그들이 일제히 뛰어와서 묻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스승께 기름떡을 구워 올릴려고 그랬어. 너희가 깨끗치 못할까 싶어 너희들을 밖에 내보내고 내가 직접 만드는데 기름을 더 넣는다는 것이 잘못 해서 냉수를 부었던 말이야, 끓는 기름에 냉수가 들어갔으니 피할 도리계 없잖아, 다 한때의 액운이니 큰 관계는 없다. 너희들은 놀라지 말고 가서 각자 자기 할 일이나 해라. 내 걱정일랑 말고.”

손불이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기방으로 돌아와서 문을 딱 닫았다. 선생이 전해준 법을 묵묵히 되새겨 보고 일일이 실천하였다.

이틀 후 마단양이 돌아왔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여종들이 뛰어와서 손불이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사실을 알렸다.

마단양은 깜짝놀랐다. 우선 암자에 가서 선생을 뵙고 곧 뛰어와서 손불이를 만나보았다. 얼굴 전체에 물집이 생겼고, 물집이 터져서 누런 물이 흐르고 있었다. 꽃같고 옥같은 얼굴이 악귀의 몰골로 변해 있었다. 마단양이 보고 걱정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아아 이 일을 어쩔까. 손도우 당신이 왜 한순간의 부주의로 일련 화상을 입어서 자기의 일생을 그르치는거요.”

마단양의 말이 끝나기도전에 손불이가 두 눈을 똑바로 떠서 마단양을 바라보고 연방 웃어대는 것이었다.

“아야, 네가 서왕모에게서 온 아이냐. 나를 반도대회에 데려가려고 왔지. 응!” “내가 곧 너와같이 천궁으로 올라 가겠다. 어서 가자. 어서가자.”

그러면서 의자에 올라가 창살을 잡고 위로 올라가려고 했다. 그러다 잘못하여 의자가 넘어져 눈을 다쳐서 엉엉 우는 것이었다. 마단양이 그를 붙들어 이르켜 주었다. 그녀는 울었다. 웃어도 미친 사람과 똑 같았다. 물론 미친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연극이었다. 마단양이 이 광경을 보고는 매우 비참한 마음을 암자로와서 스승께 물었다.

“손도우가 신선을 사모한 나머지 미쳐 버렸습니다. 어찌면 좋으리까?”

“미쳐야 한다. 미치지 않으면 신선이 못 되는 것이다.”

왕중양선생의 대답이었다. 마단양이 다시 말을 물어보려고 했으나 스승이 이미 눈을 감고 정적에 들어가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암자를 나와 대청에 왔으나 마음이 괴로웠다.

그러나 한편 손불이는 미쳤다는 소문으로 인해 누구의 출입도 없고 계다가 마단양까지 따돌려서 공부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영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기분이 명랑해서 어찌나 좋은지 감히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제야 수도가 이러한 좋은점이 있고 매우 즐거운 것임을 알았다. 손불이는 거울앞에 가서 얼굴을 비추어 보았다.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 부스름 자국이 어떤 곳은 빨갛고 어떤 곳은 거무스름했다. 달포나 머리르 안 빳었으니 허트러진 머리며 지저분한 모습이 머리를 헤치고 다니는 악귀와 비슷했다. 항마대장군이 아니면 정녕 야채귀나 구반다귀가 백주에 나타난 것과 같았다. 도저히 마원외의 손아씨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손불이는 그런 얼굴을 보고 속으로 기뻐다.

“이만하면 낙양을 갈 수 있겠다.”

그는 옷을 갈기갈기 찢고 손지검을 문지르고 대청앞에나와 웃음을 터트렸다.

그것을 본 여종들이 깜짝놀라 멈칫하고 있으니 손불이가 그들을 잡으려고 했다. 여종들이 무서워 도망을 가려다 손불이게 붙잡혔는데 마구 손에 닿는대로 입으로 물어뜯고....

늘 시중을 드는 야배가 이 광경을 보고 한사코 손불이를 붙잡으며 말렸으나 도리어 손불이는 야배를 사정없이 물어뜯고 뿌리치고 달아나 버렸다.

상황이 이쯤되자 여종들은 자기들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황급히 원외에게 알렸다.

참선중이던 마원외가 밖에서 떠드는 소리를 듣고는 밖으로 나가 보았다.

“아씨가 광증이 몹시 발동하셔서 집밖으로 달아 나셨나봅니다.”

“어서 따라가, 어서 따라가.”

여종들의 말을 들은 마원외는 손불이를 놓칠까 겁이나 그들을 빨리 따라가게 하고 자기도 뒤따랐다.

손불이는 부락문이 있는데 까지 한숨에 뛰었다. 문지키는 사람도 그를 막지 않았다. 왜냐하면 부락 사람들이 그가 손아씨라는 것을 알아 차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부락안을 벗어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슬그으름을 얼굴에 바른 것이 큰 효력을 가져온 것이었다.

손불이는 뒤에서 사람이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풀이 우거진 곳에 들어가서 숨었다. 과연 마단양이 여종 가복들을 데리고 따라왔다. 손불이가 숨어있는 곳을 지나쳤다가 얼마 안돼 다시 되돌아와서 탄 길로 접어들었다.

손불이가 풀숲에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고있다가 나와 동남쪽을 향해서 떠났다.

낮에는 부락에 들어서 구걸하고 밤에는 헐어빠진 성황당에서 잤다. 인적이 없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좋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면 다 잘 수 있었다. 누가 와서 말을 걸어오면 “천상에 허드레 지하에 허드레” 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을 지껄이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 사람들이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미친 여자라고 단정하고는 더 말을 물어보지 않았다. 뿐 아니라 노숙을 하면서도 아무 사고 없이 지낼 수 있었다.

점잖은 사람을 만나면 길을 물어가며 간 것이 두달이 못돼서 낙양에 이르렀다. 만장파도를 조금도 겁내지 않고 일엽편주로 대해 바다에 노는 기분이었다. 생각하면 은애의 거센파도에 헤매인지 몇해던가! 이제 바다 한가운데라도 구조선을 부를 필요도 없이 수행만 잘 하면 자연 사람사는 항구에 닿는 것이다.

낙양성 밖에 허무러진 기와공장이 있었다. 그는 기와공장의 기와굽는 가마속에서 살았다. 늘 성안에 들어가서 걸식하고 다니니 아이들이 “꼬리 길어 미친년 꼬리 잘라 미친년” 이라고 놀리면서 따라 다니는 것이었다.

성안밖의 모든 사람들도 그를 미친여자로 단정하였으므로 그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무사히 도를 닦을 수 있었다. 미치는데 대도가 숨어 있다는 왕중양선생의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었다.

그런데 낙양에 이름난 미치광이가 둘 있었다.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진짜 미치광이였다. 이 박가, 이가는 거리에서 여러차례 손불이를 보았다. 얼굴은 더러우나 귀여운 눈동자, 박씨같은이..... 만일에 허물 자국만 없다면 으젓한 부인 기품음에 새겨둔 것이었다.

달은 밝고 바람도 시원한 밤이었다. 하늘에는 무스한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두사람이 부락에 들어 양민의 돈을 훔쳐서 마냥 먹고 마시고 놀다 취하여 돌아오는 길에 손불이가 사는 기와공장을 바라보면서 박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여보게 저 기와공장에 사는 미친여자 말이야, 오늘밤 그 여자를 찾아가서 우리 재미보세.”

“그만둬, 내가 들은 말이있네, 미친 여자와 일을 치르면 모든 것이 재수없다고.”

“이 사람아 우리는 천신도 돌보지 않고 지신도 내버린 인간이라네, 재수가 좋으면 어떻게 나쁘면 어떻게.”

박가는 이가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저 혼자 기와공장을 향하여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가도 뒤따라갔다.

그들이 기와굽는 가마에 가까이 갈 무렵 갑자기 산이 무너지는 듯한 벼락치는 소리가 그들의 머리위에서 울려왔다. 그들은 무서워서 전신을 떨었다. 한점 검은 구름이 삼시에 널리 퍼지더니 천지가 캄캄하여 지척도 분간할 수 없었다. 폭풍이 일어나며 폭우가 쏟아졌다. 그들의 머리위에서 북을 치는 것 같았고 온몸은 한기가 들었다.

“천벌이야 내가 그만 두라고 해도 네가 아듣고 우기더니 꼬락서니가 어찌됐나 봐.”

이가가 해대는 원망을 듣고 박가가 기분 나빠라 하며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발이 빗나가서 돌자갈 같은 우박위에 넘어졌다. 그는 멀쩡히 넘어졌다고 화를내며 황급하게 일어서려는데..... 거듭더 세계 넘어졌다.

누가 뒤에서 자기를 떠미는 것 같았다. 몇번을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고 눈이 붓고 피가 흘렀다.

조금뒤에 언제 그랬냐는 듯 구름이 걷치고 달이 나타났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별빛이 찬란하였다.

이가는 박가와 같이 우박을 맞긴했지만 넘어지지도 않고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 그런 반면 박가는 호되게 경쳐 얼이 빠져 있었다.

“내가 왜 자꾸 넘어졌나 몰라, 암만해도 그 미친여자 잡것이....”

“그 여자 건드려선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해. 그래 다음에도 또 올거야?”

“안와, 정나미 떨어져서도 안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 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가가 이 사실을 여러 거렁뱅이 패에게 이야기 했다. 한사람으로 해서 열사람이 알고 열사람 입은 백사람에게로 전해졌다. 그 이후로는 나쁜 무리들이 손불이의 거처에 얼씬거리는 일이 없었다.

왕중양선생이 마원외의 집에 머문지 한해가 더 됐다.

“들어오는 복도 막대로 쳐서 내쫓는다구, 마원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일평생 호강할텐데 괜히 그 좋은 가산을 남에게 바치고 손 툭툭 털고 나서니 그 탓에 손아씨마저 미쳐 이제는 간 곳을 모르고.....”

대부분 부락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이런말들을 했다.

부락에 단안인이라는 오십세 남짓한 사람이 있었다.

“어저께 내가 볼 일이 조금 있어서 그 집에 찾아 갔었어, 문지키는 사람도 없고 해서 말없이 쓱 들어갔지, 여종은 하나도 없고 남자종들만 보였어, 원외는 어디 계시냐고 물으니 뒷 화원 암자에서 중양선생의 설법을 듣고 계십니다. 하기에 따라가 보았어, 새로 지은 암자가 즐지어 여러 채 있는데 한 가운데에 있는 암자에 마원외가 왕중양과 같이 앉아 있더군,



마원외가 나를 보자마자 곧 나오더라구, 소아씨의 소식이나 들었는가고 물으니

“그는 그의 갈 길이 있고 나는 나의 할 일이 있다 그의 간 곳을 알아서 뭐하느냐”

고 그래, 그래서 또 야배 및 모든 여종들은 어디로 갔느냐고 물으니 남자는 장가를 보내고 여자는 시집을 보내서 제각기 가정을 마련하여 잘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은 어제 주복관계가 아니라고 그래, 이 암자들은 뭐하려고 지었냐고 물으니....

“수행인을 많이 모아서 도를 배우고 정신을 수양하게 할 목적으로 지었다고 그랬어, 중양선생은 어찌서 바깥출입을 앓느냐고 물으니 그이는 평온과 정적을 사랑하고 세속 사람과 교제를 싫어한다고 그러더군.

마원외와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다 마흥을 만났어, 이집이 그전에 손님의 출입이 잦고 절집 모양으로 쓸쓸해졌느냐고 물으니 그걸 모르시냐면서 우리집 중양선생님은 활발 활신선이신데 어찌구 저찌구 하면서 늙은 사람 몇 명만 남아 집을 관리하고 있다했어, 중양선생이 어찌 활신선이냐고 물은즉 모든 집안 일이나 부락일 온세상 일에 대해 아무도 그에게 말씀드리는 사실이 없는데도 그이는 그것을 환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만 앞으로 오는 일이나 어느날 비오고 어느날 개일것인가까지도 모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활신선이 아니겠습니까그래.“

단안인의 이러한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반씨라는 노인이

“지금 그말과 같이 그이가 앞으로 오는 일을 능히 안다면 요즘 오래도록 비가 안와서 이렇게 가무니 우리가 모두 가서 어느날쯤 비가 오겠는가 물어보는 것이 어때.”

하고 물었다.

“그렇시다. 그렇시다.”

반씨 및 여러 노인이 마원외 집으로 몰려갔다. 먼저 마단양을 만나서 온 뜻을 설명하였다.

마단양이 여러 노인들을 선생의 암자로 데리고 갔다.

“언제쯤 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부락 동쪽에 성황당이 있습니다. 그 성황당에 비올 시기가 적혀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곧 그곳으로 가 보았다. 과연 백회로 바른 벽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인왕(人王)의 낮바닥에

한쌍의 손톱

임금님의 집에

빛나는 구슬하나

二十三일에 큰비가 오면

화상(和尚)의 입에서

흙을 토한다

맨 끝에 아주 작은 글자로 이글을 네글자로 풀어보라는 설명이 있었다. 이것을 본 반씨는 여러 노인에게 이글을 읽어주었다.

“하하하 이거야 학생들이 낙서한 것으로 글자풀이지 비올시기를 말한것인가?”

하고 웃어댔다.

“그래, 글자 풀이라고, 어떻게 푸는 것인가 풀어보라고.”

“나도 글자풀이는 많이 해보았어 어것썸이야 못푸나.”

“물론 잘하겠지, 자네만 알지말고 우리도 알게 어서 풀어보게.”

“인왕(人王)에 두점을 보태면 이것이 금(金)자야, 임금님은 왕(王)자이니 이것에 한점을 보태면 이것이 옥(玉)자야, 二十三日에 비오는 것은 만(滿)자야, 화상(和尚)입에서 흙을 토하는 것은 이것이(堂)당자야, 이 네글자를....

이 네글자를 합하면 금옥만당(金玉滿堂)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것이 비올시기를 말한 것은 아니란말이야.”

반씨의 말에 단안인은 반대 의견을 말했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봐요. 여러말 가운데 二十三日에 비가 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비올 시기인지도 모르잖아요. 본의아닌 말이 우연히 천기와 부합한 것인지 누가 아나요.

오늘이 十九일이니 나흘만 기다리면 二十三日이군요. 그날 비가 오는지 안오는지 보면 그의 예언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겠어요.”

다들 단안인의 말이 옳다면 기다려 보자고 하고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二十三日 과연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물을 들어 붓는듯한 큰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일로 해서 부락사람들은 왕중양선생을 신선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아랫부락에서 소를 잃고서 찾질못해 애태우던 사람이 중양선생을 찾아왔다.

“소는 윗부락 큰 나무 참새집 속에 있다.”

는 기괴한 말에 그 사람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선생님 크나큰 소가 어떻게 참새집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말 마시고 가 보시면 소를 찾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암자에서 나와서 윗마을에 가 보았다. 과연 큰 나무가 있고 나뭇가지 위에 참새집이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가 참새둥지만을 살펴 보았지만 그속에 소가 있을리 만무했다. 그는 무심코 새집이 달려있는 나무가지를 꺾었다. 마른 나뭇가지가 그의 뺨을 스쳐서 아래로 떨어지므로 머리를 숙였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아랫부락 어느집 헛간에 매어져 있는 소가 필시 자기 소 같았다. 소는 헛간안에 누어있는데 주위에 꼴이 높이 쌓여 있어서 높은데서 내려다 보지 않으면 보이지 못하게 돼 있었다.

그는 서둘러 나무 위에서 내려왔다, 소가 새 둥지 안에 있다는 말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 부락에 상습적으로 소를 훔치는 도둑이 있었는데 그날밤 훔친 소를 멀리 끌고가 팔려던 참이었다. 만일 선생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소를 도저히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헛간에 들어가 소를 찾아 끌고왔다.

또 어느날 서쪽부락에서 딱한 일을 물으러 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중 십삼세 가량 된 소녀가 자기의 오빠가 집을 나간지 두어달이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언제쯤 돌아오겠냐고 물어왔다.

“어서 네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어머니 손아귀에 물어보아라.”

이 말에 소녀는 한참을 웃어댔다. 곧장 집으로 돌아와보니 엄마의 손에 편지가 들려 있었다.

“네 오빠가 내주에서 장사를 하고 있단다. 금방 편지배달부가 전해주고 왔단다. 여기 이 편지를 읽어보렴.”

급히 편지를 받아든 소녀는 재빨리 읽어 내려갔다.

“불효자 아무는 자비하신 어머니전 상서하나이다. 아버지 별세 하신 뒤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사람이 되어 이제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고자 먼 타향에 와서 무역을 시작한 것이 매우 잘 돼가고 있으나 수금이 빨리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 어머니 마음을 위안해 드리지 못하옵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오면 九월 망간으로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소녀는 다 읽기도 전에 손뼉을 치며,

“영험이 놀라워요. 영험이 놀라워요.”라고 외쳐댔다.

서쪽부락 소녀가 흥을 돋구어 왕중양선생의 이야기를 자기 엄마에게 하고 있는 도중에 문밖에서 五~六명이 줄지어 들어와 길을 물어왔다.

“마가장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다같이 마가장을 찾아 가시는 길인가요? 그럼 활불신선을 만나보라 가시는 것인가요?”

하며 소녀는 즐거워 하며 대답했다.

“그래 그래 네 말대로 활불신선을 만나 보려는거야.”

“멀지 않아요. 멀지 않아요. 내가 길을 안내해 드리겠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여러사람이 소녀의 뒤를 따라 마가장에 이르렀다. 마원외가 대청 마루에 앉아 있다가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서서 대청 안으로 맞아들였다.

“여러분께서 무슨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마단양이 물었다.

“우리들은 구도(求道)하러 왔습니다.”

마단양이 그들을 암장에 안내해 선생을 빕게했다.

그들중에 성은 담이고 이름은 처단이며 호는 장진자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난치의 만성병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왕중양선생이 처음 산동으로 올 때 그에게 병 치료법을 전해줬었다. 그뒤에 그이 난치병이 완쾌되어 도를 깨치고 싶은 마음으로 선생의 간곳을 찾았으나 종적이 묘연하던 중 마가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생의 거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를 사모하는 친구, 등헌(登懸) 출생으로 성은 학이고 이름은 태통이며 호는 태고라는 사람을 데리고 찾아온 것이다. 그밖에 몇사람도 여기 성명을 적지 않았으나 역시 도를 배우려는 사람들이었다. 담장진은 선생에게 연전에 난치병을 치료해준 은혜를 사은하고 난 후 오늘은 도를 배우러왔다고 의사를 발표했다.

“대도의 문이 크게 열려서 가는이는 가고 오는이는 오는데 가는이를 다시 찾지 않고 오는이를 막지 않는다.”

왕중양이 이렇게 말하고 난 뒤 마단양에게 그들을 제이호(第二號) 암자에 안내하게 했다. 몇일후 두사람이 또 찾아왔다. 한사람은 성은 유 이름은 처현 호는 장생이요, 또 한사람은 성은 왕 이름은 처일 호는 옥양자인데 모두 산동 사람이었다.

마단양이 그들을 맞아들이고 온 뜻을 물었다. 도를 배우러 온것이라고 했다. 마단양이 그들을 안내하여 암자에 이르러 선생을 뵈게 하니 그들을 제삼호(第三號) 암자에 안내케 했다. 이렇듯 동에서 한사람 서에서 한사람 한달남짓한 사이에 수십명이 도를 배우러 왔다. 중양선생이 마단양에게 그들과 상의하여 일과를 정해 각자 자기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다. 누구도 자기 멋대로 함부로 하지 않고 모든 일이 규칙적으로 잘되어 나갔다. 중양선생이 그들에게 참선공부를 가르쳐 주었다. 이것이 처음 배우는 공부였다. 여러 제자가 두반으로 나뉘어져 설법을 들었다.

“사람의 몸은 천지의 호흡이 근본이 되고 마음이 뿌리가 되며 성이 테두리가 된다. 천지의 거리가 八만四천리가 되며 사람의 심장과 신장의 거리가 八치四分이 된다. 심장은 배꼽밑 三치三分에 있고 맥이 뚫려 있어서 드나드는 숨이 통한다. 숨은 百맥에 통해서 한 번 들이마시면 백맥이 다 열리고 다 닫힌다. 천지의 조화가 쉬지않고 순환하는 것도 역시 호흡작용에 불과한 것이다. 사람은 숨이 심장과 신장사이에 오르내리면 혈기가 순조롭고 원기가 강하며 칠정(七情)이 마르지 않아 백병이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 낫는다. 참선하는 법은 매일 네차례 낮十二시, 밤十二시, 오전 六시 호후 六시에 고요한 실냉서 자리를 두텁게 깔 뒤에 두다리를 어긋안게 끼어앉아 눈을 조금만 떠서 배꼽으로 보고 숨으로도 귀를 막고 마음에 잡념을 끊은취 의식이 숨을 따라 오르내리게 한다. 오르내리는 간격이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자연에 맡겨서 향 一주가 다 타들어갈 무렵이 되면 입숨 코숨이 거칠지 않게 되어 점차로 부드러워진다. 또 향 일주가 다 타들어갈 무렵이 되면 입숨 코숨이 있는 듯 없는 듯 매우 가늘어진다. 그런 뒤에 천천히 다리를 펴고 눈을 뜨며 귀에 숨을 꺼낸 뒤 조금 걸어다니다 잠시 누웠다 일어나 죽 반그릇가량 먹는다. 노동을 하지 않고 절대로 근신하거나

화내서는 안된다. 그것은 매일 보내어 나가는 공부에 해롭고 원기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왕중양선생이 참선에 대한 설법을 마치고 휴식에 들어갔다.

참선공부는 오래 앉았있다고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숨을 단련하고 마(魔)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마음에 장애를 모조리 제거하고 세속 일로 마음에 그물을 치지말아야 하는 것이다. 번뇌가 있는한 장애가 고쳐지지 않고 세속 일에 끌리는한 그물이 풀리지 않는 것이다. 자세히 알려준 이치를 실천하지 않고 지체하면 결국 타락의 구렁텅이도 들어가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산동 등주부 서하현에 성은 구 이름은 처기 자는 계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삼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은 계명, 둘째형는 계홍이었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셔서 계발은 형수의 덕택으로 자라났다. 좋은 형님 좋은 형수였다. 그는 여러해 글을 배워서 시, 노래, 수필, 소설, 논문 등을 잘했다. 그는 공명사업에는 마음이 없고 한갓 평온 정적을 좋아해서 늘 종일토록 혼자 앉아 남과 이야기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가운데 무엇인가 뜻하는 일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도 그의 그렇게하는 이유를 아는이가 없었다. 범상한 새는 대봉새의 심증을 모르는 것이다.

“글을 배우는 것은 입신출세가 목적이니 만큼 아제도 글을 써 먹어야해요.”

형수가 이렇게 권하면

“글을 배우는 것은 이치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니 입신출세가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대답하였다. 포부가 큰 사람의 말이었다. 또 결혼문제를 꺼내면 그는 굳이 사양하여 듣지 않았다.

“자기 몸도 자립못하는 놈이 여자로 몸을 묶으면 되겠습니까?”

그의 의사가 이렇게 강경한 것을 보고 형수도 끝내 권고하지 않고 그의 자유의사에 맡겼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높이 뛰어나는 길을 찾지 못하고 종일토록 명예를 다투고 이익을 빼앗고 아내를 탐내며 자식을 반기다 하루 아침에 죽어지면 만사가 다 비어지는 것을 남들은 당연할 일로 생각하지만 나는 이것을 뜯구름같이, 아침이슬같이, 꿈같이, 물거품같이 쓸데없는 착각환상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일이 나의 일생을 바치고 싶지 않다.”

고 그는 늘 어떻게 이야기 했다.

하루는 영해현 마가장에 왕중양선생이라는 도덕이 높은 수행인이 있어서 이 서하현에서도 그이를 찾아가서 도를 배우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평생에 신선이 되기를 바라는 그는 자기도 배우러 가리라 마음먹었다. 형수에게 알리면 못가게 할 것이므로 자기대로 여비를 마련하여 임시 입을 옷 몇가지를 챙겨가지고 초라하게 집을 떠나 영해현으로 달렸다. 한달이 못되어 마가장에 이르렀다.

그날은 마단양이 당번이었다. 마단양이 그에게 온 뜻을 묻고 일기에 설명을 기록했다. 담씨, 유씨, 왕씨, 학씨등이 와서 그에게 말을 걸어오고 하며 모두 기뻐하였다.

“이렇게 귀여운 청춘소년으로서 능히 도를 배우겠다는 마음이 발한 것은 세상에 드문 일일거야”

이렇게 칭찬하며 그를 안내하여 암자로 가서 선생을 뵈게 했다. 마단양이 그가 도를 배우러 온 뜻을 선생에게 알렸다. 왕중양 선생이 그를 한 번 바라보더니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이 사람은 마음에 생각이 많고 너무 영리해서 도를 배우지 못하겠다. 어서 다들 물러가거라, 남의 일로 해서 자기 일을 그릇치지 말아라.”

왕중양 선생이 그를 거절하는 것이었다. 소자(小子) 일심으로 도를 배워 절대로 두 마음을 먹지 않겠어오니 바라옵건데 선생님께서 저를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구계발이 엎드려 비는 것이었다. 마단양도 그를 위해 호소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역시 들어주지 않는 것이었다.

“아니다 나는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사람은 천신만고가 너무도 크게 뿌리박혀 있으므로 앞으로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후퇴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니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

구계발이 다시 애원하려고 하니 왕중양선생은 훌쩍 일어서서 암자를 떠나 화원으로 가버렸다. 마단양이 기다리다 못해 구계발을 데리고 대청으로 갔다. 마단양이 그에게 매일매일 대청마루 소제를 맡아하게 하고 참선하는 법도 전해주었다.

“노선생이 나를 받들이지 않는 이상 저는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겠어요.”

하루는 구계발이 마단양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안돼 안돼 선생이 제자를 구할 때는 큰 인재를 구해야 하고 제자가 선생을 택할 때는 고명한 스승을 택해야 한다. 나는 아직 처음 입학한 어린애로서 대도를 듣지 못했다. 그대는 안심해서 배우고 있으라. 우리가 다같이 장차 필요한 인재가 될 것이다.”

구계발이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모든 일을 정성껏 수행했고 심부름이 있어서 부르면 곧 대답하였다. 얼마안되어 여러사람과 모두 친숙해졌다.

하루는 여러사형을 따라서 암자에 가서 선생을 뵈었다. 선생이 중앙에 앉고 여러제자가 양쪽으로 벌려서서 설법을 들었다.

“내가 여기 온 후로 심혈을 다하여 세상을 건지고 입술이 닳도록 남에게 법을 설한 것은 사람마다 다 각성의 길을 찾아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멀리 하고 있다. 그들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도를 좋아했고 어려서는 굶뜨고 자라서는 괴상스럽고 중년부터 신통해졌다고 한다. 다시말해 그들은 나를 보통사람과 다르다고 본다. 내가 남과 다른 점이란 굶뜨고 서툰고 어리석은 것 뿐이다. 내가 재물을 탐내지 않고 남의 잘 하는 것을 시기하지 않고 공상이 없고 거짓이 없으므로 굶뜨다는 것이요, 내가 괴상한 법을 내세우지도 않고 세속에 따라가지도 않으므로 서툰다는 것이요, 법사에 술책이 없고 시비를 밝히지 않으므로 어리석다는 것이다. 세상사람들이 나를 굶뜨다고 평하고 서툰다고 책하고 어리석다고 비웃지만 나는 도리어 그들이 너무도 굶뜨고 서툰고 어리석어서 도저히 나아질 희망이 없는 것을 통탄하는 바이다. 너희들은 자신 스스로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는 도를 깨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수도는 곧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마음이 발하기 전에도 수련해야되지만 발한 후에도 더욱 수련이 필요하다. 일정하지 않은 마음은 놓은 마음 곧 모든 잡념이 다 발한 후의 마음이다.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게 하려면 마음을 지키고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마음이 동하기 전에 지키고 동하려는 순간에 마음을 거둬야한다. 마음거두는 일은 쉽지 않지만 거둬들여야 한다. 속히 거둘수록 보다 견고하게 지켜지고, 견고하게 지킬수록 오래도록 일정한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도문에서 마음을 수련하는 법이다. 어쨌든 이 마음이 텅비어서 아무것도 없게해야한다. 마음이란 선천일기(先天一氣)의 순양체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불에 속한다. 순양체라고 해서 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양 가운데 순음이 있다. 그러므로 마음을 한자(漢字)로 쓰면 세개의 점이 아래로 향해있고 반월형이 위로 떠받고 있다(心). 세은 양의 숫자요 반월형은 음이다. 양은 음이 있어야 자라나고 음은 양이 있어야 낳는다. 순음이 순양을 따르는 것이 마음이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망념이 생기면 마음의 순양이 멀어지고 조금이라도 인심(人心)이 있으면 요마의 장애가 가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한번 발하면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생각이라고 한다. 생각은 한자(漢字)로 쓰면 (思) 사람이 두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된다.”

사람이 두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곧 사사망념이라는 것이어서 아무일도 이를 수 없고 도와의 관계가 더욱 멀어지는 것이다. 마음은 이 몸의 주인공으로써 오직 하나 뿐 둘이 아니다. 만일 둘이라면 이것은 망념이다. 망념이 한 번 일어나면 곧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일을 저질러서 마음이 있어도 주재하지 못하고 이 몸이 타락에 빠져 건지기 어렵게 된다.

왕중양 선생이 한창 설법하는 가운데 구계발이 여러사람 틈에서 듣다가 흥이 절로나서 자꾸 “좋다 좋다”라는 감탄을 연발하였다. 선생이 흘깃 바라보고는 설법을 하지 않았다.

여러 제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괜히 그가 옛들은 까닭에 좋은 설법을 끝까지 못들었다고 화를 냈다. 구계발은 그들의 불평을 못들은 체 하고 가만히 선생의 설법을 되새겨 보았다. 마음을 수련하라는 말은 곧 도를 수련하는 비결이었다. 수도인이 먼저 마음을 닦아 비우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도가 있어도 그것을 보람있게 닦지 못하는 것이다. 그후 그는 매일매일 자기의 마음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착오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 보았다.

하루는 여러 사형(師兄)이 대청앞에 보이지 않아서 필시 설법을 들으러 간 것이라 추측하고 암자로 가 보았다.

과연 선생이 설법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여러제자들은 양쪽에 벌려서서 듣고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밖에서 귀 기울여 들었다.

“수행은 생각을 세말하게 살피고 또 살피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으면 곧 심중에 찌꺼기가 있는 것이요,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으면 곧 심중에 요마의 장애가 있는 것이다. 사심 또는 욕심이 일어나면 곧 선천이 없어지므로 사심과 욕심을 제거해야만이 선천이 존재한다. 선천은 천지의 완전무결한 기력이다. 사심과 욕심이 일어나면 화가 동하고 화가 동하면 기력이 분산되고 기력이 분산되면 선천이 없어져서 옳고 그름을 살피지 못한다. 사심이 깊으면 기력이 무너져서 오묘한 작용을 되살리지 못하고, 욕심이 심하면 기력이 쇠하여 오묘한 이치를 납득하지 못한다. 사심과 욕심과 망념이 있는 이는 내말을 듣고 사심을 제거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욕심을 제거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망념을 제거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살펴보고 주의하라,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여

흔들리지 않아야만이 망념이 사라지고 망념이 사라지면 사심이 없어지고 사심이 없어지면 욕심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 순양체가 되어 음기가 소멸되는 것이다. 신선 부처가 모두 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모두 생각을 조심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니, 내말을 절대로 형식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왕중양선생이 설법이 정밀하고 세밀한 요점에 도달한 순간 구계발이 듣다 무의식중에 “좋다!”하고 감탄하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 정신이 온통 설법에 쏠린 순간이었다.

“방안에서 설법을 듣는 사람보다 밖에서 더잘듣는 이가 있는가 보다. 나가보아라 누가 밖에서 설법을 듣고 있는가.”

왕중양선생이 여러 제자에게 말했다. 마단양이 나가보니 구계발이었다. 마단양은 구계발을 데리고 들어왔다.

“앞서 네게 그를 자기집으로 돌려보내게 했는데 어찌하여 지금껏 머물러 있는가?”

선생이 화를 내면서 마단양을 책했다.

“구계발은 이미 스승을 사모하여 구도하러 온 것이오니 바라옵건데 스승께서 널리 자비하시어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시면 차차로 명령에 복종할까 하옵니다.

유장생 학태고 왕옥양 담장진등이 일체히 앞으로 나와서 자비를 비는 것이었다.

왕중양선생은 “내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진실하고 견고하지 않으므로 고통이 닥쳐오면 후회심이 생겨서 도를 닦지 못하고 도리어 죄가 될까 싶어서 애당초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구계발이 옆드려서 일어나지 않았고 유장생등이 다시 애원하였다.

“너희들이 자꾸 권고해서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모두 보살필 것으로 해서 그를 받아들이고 장춘이라는 호를 정해준다.”

구계발이 곧 일어나서 선생께 9 고수를 올리고 여러 사형에게 일고수를 올렸다. 선생은 휴식에 들어가고 각자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한달 남짓해서 선생이 다시 마단양에게 제자들을 모아서 설법을 하는데 이번에는 꼭 암자 밖에다 연단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마단양은 선생의

지시대로 했다. 여러제자들이 다 모였다. 의관은 무두 깨끗하고 외모가 당당했다. 그들은 일제히 암자 앞에 와서 선생이 나오시기를 기다렸다.

선생은 연단에 올랐으나 한참동안 자세를 바르게 하고 얼굴을 고쳐서 아무말도 없었다.

“나의 교리는 정적을 주로한다. 정적은 위로는 천지의 화육을 돕고 아래로는 삼라만상을 감싸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리키는 정적은 수행해서 도를 깨치는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다란하게 하고 국가를 흥하게 하는데도 또한 없어서는 안된다. 정적의 묘리는 무공하다. 너희들은 무턱대고 정적을 지키면 세상일이 어떻게 성립되느냐고 반문하지 말라, 항상 정적을 지켜도 정적은 부족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정적을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은 정적의 근원을 찾지 못한 탓이다. 먼저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빈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적의 출발은 정적이 없는데서부터 혼란을 베어버리는 것이요 정적의 종말은 항구한 정적이 있기까지 혼란을 막아내는 것이다. 망념이 일어나면 소멸하고 소멸한 뒤 다시 일어나려는 것은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정적의 그치는 정적이 아닌 정적이다. 정적도 아니요 정적이 아닌것도 아니어서 최선의 지점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다. 미인이 앞에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거짓으로 동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아무런 흔들림도 없는 것이다. 말을 할 때나 행동할때나 남과 생대할 때 정적의 효력은 자연히 나타나는 것이다. 부모를 대할때는 완고한 사람도 애정이 깊어지고, 형제를 대할때는 억센 사람도 화목해지고, 처자를 대할때는 악독한이도 순해진다. 정적으로 나라에 충성하면 진실한 충성이 되고, 정적으로 국민을 사랑하면 진실한 사랑이 되고 정적으로 도를 배우면 도가 발전되고 정적으로 뜻을 세우면 뜻이 이루어 진다.”

왕중양선생의 설법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침착한 것은 삼교의 심법으로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삼교의 요점이었다. 농민, 실업자, 군인, 공무원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공부이다. 정적이 있어야 안심(安心)이 있고 마음이 있어야 뜻이 깊고 뜻이 깊어야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정적이 있으면 부모와 자식, 왕과 신하, 형제, 친구, 부부사이가 화목해지고 신의가 두터워진다.

왕중양선생이 여러제자에게 정적을 설명한 것은 구장춘, 유장생, 왕옥양, 담장진, 마단양, 학태고등 진심으로 수도하는 6 명의 제자외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선생은 그들의 역량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 모두 부지런히 정진하나 나중엔 게으르고 결말이 없어 진실한 수행인이 못 될 것이었다. 이러한 점을 염려하여 정적을 알려주어 자신의 이로움만 탐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성인의 경지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수신제가하여 좋은 사람이 되라는 근기를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구장춘이 왕중양선생의 설법을 듣고 기쁜 마음을 금치 못하여 어깨춤을 절로 추는 것이었다.

“너는 항상 설법을 들어도 공부는 늘지 않고, 이치를 알아도 마음의 지혜가 열리지 않고 있다. 자신의 총명함과 영리함을 드러내 과시하면서 참을성을 가지고 신중하게 숨기지 못하고 수선스런 행동을 하니 수도할 자격이 없다. 누차에 걸쳐 설법할 때마다 불규를 무시하는 것을 지켜 보았다. 나는 너의 수선스런 행동에 싫증이 나서 당분간 여기를 떠나 먼 지방으로 가야겠다.”

선생은 구장춘의 들뜬 모습을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 했다. 왕중양선생의 의도는 구장춘의 행동을 구실로 여러 제자들을 해산 시키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일 도덕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광동지방으로 떠나겠다. 유장생, 담장진, 학태고, 왕옥양 이 네사람만이 나를 따르고 너는 여기를 지키고 있어라. 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고 머물러 있어도 좋으니 마음대로 해라. 나의 이번 여행은 오래면 일년 빠르면 반년만에 돌아올 예정이다.”

왕중양선생이 마단양에게 지시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여러 제자들은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일어났다. 부모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정든 처자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다. 밤이 깊도록 행장을 꾸리고 동트기만 기다리다 마단양과 작별인사를 나누고 선생을 못 뵈고 가는 사연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마단양이 그들을 배웅해서 부락 밖에까지 나갔다.

그들을 배웅하고 암자로 돌아오자 왕중양선생이 마단양에게 의복 5 벌, 이불 모자 삿갓 신발 밥주발 지팡이 등을 준비하라고 했다.

왕중양선생 및 유 학 왕 당등도 모두 도가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날이 아직 밝기도 전에 초라하게 마가장부락을 떠났다.

마단양이 그들을 부락 밖으로 배웅하고 돌아오자 구장춘이 마단양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어디로 가실거요?”

“스승을 따라가겠어요.”

“스승이 그대를 안보실려고 떠나시는데 그대가 따라간다면 얼마나 화내실까요.”

“스승이 어찌 진정으로 나를 마다하시겠어요, 나의 공수가 더욱 향상 진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만일 안가면 스승께서 날 사랑하시는 마음이 보람없게 되어요.”

마단양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구장춘은 말을 끝맺고는 곧 떠나가는 것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지혜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고향이 그리워 모두 집으로 돌아갔으나 구장춘만은 스승이 그리워 오지말라는데도 따라갔다. 선생이 그의 범심(凡心:평상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고 여러번 질책을 가했다. 그러나 그는 꾸준히 스승을 따르는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 엉클어진 실을 푸는 것 같이 악을 차츰차츰 고쳐 나가면 자연 완전히 풀릴때가 있으리라고 그는 안심하고 수도하는 것이었다. 만일 아차하여 실수하면 자기의 목적을 이룰 시기가 두 번다시 영구히 오지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선생님 및 여러 사형(師兄)이 모두 도가 의복으로 갈아 입고 가시는데 그대가 그와 같이 속계의 차람으로 따라가면 어찌나요. 나에게 도승복 한벌과 모자가 있으니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쓰고 가세요.”

마단양이 구장춘을 불러서 권고하는 것이었다.

구장춘은 매우 기뻐했다. 옷을 갈아 입고 모자를 쓰고 이불 밥주발 지팡이 등을 가지고 선생을 따라갔다. 담, 학등이 신생을 따라가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갔다.

어느 부락에서 남들이 아침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 일행이 모두 아침 일찌기 떠나서 아침 식사를 못하고 있으니 내가 밥을 빌어 스승을 공양해야겠는데 지금껏 밥을 빌어보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구장춘이 한참 생각하다가 손에 밥주발을 들고 얼굴을 내밀어 남의 집 문안으로 쑥 들어섰다.

누런 삼살개가 쾅쾅짚었다. 사람이 나와서 흘끗 바라보고 다시 들어가더니 서속밥 한그릇을 소복하게 갖고 나와서 그의 표주박에 넣어주니....

그는 시주를 받는 것이 처음이어서 하늘에 오를 듯이 기뻐다. 두집을 다녔는데 밥이 가득했다. 이 정도 하면 됐겠구나 싶어 일행의 뒤를 곧장 쫓아갔다.

스승이 한참 길을 가다 어느 큰 나무 밑에서 걸음을 멈추며 물었다.

“여비를 가지고 왔느냐?”

“선생님께서 급히 떠나오셔서 저희들이 한 때 총망하여 마사형(馬師兄)에게 미처 여비를 타지 못했사옵니다.”

유장생이 대답했다.

“여비를 안가졌으면 각자 시주를 해서 오도록 하라,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

네명의 제자가 각기 표주박을 들고 시주를 걷으려갔다.

왕중양선생이 홀로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구장춘이 표주박에 밥을 들고와서 스승을 공양하려고 했다.

“누가 널더러 내 걱정을 하라고 하더냐! 나는 너의 공양을 받지 않겠다.”

스승이 화를 내어 말했다. 구장춘이 간절히 간청했으나 스승이 절재 듣지 않았다. 조금뒤에 유, 학, 등이 각기 조금씩 밥을 얻어서 돌아왔다. 스스에게 드시기를 권하니 유장생이 얻어 온 밥으로 간단히 식사를 했다.

식사를 모두 마치고 일어나서 십리 남짓한 길을 걸었다. 날이 저물었다. 길가에 쓸쓸한 성황당이 있었다. 당안에 들어가서 깨끗이 소재 하고는 하룻밥을 지냈다. 이튿날 이들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났다.

얼마쯤 갔을까. 구장춘이 맨끝에 서서 따라가다가 어느 착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에게 밥을 먹고 가라고 권하는 것이었다.

“우리 스승이 저앞에 계셔요. 그 어른이 아직 안드셨는데 어찌 저만 먹겠습니까?”

“괜찮아요. 당신이 이밥을 꼭 드십시오. 그러면 제가 깨끗한 밥을 당신의 표주박에 담아드리겠으니 갖고 가셔서 선생님을 공양하십시오. 신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분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구장춘이 방에 들어가서 밥을 잔뜩먹고는 주인에게 감사를 드리고 나오려고 하니 과연 표주박에 밥을 가득 담아 건네주었다. 두손으로 들고 선생을 따라 부지런히 걸어갔다. 다행히도 선생과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다.

“선생님 잠시 계시옵소서 제자 진지를 드리겠습니다.”

구장춘이 뒤를 쫓아가며 이렇게 외치는데도 왕중양선생은 못들은 체하고 여전히 자꾸 걸어만 갔다. 구장춘이 빠른 걸음으로 스승을 따라가서 음식을 드렸다.

“이것은 한 사람의 집에서 준 음식이다. 내가 먹을만한 공이 없다. 한 바가지의 밥은 천사람의 집에서 모은 밥이라야 하고 외로운이 한몸은 만리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을 못들었느냐?”

스승이 밥을 바라보고 이렇듯 말하는 것이다. 구장춘이 스승의 말을 듣고 묵묵히 말이 없었다. 그 사이에 스승이 벌써 멀리 가고 있었다.

밥을 그 집에 다시 갔다 주고 오려니 오는 동안에 일행들을 놓칠 것 같고 자기가 먹으려니 배가 부르고 하는수 없이 바가지를 들고 뒤따라 갔다. 두 손이 저리고 온 몸에 땀이 흘렀다.

여러 사형(師兄)이 선생을 모시고 저 건너 암석 위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다행히 그들이 얻어 온 음식이 매우 적었다. 그는 자기 바가지에 있는 밥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이 다같이 먹고 나니 그제야 밥이 남지 않았다. 그날밤도 성황당에서 잠을 잤다.

“스승께서는 험서 출생이라 밥보다 만두를 좋아한다. 내일은 내가 만두를 얻어다 스승께 공양하리라.”

그날 밤 구장춘이 이렇게 작정하고 이튿날은 과연 맛있는 만두를 조금 얻어다 스승을 공양하려고 했다.

“나는 전부터 네가 주는 것은 안 먹는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일부러 ○애써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왕중양선생이 화를 내며 바가지를 빼앗아 땅바닥으로 내던졌다. 바가지는 조금 깨지고 만두는 땅에 흩어졌다. 구장춘이 바빠 바가지를 집어 들고 만두를 주워 담았다. 스승이 그의 인내성과 너그러움을 시험해 본 것이었다.

선생이 누차에 걸쳐서 그에게 욕을 한 것은 그가 유, 학, 왕, 담등과는 달리 어려서부터 글을 배운 것을 감안하여 그의 성질을 완전히 뜯어 고치자는 것이었다. 만일 닦아서 고상하게 만들지 않으면 큰 그릇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의 지성을 연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구장춘이 근기가 깊고 두터워서 누차 질책을 받아도 조금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

왕중양선생이 사자(師弟) 일행은 매일매일 길을 걷고 또 걸어서 두달 남짓 되었다. 벌써 추운 계절이 닥쳐왔다.

날이 어두워지자 성황당을 찾아 여장을 풀었다. 구장춘이 인가에게서 땀나무를 조금 거뒀는데 그날 밤 눈이 내려서 매우 추웠다. 그들은 나무를 조그 가져다가 불을 피워 쪼이고 있었다.

왕중양선생이 이를 보고 달려와 나무를 있는대로 모조리 불에 집어 넣었다. 십시에 불이 달아 올라 화기가 등등하고 불티가 멀리 튀었다.

그러자 스승은 지팡이로 나무를 눌러서 한창 붙은 불을 꺼버리는 것이었다. 불꽃이 사라지고 시커먼 연기가 막솟아올랐다. 비좁은 성황당안이 연기로 짝 찻는데다 바람마저 안으로만 들어왔다.

유, 구등 모두 연기를 견디다 못해 문밖으로 나가 연기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모두들 눈을 비벼대고 눈시울일 닦았다.

“굉장한 연기군”

사제들이 모두 나간뒤에 선생이 문을 닫고는 이불을 옮겨와 문에 등을 대고 앉았다.

그들은 밖으로 나와 조금 서 있으니 매운기가 가시면서 추운 기가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 가려고 문을 밀었다. 문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스승에게 열어 달라고 할 체면도 없고하여 그들은 모두 문밖에 주저앉았다. 별안간 눈보라가 몰아쳤다. 그들은 전신이 으스스 떨렸다.

“선생이 우리에게 불을 사르는 공부를 전수하셨으니 우리가 모두 그 공부로 취위를 물리칩시다.”

유장생이 제의하였다.

구장춘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이 추위를 이겨내는 공부를 시작했다. 숨을 한군데로 모아서 물과 불을 운반하는 공부를 하였다. 얼마 있지 않아 몸이 춥지 않을뿐 아니라 도리어 몸에서 땀이 났다.

날이 밝았다.

그때서야 문이 열렸고 그들은 모두 안으로 들어갔다. 선생이 이불을 깔고 앉아 있는데 노기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같았다.



“너희들은 뜨거운 것을 무서워하고 냉한 것을 두려워하며 생은 기뻐하고 죽음을 싫어하며 진은 버리고 가를 찾고 가화(假火)를 쫓으려 하고 진화(眞火)를 운반하지 않고 안일만을 피하며 공부를 게을리 하고 있다. 이래서 성도가 될 것 같으냐? 굳은 수도지향이 없으면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다.”

선생은 말을 마치고 왕옥양에게 회초리를 가져 오게 해서 스무대씩 맞아 앞날을 조심하라고 했다. 유장생, 학태고등이 이 말을 듣고 아무런 대답도 못했다.

“이것은 제자 한사람의 과실이옵고 여러 사형은 아무 관계도 없사옵니다. 제자가 중책을 받겠어오니 사존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장춘이 스승 앞에 꿇었다.

“네가 그들 대신 매를 맞겠다는 말이지?” 스승이 물으니 구장춘이 “예”하고 대답했다.

“네가 그들 대신 중책을 받겠다면 매를 스무대씩 도합 백대를 맞겠다는 말이지?”

“예”

구장춘이 쾌히 대답했다. 그러자 유장생, 학태고등이 모두 와서 용서를 빌었다.

“너희가 서로서로 용서를 비니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심해서 각자 앞길을 그릇치지 말아라.”

선생이 말을 마치고 회초리를 땅에 내려놨다.

“내가 한때이 성급한 마음으로 남쪽으로 여행을 왔으나 이제는 흥미가 없다. 이제 북쪽으로 돌아가겠으니 곧 떠날 준비를 하여라, 이의는 없다.”

스승이 유장생에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구장춘, 유장생등은 급히 짐을 꾸리고 당을 지키는 노인에게 인사하고 스승을 따라갔다. 길을 가로질러 산동을 향하여 영해현을 통해 마단양집에 이르렀다.

구장춘은 먼저 가서 마단양에게 알렸다. 마단양은 급히 나와 스승을 영접하여 암자로 모셨다.

한달이 채 되기도 전에 선생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다시 하나씩 모여들어 봄비기 시작하였다.

거짓과 가식으로는 진정 도를 깨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선생은 그들을 해산시키려는 묘안을 세웠다. 선생은 이미 상을 버리고 공심(空心)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뚜렷하게 밝은 본성이야말로 선생의 법신이였다.

## (歸空)

왕중양선생의 문하에 도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장꾼들처럼 많이 붐볐다. 그러나 진심으로 도를 배우려는 사람은 거의 없고 모두가 허명을 사서 남들이 자기를 수행하고 도를 깨친 사람으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는 만일 그들을 해산시키지 않고서는 가로서 진을 어렵게 만들고 도가 온전치 못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한가지 묘안을 세우고 머리를 끄덕끄덕하였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그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 제자가 놀라서 모두 모여 들어 연유를 살폈다.

“내가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노상에서 더위를 먹었는가 보다. 속에 물결증이 생기고 온몸에 종기가 솟아났다.”

선생이 옷을 풀고 여러 제자에게 보였다. 과연 젖가슴 위에 종기가 나고 온 몸에 부스럼이 퍼져 있었다. 마단양, 구장춘, 유장생등은 바빠 명의를 초빙하고 의약을 구하여 와묘약을 모두 써 봤다. 그러나 도무지 효과가 없었다.

이틀사이에 종기가 굵아 터져 걸쭉한 물이 흘러 냄새가 매우 고약 했다.

“왕중양선생이 도덕이 없는 분인가봐. 먼저 자기를 제도하고 남을 제도하며 병이 없어야 성인이 되지 성인이란 색신(色身)으로 되는게 아닌가 봐, 우리도 허송세월을 그만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서 수신제가나 하는 것이 좋겠다.”

도를 배우고 수행하러온 사람들이 구석구석모여 앉아서 수군거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말하고 가는 사람, 모르게 가는 사람등 불과 양일 사이에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들이 그렇게하기를 왕중양선생이 바라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소인이란 환난(患難)을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구 유 담 마 학 왕등 6명만 남아서 밤낮으로 시중을 들었다.

“내가 내일 낮 열두시 정각에 죽는다. 내가 여기 온 후 마옥의 돈으로 빈곤한 이를 구제하고 또 남의 매장가취를 도와주고 또한 여종 야배 및 가복들의 혼식 의복 가구등에도 비용을 쓰고 또 2~3 년동안 도인들의 양성에 있는 돈을 모조리 써서 지금은 곳간이 비었다. 내가 죽은 뒤에 상사에 토지를 팔지말고 나의 유언대로 절대 돈을 쓰지 말아라. 내가 죽은 뒤에 곡소리를 금지시키고 제례를 폐지하고 조문을 사절하고 엷은 판자 한 개에 나의 냄새나는 몸뚱이를 엷어매고 구 유 왕 담 학 五인이 교대로 협서성 자현 종남산 밑에까지 메고가다 노끈이 끊어지는 그 자리에 내 몸을 묻으라, 만일 내말을 어기면 꼭 불행이 일어나리라.”

여러 사람이 다 떠난 뒤에 선생이 여섯 제자를 가까이 오라고 해서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었다.

구 유등이 이말을 듣고 흑흑하고 흐느끼며 울려고 했다.

“울긴 왜, 아이들 같이.”

구 유등이 울음을 참을수록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다음날 낮 열두시 전 선생이 의관을 정제하고 자리 위에 단정히 앉아서 구 유 담 마 학 왕등 6명의 제자를 가까이 오라고 했다.

“몸과 마음 이 두가지를 다 같이 연마하려면 내공 외공을 겸해야 한다. 내공이 모자라면 모든 적선사업이 불완전하게 되고 외공이 모자라면 마음의 근원이 깨끗하지 못하는 것이다. 외공이란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한마디 말이라도 함부로 내지 않고 꼭 주의해서 하면 이것이 보람있는 말이요. 한가지 행동이라도 함부로 짓지않고 꼭 조심해서 하면 이것이 보람있는 행동이다. 한가지 일도 선불리 않고 한가지 생각도 꼭 정밀하게 살피면 모두가 공을 쌓는 일이요. 덕을 널리 퍼는 일이다. 내공이란 정신이 맑아서 혼매가 오지 않아야 한다. 성문을 지켜서 적이 침범 못하게 하는 것같이 의식의 문을 지키고, 적을 맞아들여서 몸을 엄하게 방위하는 것 처럼 마음을 방위해서 위기일발인 무렵에 가끔 천과 인이 교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공이란 형태가 없어야 하므로 상을 배제하는 것이요. 거짓이 없어야 하므로 요행을 바랄 수 없는 것이요. 게으름이 없어야 하므로 안일을 꾀 할 수 없는 것이다.

색과 상은 하늘의 그림과 같이 마음의 장애물이니 하나의 색상을 쓸어 없애면 하나의 양기가 발하고 색상을 모조리 쓸어 없애 조그마한 찌꺼기도 없애야 이것이 순양체(純陽體)인 것이다.

여러 수도인 가운데 신심은 견고하나 속성으로 하려는 폐단이 생겨서 공부를 철저히 않고 결국 범부 중생이 되고 마는 이가 있다. 이는 마(魔)에게 붙들린 사람들이다. 또는 도를 깨치려고 익히는 사람들 가운데 무여의 열반락을 얻으려 하지만 안일을 취하는 폐단이 생겨서 매일매일 잠만자고 피고 항상 기분이 나쁘고 정신이 전진하지 않는 상태에 빠져서 고행을 이기기 어렵고 공부를 포기하는 이가 있다. 한가지 사소한 기술을 배우는 데도 무한이 애써 배워야 그 기술을 습득하고, 여러모로 노력을 해야만 그 일이 여의게 되듯이 고수고련을 다하지 않고 신선을 배우려는 것은 역시 마에게 붙들린 망령인 것이다.

왕중양선생이 말을 마치고 「도광집」이라는 책 한권을 꺼내어 마단양에게 주었다. 이 책은 선생께서 손수 저작한 것인데 그 안에는 위기를 탈출하여 종적을 감추는 도술 및 난세를 피하여 경치가 좋은 곳에 은닉하는 묘법이 전해져 있었다.

“너희 여섯 사람은 꼭 이 책 가운데서 철저한 진리를 터득해야 한다. 알기는 어렵지 않으나 실천하기는 어렵다.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라.

너의 손도우는 수도의 결과가 한창 익어가고 있으니 열려할 것 없다. 구장춘은 아직도 실천이 모자라구나 마단양 너의 협조가 필요하다. 유장생은 색상이 다 비지 않아서 앞으로 한 번 파동이 있을 것이다. 학태고는 동쪽으로 멀리가서 서쪽으로 돌아오는 도중에서 만나는 것이 곧 성도하는 시기이다. 담장진은 고씨(顧氏)를 만나면 통할 것이고, 왕옥양은 요시(姚氏)를 만나면 묘의 경지에 들고, 구장춘은 반계라는 시냇가에서 모든 괴로움을 마치어 용문이라는 동굴에서 큰단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왕중양선생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얼굴에 미소를 띄우시더니 그만 숨을 거두셨다. 낮 열두시 정각이었다. 구, 유등이 선생의 유언대로 곡소리를 내지 않았다. 법에 따라서 입관하여 노끈으로 관을 묶고 막대기와 뿔뿔을 마련해두었다.

이튿날 새벽 구, 왕, 담, 학 네인이 영구를 메고 나갔다. 유장생이 장례기구와 여행용품 등을 지고 따라갔다. 마단양이 멀리 20 리 밖에까지 배웅하고 막 떠날 무렵 주머니에서 금일봉을 꺼내 유장생에게 주었다. 약 四~五十량 정도의 돈이었다.

“집안에 있는 돈을 사존께서 적선사업에 모조리 쓰시고 지금 갑자기 마련못해 사소한 돈이나마 이것으로 여비를 검약해서 쓰시면 충당되리라

됩니다. 스승님을 안장하신 후 속히 돌아오셔서 우리들 사형도우(師兄道友)가 다 같이 한군데서 수행합시다.”

마단양이 부탁하였다. 유장생이 노자돈을 받아들고 마단양과 작별했다.

2~3 리 가니 향과 지촉 등을 가지고 길을 막아서 제전(祭典)을 벌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모두 수행인들 이었다. 유장생이 그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왕중양선생께서 생존시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가짜 수행인들 이었다.

오늘 선유(仙遊)의 길에 오른 왕선생의 진연(眞靈)이 어둡지 않아서 그들이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변연히 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관안아세 악취가 발산하여 사람마다 코를 막고 구토증이 나와서 잠시도 서 있지 못하므로 황망히 절을 올리는 채하고 다들 도망가는 것이었다. 그제야 악취가 없어졌다.

구장춘, 학태고 등이 영구를 메고 서쪽으로 향하여 가는데 십리를 못가서 길을 막고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었다.

“선생님 생전에 안면이 있는 사람이겠지. 오늘 귀공하신 소식을 듣고 유감스런 심정을 푸는 것이겠지, 수상하게 여길 것 없어.”

구, 유 등이 생각했다.

곧 영구를 내려놓고 접대를 받았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간단하게 인사한 다음 다시 영구를 메고 떠났다.

얼마 못가서 길가에 헐어진 성황당이 있는데 까지 당도하니 영구가 별안깜짝 못할 정도로 무거웠졌다. 거기서 선생이 생전에 하룻밤 유숙한 적이 있는 곳이었다. 거기서 영구를 내려놓고 하룻밤을 세웠다.

다음날 동틀 무렵에 출발해서 조반때가 되자 길을 가로 막고 식사를 제공하는 이가 있었고 점심때가 되자 역시 식사를 제공하는 이가 있었다. 밤이 되자 고묘(古廟)에서 쉬었다.

이렇듯 달포를 걸어서 협서의 경내에 접어들었다.

“이게 기괴한 일이 아닌가? 세상에 이런 기괴한 일이 있겠는가? 가까운데서는 선생님과 안면있는 사람들이 섭섭한 마음을 위안하려고 그러는 것이지만 이렇게 멀리 와서도 길에 나와서 공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괴한 일이다. 그 이유를 따지지 않을 수 없구나.”

구장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음식을 차려와서 먹기를 권하는 사람이 있었다. 과연 기괴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 연유를 물었더니...

“오늘 아침 일찍 누런 옷을 입은 노도장 한 분이 시주를 걷으로 우리 부락에 들어왔는데 자기의 제자 다섯 명이 산동에서 선생의 영구를 메고 여기를 지나가게 될 것이니 죄송하나마 그들에게 점심 한끼를 공양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마음씨가 착한 어른이어서 이 말을 듣고 저더러 음식을 가져 가라고 한 것이지요. 라고 밥을 가져온 이유를 설명하였다. 구장춘이 듣고 마음에 새기었다. 그의 호기심이 행동을 개시할 용기는 있으나 의문을 돌아볼 여유는 없었다.

이튿날 아침식사 시간에 구장춘이 자기는 배가 아파서 밥을 먹지 못하겠으므로 앞마음에 죽을 얻으러 가겠는데 그동안 교대해 주지 않겠느냐고 유장생에게 간청하는 것이었다. 유장생은 허락하고 자기 집을 그에게 넘겨주고 영구를 메었다.

구장춘이 행장을 걸머메고 서서히 앞마을로 들어 갔다. 얼마 안가서 과연 누런 도포를 입은 노인이 있었다. 건너 마을로 가는 것이었다. 과연 왕중양선생의 모습이었다. 구장춘이 선생의 발뒤쪽까지 뛰어가서 한손으로 선생의 도포자락을 붙잡고 땅바닥에 꿇었다.

“사촌께서 어디를 가시옵니까? 제자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구장춘이 말하자 획 돌아섰다. 잔뜩 화난 모습이었다.

“너는 악을 저지르는 무리와 같이 천지음양이 차면 기울고 일어나면 쇠하고 어두우면 밝은 이치를 모르고 술법을 마음대로 써서 신선의 비밀을 누설하였으니 이것으로 해서 앞으로 3 년을 더 연마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허물이 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마라.”

선생이 구장춘을 이처럼 책하고 서는 바람과 같이 사라졌다. 선생은 죽은 것이 이니었다.

구장춘이 죄과를 뉘우치고 있는 순간 유장생등이 영구를 메고 오고 있었다. 구장춘이 뛰어 가서 유장생가 교대했다. 그때부터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신선의 비밀을 누설했으므로 현화(現化)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만일 마단양이 여비를 주지 않았으면 기아(饑餓)를 당할뻔 했었다.

다시 보름을 걸어서 그제야 장안에 당도하여 저현을 지나 종남산밑에 이르렀다. 그런데 별안간 노끈이 끊어져서 영구가 땅에 끊어져서 영구가 땅에 떨어졌다.

구장춘이 들레들레 주위를 살펴보았다. 저 건너 마음밖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구장춘이 뛰어가서 인사하고 이쳐 말을 꺼내기도 전에 “당신네가 산동에서 영구를 메고 여기까지 오셨는가요?”라고 노인이 먼저 묻는 것이었다. 기괴한 말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노인께서 누구에게서 들으셨습니까?”

“어젯밤 나의 꿈에 왕효렴을 만났지요. 자기가 이미 죽어서 제자 오인(五人)이 영구를 메고 여기까지 올테니 재장할 땅을 희사하라고 그랬지요.

그는 옛날에 나하고 같이 과거를 보아서 급제한 매우 다정한 친구이므로 그러겠다고 쾌히 대답했지요. 그래서 언제 매장하게 되느냐고 물은즉 오늘 낮 열두시라고 그러더군요. 깨고 보니 꿈이었어요. 반신반의 하던중 지그 여기까지 나와서 바라보는데 당신네가 영구를 메고 오다 상(喪)을 머물더군요.”

노인의 대답이었다.

노인이 이야기를 다 들은 구장춘은 “노끈이 끊어지는 그 자리에 묻으라”는 선생의 유언을 노인에게 설명하였다.

노인이 매우 기뻐했다. 곧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청장년들을 많이 동원해서 각기 호미, 팽이 등 기구를 휴대하고 영구 앞으로 모여왔다. 관을 비껴놓고 정상(停喪)한 그 자리를 파서 안장했다.

왕중양선생이 생전에도 역시 어떤 일이든 이와같이 자연에만 의거했었다. 순식간에 큰 봉분이 이루어졌다. 구, 유등이 노인 및 여러 청년의 수고에 감사를 드렸다.

노인이 그들 도형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공양을 후히 대접했다. 그런 뒤 구, 유등은 왕중양 선생의 고향 대위촌을 찾아갔다.

## (祠堂)

구장춘 및 여러 사형이 함양 대위촌에 도착하였다. 집들이 대부분 헐어 뜯겨지고 황량한 촌락인데 세 노인이 어느 사당(祠堂)앞에 앉아 있었다. 구장춘이 그 앞에 가서 인사를 정중히 하고 왕효렴댁을 물었다.

“왈효렴택을 왜 묻나요. 어떤 연고인지요?”

그중에 수발이 성성한 노인 한분이 어떻게 말했다.

“그 어르신네가 우리의 스승님이십니다. 산동에 오셔서 도를 전하시고 해탈 하셔서 신선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몇 사람만이 스승님의 영구를 모시고 어제 종남산 기슭에 돌아와서 땅을 얻어 안장했습니다. 다시 산동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생님의 고향을 찾아보려고 온 것이니다. 택내는 다 무고하신가요?”

구장춘의 이야기였다.

“당신의 스승은 나의 형님이요. 나는 셋째 동생으로서 이 마을 사람들이 나를 왕삼노(王三老)라고 부릅니다. 형님이 집을 떠나신 후로 주씨 형수는 수심으로 병이 나서 돌아가시고 아들 추량은 처가에 의탁해서 사는데 가끔 한 번씩 여기 오지만 현재 그집에는 아무도 없지요.”

그 노인이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구장춘이 다시 촌락이 황폐한 이유를 물었다.

“형님이 떠나신 후로 마을을 이끌고 갈만한 사람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욕심만 채우곤 했지요.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때는 공정한 입장에서 해결을 못 짓고 서로 헐뜯고 다투다보니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인심이 갈수록 험악해져서 오늘날 마음이 이 모양이 된것이지요. 그 후 요렴공이 신선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야 그들은 그가 이 땅에 중풍택을 완전히 뿌리뽑고 또 그에 해당되는 죄를 속죄하고 갔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노인이 다시 한 번 한숨을 짓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우리 선생님이 신선되신 것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구장춘이 물었다.

이 집은 남북 여러 마을에서 효렴공을 위하여 세운 사당이지요. 여러분이 들어가보시면 알게 될것이지요.“

구장춘이 여러 사형과 같이 사당안에 들어가 보았다. 상면에 왕중양선생의 동상이 있었다. 그 모습이 엄연히 살아 있는 것 같았다. 모두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였다. 또 현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다.

“거룩하다 뛰어난 영웅이여

함양 땅에 도술을 나타내니



술으 뽑어 화재를 멸했고

고향에 은덕을 드리우니 부족을 배부하여 전염병을 몰아냈다“

구, 유등이 이 글을 보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를 왕삼로에게 물었다.

“어느해 이 고장에 전염병이 유행했지요. 전염병이 매우 강해서 사람마다 혼났는데 누런 옷을 입은 한 도장이 나타나서 주사로 쓴 부적을 집집마다 배부해주고 돈은 한푼도 받지 않았지요.

그 부적을 문에 붙이니 더 이상 전염병이 돌지 않아 일시에 물러 갔지요. 또 남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함양시에 큰불이 나 그 불길에 계속 변졌지만 불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역시 누런 도포를 입은 도장이 술집에서 나와서 한손에 술잔을 들고 술을 한모금 마신 뒤 불을 향하여 내뿜자 불이 곧 꺼졌다지요. 시중사람들이 그의 은공에 감복해서 그의 성명을 물으니 그는 가로획이 셋, 세로획이 하나 이것이 나의 성이요. 서비가 셋, 입이 셋 이것이 나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간곳 없이 사라졌다지요.”

그후 이 말을 풀이하는 사람들이 모두 가로획 셋, 세로획 하나는 왕(王)자요. 선비 셋, 입 셋은 철(철) 자라고 이것이 효렴공의 성명이지요. 그래서 효렴공이 신선이 된 것을 마을 사람들이 알았지요. 또 이 마음에 친족 형수가 있는데 임종할 무렵 누런 도포를 입은 효렴아제비가 나를 데리러 왔다고 이야기 했다지요. 그래서 이 부근 남북촌 여러 마을에서 그의 은공에 감복하여 사당을 창건해서 그 은공에 보답하고 벽상에 게시판을 걸어서 그 사실을 전하고 있지요. 이글을 읽어 보세요.”

왕삼로의 설명이었다. 구, 유등이 그 글을 읽어 보았다. 글을 다음과 같다.

옛부터 나라에 근로한 이는 나라에서 제사하고 백성에 유공한 이는 백성이 제사했다. 우리 마을 왕공휘(諱)철은 이인(異人)이다. 유년에 글을 배우고 장년에 무(武)를 배워서 효렴공으로 뽑힌 후 중풍을 가장해서 말을 앓으므로 날들이 그 동정을 아는 이가 없었다. 양병십이년동안 한 번도 문밖에 나서보지 않았는데 하루는 갑자기 없어져서 어디를 갔는지 모르고 각처로 수탐했으나 종적이 묘연했었다. 그후 우리 고장에 전염병이 유행했는데 공이 부적을 배부하여 병을 면케 했으므로 사람의 생명을 보전한 것이 자못 많고 마을 사람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입었다. 또한 함양시에서 공이 술을 뽑어서 불을 끄고 알아 맞추기로 성명을 알려주었다. 또한 과부를 제도해서 하늘에 오르고 마을 사람을 도와서 복을 받았다. 공이 이미 마을 사람의 정을 잊지 않았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공의 덕을

저버틸손가 전염병에서 구제하고 화재를 멸한 공이 있으므로 백성이 그를 위하여 제사하는 것이 불가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향의 공의로 사당을 창건하고 동상을 모시고 지방풍속에 따라 제사하여 공의 은공에 보답하는 바이다.“

“우리 선생님의 초월한 신기(神氣)와 자유자재의 변화는 우리들은 도저히 흉내 낼 가망도 없군요.”

구, 유등이 찬탄하는 것이었다.

왕삼로가 소사에게 무슨 말인지 컷속말로 수근 거렸다. 소사가 잠자코 나갔다. 조금 뒤 한 농군이 바구니에 음식을 갖고 와서 그들에게 먹기를 권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 유등이 치사하는 것을 왕삼로가 여러분께서 형님의 영구를 모셔서 고향에 돌아오시고 또 형님의 가족들을 찾아보시러 오셨는데 관대를 못하옵고 그런대로 편반(平飯)에 불과하오니 치사를 받기가 거북합니다.”라고 가로 막았다.

구 유등이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그날밤 사당안에서 잤다. 여러 사람이 위문차로 왔었다.

이튿날 새벽부터 마음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해서 모두 열일곱 여덟집에서 음식을 가져온 것이었다. 그들의 작은 인원수로서 그 많은 음식을 다 먹을 수 없으므로 각기 집에 음식을 조금씩 가져갔다.

“마도형(馬道兄)이 준 여비돈이 아직 몇 냥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왕삼로께 드려서 선생님 사당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쓰게 합시다”

유장생의 재언이었다.

여러 도우(道友)가 좋다고 찬동하였다. 왕삼로에게 돈을 주고 그 뜻을 설명했다.

그리고 작별인사를 하고 대위촌을 떠났다.

십리쯤 가서 길가의 큰 고목 아래에 앉아서 쉬었다.

“우리가 스승님을 서쪽의 고향으로 보내드리고는 대사(大事)가이미 끝났는데 다시 산동에 가서 마도형(馬道兄)의 밥을 먹고 돈을 쓰고 할 이유가 없어요. 세간에도 달이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듯이 인정에 끌리면 대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한테 뭉쳐서 다녔지만

세 사람이면 패가 되고 다섯 사람이면 당이 되어 말썽이 생길 수 있고 또한 불편한 점도 많으니 이 자리에서 각기 헤어져서 자유행동을 취합시다.”

담장진의 제언이었다.

“사형의 말씀이 옳습니다.”

왕, 학 등이 찬동했다.

유장생은 동남쪽으로 가고, 담장진은 남쪽으로 가고, 학태고는 동쪽으로 가고, 왕옥양은 북쪽으로 갔다. 구장춘은 그들이 여러 갈래로 헤어져 간 뒤 협서 지방에서 시주를 하며 고행을 했다.

학태고가 동쪽으로 가는 도중 한 군데 열아문 골짜기가 있고 큰 돌다리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다리의 기둥은 모두 천연석으로 된 반석이였다. 해마다 가을철이 되면 냇물이 마르고 기아 난민들이 다리밑에 와서 사는 곳이였다. 마침 물이 마르는 계절이라 다리밑은 매우 깨끗하였다. 학태고가 다리밑에 가서 참선(參禪)을 하였다.

처음은 아는 사람이 없고 매우 조용했다. 얼마안가서 차츰 사람을 알게 되고 주위가 시끄러워졌다. 인근 주민들이 그가 하루 종일 꼴꼴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수행인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여기 저기서 만두를 가져오고 빵을 가져왔다. 그는 그것을 다 먹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의 앞에는 만두와 빵이 많이 쌓여져 있었다. 까치와 참새들이 어느새 날아와서 부스러기를 쪼고 덩어리도 물어갔다. 물어서 공중으로 오르다 떨어뜨리면 물위에 떨어지고 노상에도 떨어졌다. 아이들이 보고 그것을 주워 먹었다. 까치로 인해 다리밑을 알게된 아이들이 이곳으로 몰려와서 학태고의 앞에서 놀았다. 그가 흙으로 만든 사람같이 부동의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마음놓고 놀았다. 그를 보살님이라고 섬기며 절을 지어주었다.

돌조각을 주어다가 양쪽으로 담을 쌓고 나무가지를 꺾어다 담위에 걸치고 풀을 베어다 그위에 덮었다. 그들은 매일매일 아침 밥을 먹으면 집집마다 다니며 벼를 모아서 바로 다리 밑으로 뛰어오는 것이였다. 학태고를 향하여 작읍하고 웃어대고 지껄이고 떠들어대는 것이였다.

그들이 한테 뭉쳐서 노는데는 언제나 웃음이 아니면 울음이 벌어졌다.

학태고는 수양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뛰거나 넘어지거나 다투거나 통 아는 체 하지 않았다. 이것도 역시 혼란 가운데서 정적을 취하는 공부에....

하루는 앞마을에 관음연대회의 불사가 있어서 아이들이 모두 거기로 가고 매우 고요한데 어떤 사람이 다리밑에서 벽돌을 갈고 있었다.

벽돌을 갈아서 얼굴에 비추어 보고 갈아서 다시 비추어 보고 했다.

이렇듯 여남은 번 하니 벽돌이 다 닳아서 없어지자 또 다른 벽돌을 갖다가 가는 것이었다.

그 사람이 만나질 동안 벽돌을 가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학태고는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 벽돌을 진흙이 되도록 갈아 없애는 것은 애당초 어떤 쓸모있는 것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또 다시 벽돌을 가는 것을 보고 어리석은 헛수고라 생각한 학태고는 그 사람을 깨우쳐 주고 싶었다.

“당신이 벽돌을 가는 것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 낼 목적인가요.”

학태고가 벽돌 가는 사람에게 물어 보았다.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 내는가 잘 보시구려” 그사람의 대답이었다.

“어떤 물건이든지 물건을 만들어 내려면 그 물건의 모형에 따라서 높은 곳은 깎아서 낮게 하고 혹은 모난 것을 고쳐서 뚜렷하게 하는 성산이 있어야 잘되는 것인데 당신과 같이 막무가네로 자꾸 갈기만 하면 뭐가 되겠소,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뭘 만드는데요?”

“나는 맑고 밝은 거울을 만들려고 그래요. 내 얼굴도 보고 남의 얼굴도 볼 수 있게 말이요.”

“허허허 이 양반 벽돌은 어디까지나 벽돌이지 강철이나 쇠붙이가 아니란 말이요. 닳았다고 빛이 나나요? 헛수고요 헛수고.”

학태고가 그 사람을 비웃었다.

“당신의 말대로 벽돌을 갈아서 거울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이 도를 닦는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신선이 되지 않을거요. 말라 빠지도록 앉아 있어 보구려 신선이 되는가 하하하”

그 사람은 학태고를 비웃는 것이었다.

학태고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자기의 미혹을 일언으로 도파(道破)한 것이었다. 벌떡 일어나 그 앞으로 가서 바른길을 물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과연 사람이었던가? 신선이었던가? 문득 바람과 같이 사라진 것이었다. 이인이 나타나서 자기의 참선공부가 무익하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라고 학태고는 생각했다.

행장을 수습하고 진안교 다리밑을 떠나 유연으로 향해서 갔다. 벽돌을 가는 것은 쓸데 없는 노력이었다. 정좌해서 외로이 닦는 것도 원기가 날로 쇠약해질 뿐이었다. 한 이인의 일언으로 그는 미혹의 길을 벗어난 것이었다.

담장진이 남쪽으로 향하여 가다 하루는 수주지방에 도착하였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옛 사당오 휴게소도 여관집도 없었다. 길가에 한 농가가 있는데 방이 매우 많아 보였다. 들어가서 유숙도 물어보고 시주도 받으려는 생각으로 그 집 문앞에 갔다. 안에서 주인인 듯한 사람이 나왔다.

이 사람의 성은 고, 이름은 족성, 호는 유평인데 역시 도를 애호(愛好)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남의 돈을 빼앗아가는 가짜 도인, 신선에게 여러번 당해서 이제는 도인을 싫어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는 앞으로 가자니 가짜 도인이 무섭고 돌아서자니 주색재기가 무서워 진퇴양난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다.

“여보시오 도장 어서 딴 곳으로 가시오. 여기는 승인 도인은 인연이 없는 데요.”

그는 안으로 들어서려는 담장진을 가로 막았다.

그분 나쁜 도인들에게 항상 속아 온 관계로 참된 도인을 만나고도 쉽사리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쩐지 도인다운 인상이 있는 것을 보고 담장진이 그를 놓지 않았다. 막 입을 열어 성전(成全)하려는 순간,

“도장은 아무 말도 마시오. 당신네 말을 나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으므로 당신이 아무리 별스러운 말을 해도 나는 안믿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얼마나 속아 왔는지 아시오? 지금 세상에 수행이 다 뭐요?

“내가 보는 눈으로는 수도인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무리들이지.”

고유평이 이렇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 않았다.

담장진은 도문(道門)이 타락되어 도덕의 분위기가 조금도 없는 것을 보고 적극 도의 권위를 회복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는 그 집 문앞에서 참선에 들어갔다. 아주 캄캄하게 어두워질 무렵 그 집 머슴이 나와서 딴 곳으로 가라고 쫓고 문에서 냉수를 끼얹었다. 그리고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갔다.

그 집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것을 보고 담장진이 그 집 문앞을 피해서 길가에 앉았다. 그날밤 눈이 내려서 한 자쯤 쌓였다.

날이 썰 무렵 그 집 머슴이 나와 보았다. 담장진이 길가 방죽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주위에는 흰눈이 겹쳐 쌓여 있지만 그의 신변에는 조금도 눈이 쌓이지 않았다. 이상스러운 일이었다. 머슴이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고유풍이 나와 보고 직접 담장진에게로 가까이 가서 보았다. 더운 김이 훈훈하였다. 그가 도덕이 있는 선비인 것을 알고 고유풍이 그를 안으로 청해 들여서 손님의 예로 대우하였다. 이것으로 본다면 그는 과연 도를 애호(愛好)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믿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문에 좋은 선생이 없어서 안 믿었던 것입니다.

당신처럼 진심으로 수행한다면 왜 존경을 안하며 왜 공양을 않겠습니까? 3 년도 좋고 5 년, 10 년도 좋습니다.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내일은 원을 세우고 사제의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들어 주시겠습니까?”

고유풍이 이렇듯 믿는 마음이 발한 것을 보고 담장진이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를 성전하려고 버르던 터였다.

고유풍이 대단히 좋아하며 가복에게 조용한 뒷방을 소제하여 담장진을 거기서 참선하게 하고 매일매일 자와 식사등 공양을 거르지 않게 했다. 또 어린 여종 희홍에게 심부름을 잘 듣게 했다. 참으로 도덕이란 귀한 것이요.묘한 이치가 그지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록 고유풍이 단 한 번도 담장진을 찾아오지 않았다. ‘그가 도인을 좋아하는 것은 도를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인으로 하여금 그의 공양을 받게 함이다. 그리하여 복을 짓고 수행하는 사람을 돌봐 줌으로써 그는 가만히 앉아서 복을 누리려는 것이다. 말하자면 복을 구하는 마음은 있지만 수행할 마음은 없는 것이다.’

고유풍의 심중이 이렇다는 것을 알자 담장진은 여기에 계속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는 떠나려고 했다. 그러나 고유풍이 적극 만류하고 놓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 가복들에게 철저히 감시하도록 일러 두었다. 담장진이 누차 몰래 가려다 그들에게 붙들려 되돌아 왔다. 그래서 그는 떠날 수 있는 한가지 묘안을 세웠다.

희홍이 차를 갖고 들어왔다. 담장진이 희홍의 손을 짝 붙들었다.

“어쩌면 네손이 이렇게도 희냐. 부드럽고 귀여운 손이구나!”

“제 손이 이디가 험니까? 검정칠해 놓은 것 같아요. 선생님 제 손을 비웃지 마세요”

희홍이 얼굴을 붉히며 손을 뿌리치고는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곧바로 안방에 들어가서 주인아씨께 일러 바쳤다.

“담선생이 어린 여종을 반겨 하더랍니다. 진정한 수도인이 아닌가 봐요. 어서 가라고 하세요.”

아씨가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 했다.

“그럴리가 있나? 그년이 심부름하기가 괴로워서 지어낸 말이겠지.”

고유풍이 희홍의 말을 믿지 않았다. 남편의 말에 따라서 아씨도 도리어 희홍을 책하였다. 희홍이 뭐라고 변명하지 못했다.

이틀 후 고유풍은 희홍이 담장진에게 차를 갖고 가는 것을 보고는 따라가 밖에서 동정을 엿보았다. 과연 담장진이 희홍의 손을 잡는 것이었다.

희홍의 웃는 모습은 남성이 움켜 잡기를 기다리는 듯 했다.

“네 손이 옥 같이 희고 솜 같이 부드럽구나, 진짜 너는 나의 애인이야”

고유풍이 밖에서 이 말을 듣고 별안간 화가 나서 곧 그를 쫓아내고 싶었다. 그러나 그가 누차 나가려는 것을 자기가 만류해서 못 가게한 것이므로 이제 와서 직접 쫓아내기는 미안하다고 생각하였다. ‘벽상에 시를 걸면 그가 보아서 내 뜻을 알고 떠나갈거야. 가복들에게 모른 체 하라고 일러두면 되겠지’ 고유풍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

이튿날 아침 식사시간이 됐는데도 희홍이 차도 밥도 들여오지 않았다. 담장진이 이제는 떠날 시기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밖에 나가 보았다. 문쪽에 시가 걸려 있었다.

“찬바람이 밤새도록 불고

눈보라가 펄펄 휘날리는데

진땅을 이불인 양

그 모습이 처량도 하더라  
이 내 손이 옥 같다고 부러워말고  
개구리 같은 네 몸 추억하여라.”

담장진이 보고 웃었다. 방으로 돌아와서 붓을 갖고 다시 밖으로 나가서  
고유풍의 시에 답변하는 시를 빈칸에 넣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서 행장을 수습하고 밖으로 나와 뜰앞에서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두차례나 연속해서 인사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남쪽으로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후 2 년이 경과되어 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고씨의 가복들은 담장진을 아는 체 말고 나가는데로 내버려  
두라는 주인의 분부에 따라 담장진이 나갈 때 모두 회피하고 나간 뒤에야  
주인에게 알렸다. 고유풍이 가복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보았다. 자기의  
시에 답변하는 시가 기재되어 있었다.

“눈도 달도 바람도 꽃도  
모두가 쓸데 없아라  
마음만 바르면  
모습이야 처량해도 좋다.  
희룡의 옥같은 손이 아니었으면  
이 몸이 어이  
우물안에 개구리를 면할소냐”

고유풍이 담장진의 시를 보고 그가 희룡을 놀린 것은 탈신(脫身)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후회가 막심했다.

왕옥양이 대위촌에서 여러 도우들과 헤어진후 방주지방에 이르렀는데  
방주 북문로에 성은 요, 이름은 종고라는 저명한 인사가 있었다. 일찍이  
신안 유부를 지냈는데 세상 일을 멋지게 보아서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전원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일평생 도를 애호해서 출가한  
도인을 만나면 다정한 친구를 만난 것 같이 수행이 있든 서로 정담을  
교환하였다.



그의 저택 부근에 우선관이라는 관이 있었다. 그 주지가 도승(道僧)이므로 오가는 도인 승인들이 많이 유숙하곤 했는데 수행하는 도인이 오면 꼭 자기에게 알려 달라고 미리부탁한 것이었다. 관주가 늘 그렇게 했다.

하루는 혼연자라고 이름하는 승인도 아니고 도인도 아닌 수행인이 와서 도덕 군자로 자칭하고 여러 사람앞에서 도덕의 가치를 파는 것이었다.

“내가 올들어 96 세인데 일찍이 장도릉도 누차 만나보고 달마는 나의 사촌이시고 제전(제공활불. 해석자 주)은 나의 친구였지 그런데 이분은 화초를 심었나 버드나무를 심었나”

혼연자가 여러 사람을 만만히 보는 눈치로 왕옥양을 가르키며 묻는 것이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왕옥양이 망연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여보, 아내는 있지요.”

혼연자가 왕옥양에게 물었다.

“아내는 있어요.”

“고향에서 혼자 살아요.”

왕옥양이 세속 사람의 물음에 대한 것과 같이 답변한 것이었다.

“하하하 출가인이라고 해서 이걸 모르고, 이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내말을 들어보오. 화초를 심는다는 것은 소년 출가라는 말이고, 버드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중년 출가라는 말이고 아내가 있다는 것은 진음 소식이 있다는 말인데 그대가 통 모르고 세속사람 같이 대답하는 구려. 만일 잉태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더욱 모르겠지”

혼연자가 왕옥양을 앞에 앉혀 놓고 나무라는 것은 큰 실례였다.

왕옥양은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관주는 얼굴이 화끈 화끈 했다. 남을 모욕하는 말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보다 더 따가웠다. 관주의 빨강계 수줍어 하는 얼굴을 살펴보고 또한 여러 사람의 체면으로 보아서 왕옥양이 노인과 어느 정도 변론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느꼈다.

“조금전에 선생께서 말씀하신 진음이란 무엇이며 무엇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왕옥양의 태도가 매우 의아해 보였다. 여러 가지로 물을 필요가 없었다. 간단하고도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혼연자가 즐지에 뭐라고 답변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최고로 중대한 관계가 있는 누설치 못할 천기이므로 네게 경솔히 말하 수 없다고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다. 아는 체 해서 말을 꺼냈다면 꼭 봉변당할 어려운 문제이므로 애당초 시작 않는 것이 상책인 것이었다.

관주가 노인의 억지 부리는 것을 보고 그가 말만 들었지 이치를 모르는 것임을 알아차렸다.

“왕도우가 설명하시구려”

관주가 왕옥양의 설법만을 기대하는 것이었다. 왕옥양의 간단한 질문에 혼연자가 답변을 못하는 것을 보고 관주가 손뼉을 치며 웃어 댔다. 이것은 왕옥양의 설법을 재촉하는 동시에 혼연자를 화나게 했다.

“선생께서 모르는 것은 아니오나 말씀은 얕으시므로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사오니 여러분께서는 잘 들으시고 가부를 판정해 주십시오.”

왕옥양은 혼연자의 과오를 모른 체 했다.

“진음 진양은 천지의 음양 2 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양의 원기는 간에 들어 있으니 삼혼이 이것이요, 진음의 원기는 폐에 들어 있으니 칠백이 이것입니다. 간은 목(木)이니 혼이 모이는 곳이요, 폐는 금(金)이니 녀이 모이는 곳입니다. 금은 팔괘의 태가 되니 태는 소녀의 모습이요, 목은 팔괘의 진이 되니 진은 장남의 모습입니다. 목은 동방의 소속이요, 금은 서방의 소속이므로 목은 동녘 신랑에 비하고, 금은 서녘집 신부에 비하는 것입니다. 금목이 서로 만나서 혼이 녀를 떠나지 않고, 말하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따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음양의 화합하는 이치요, 혼연자 선생이 제게 아내가 있는가 하고 물은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은 의지로써 금과 목을 끌어당기어 두 가지가 서로 틈이 없어야만이 부처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는 토의 소속이니 누른 빛이요, 강력해서 활동을 좋아하므로 결혼을 소개하는 황노파에 비하는 것입니다. 원기가 충족해서 신이 나타나면 신은 기의 소생이요, 기는 신의 모체이므로 영아를 탄생한다는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 것 같이 큰 단이 이루어지면 가히 천지와 같이 오래가고 일월과 같이 광명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왕옥양의 설법을 듣고 요종고는 칭찬을 마지 않았다.

“덕이 있는 자가 꼭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잘하는 이가 꼭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너와 나 어느 쪽이 공부에 훌륭한가를 알기 위해 물 한 모금 안마시고 이틀이건 사흘이건 참선하기로 하자.”

혼연자가 말했다. 그는 왕옥양으로 해서 자기가 관에서 축출을 당할 것이 큰 근심이었던 것이다.

“저는 공부가 미숙해서 오랫동안 앉아 있지 못하옵니다. 그러나 이틀 사흘이라면 따라가 보겠습니다.

왕옥양이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곧 참선을 시작했다. 선실(禪室)에 담요를 깔고 나란히 앉았다. 혼연자는 본래 물 한모금 안 마시고 이틀 사흘 앉아 있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왕옥양과 경쟁하자는 데서 마음에 분함이 있고 따라서 앉아 있기가 따분해지고 여러 가지 번뇌가 생겼던 것이다. 참선할 때는 마음이 비고 또 비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자꾸 차를 마시고 소변을 보러가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자리를 떴다. 이틀째는 앉지 못해서 그만두고 음식을 찾아 먹고 잠을 자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코를 골며 잤다. 왕옥양은 꾸준히 앉아서 사흘이 경과된 후에 자리를 떴다. 도리어 정신이 상쾌하고 원기가 왕성했다.

“사존께서는 참선공부가 본격적이어서 혼연자 선생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종고가 왕옥양을 추켜 주었다.

“혼연자 선생이 저만 못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이 연로하신 탓이지요. 제가 만일 그 나이라면 만나절도 못견딜 겁니다.”

왕옥양의 말을 듣고 혼연자가 감복해서 다시와서 정담을 새로이 하는데 자존자대의 버릇을 고치고 차츰 자세를 낮추는 것이었다. 왕옥양은 요종고의 저택에서 수일동안 묵고 그에게 참선 공부를 가르쳐 주었다. 두 사람 사이가 매우 친숙해졌다.

그런데 왕옥양이 우선관에 가서 행장을 갖고 오겠다고 말하고 나가서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요종고가 가복을 우선관에 보내어 알아보도록 한즉 잠깐 들렀다가 곧 나갔다는 것이었다. 머리만 보고 꼬리는 못 본 격이다. 요종고가 한걸음 대딛으며 자기의 인연없는 것을 한탄하고 혼연자가 또한 아타까워 하였다.

, , , (4 )

유장생은 여러 도우들과 헤어진 후 남쪽으로 가서 한바퀴 돌고 다시 동쪽으로 가 태산에서 3 년동안 수련하여 정과를 이룩하고 상계에 올라가서 요지연 의연회에 참가하여 왕모를 뵈었다. 왕모를 배후에 감도는 여러 선녀들의 주사 같다고 할까 부드럽고 귀여운 모습이 안간에서는 볼 수 없는

상상도 못할 모습을 보고 일념이 동하여 그는 여러 선녀들을 엿보며 눈짓을 하였다.

“경은 어떤 의미에서 눈짓을 하는가?”

왕모가 물었다. 이 말에 유장생이 과오를 깨닫고 황공하여 엎드려 사죄하였다.

“신은 무지개 치마가 나부끼고 구름 옷소내가 휘날리는 것을 보고 무심코 눈짓한 것이오나 실은 아무 생각도 없었사오니 널리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왕모가 다시 유장생을 책하는 것이었다.

“너는 남과 자기와의 분별이 아직도 남아 있고 색상(色相)이 비지 못했으므로 금단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초범입성이 가능치 않다. 다시 인간으로 내려가서 고수고련을 마치고 오너라.”

곧 선관에게 명령하여 남천문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였다. 선관이 왕모의 명령을 받들어 유장생을 대동하여 남천문에 이르렀다. 유장생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려는 순간 선관이 뒤에서 떠밀어서 남천문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문득 깨고 보니 꿈이었다.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참으로 일념의 착오였다.

“너는 단을 이루는공부는 남보다 우수하나 색상을 버리지 못해 걱정이다.”라고 했던 왕중양선생의 말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다. 꿈에 요지궁에 들어가서 왕모께 꾸중을 들은 그말이 왕중양 선생님의 말과 꼭 같았다.

“이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것인가? 산을 내려가서 높은 선생을 찾아 지시를 받아야겠다.”

유장생은 이렇게 생각하고 산에서 내려왔다. 수일 후 그는 담장진을 만났다. 그리고 수도의 경과를 이야기 했다.

“형이 고씨의 공양을 사절한 것은 일념이 바른 것이고 내가 요지궁에서 선녀에게 눈짓한 것은 일념이 그릇된 것이다. 그런데 내가 색상을 버리는 공부를 어디에서부터 착수해야 되게는가?”

유장생이 물었다. “옛날 허정양이 소년때에 사냥을 무척 좋아했지요. 하루는 사냥을 나가서 산중에서 노루를 쏘았는데 그 노루가 화살이 쏘힌채 도망을 갔어요. 허정양이 가복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로 찾아 다니다 노루 두 마리를 발견하였는데 작은 노루가 땅에 누워있고 큰 노루가 작은 노루의 상처를 핥고 있었어요. 사람이 와도 큰 노루는 도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루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아서 집으로 왔지요. 집에 와서 풀어 주었으나 두 마리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복장을 갈라 보았더니 어미 창자는 토막 토막 잘라져 있는데 새끼 노루는 상처를 입었지만 창자는 온전 하더라고요. 새끼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는 고통이 화살을 맞는 고통보다 더 아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허정양이 이 광경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활을 버리고, 산중으로 들어가 수련하여 정과를 이룩했답니다. 그는 시방중생을 제도하고자 연화대상에서 설법하여 제자 수백 명을 두었데요. 하루는 허정양이 여러 제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너희 수백명의 인원수는 작은 숫자가 아니고 또 집을 버리고 도를 배운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특히 수행인은 색상(色相)에 무관심해야 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과연 색을 보고도 능히 탐내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여러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받자

“우리가 금전, 술, 권력이라면 혹시 버리지 못했을 지언정 색이란 건 애초부터 무관심 했는데 탐내서 뭐 하겠습니까?”라고 이구 동성으로 대답했지요.

“너희가 그렇게 딱 잡아 떼지만 아마 그렇게 안될 것이다.”

“우리가 왜 헛된 말을 해서 선생님을 속이겠습니까?”

“그래 그것이 정말이라면 내가 한가지 시험해 볼 일이 있다. 너희는 두자 남짓한 혹은 녀자 가량 되는 목탄 한 개씩 마련하여 너희 자는 옆에 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게 가지고 오너라. 그때 내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여러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까닭을 모르지만, 각기 목탄을 마련해서 침상에 두고 잤대요.

그 날 밤 그들이 잠들 무렵 각기 자기 옆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같이 자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손으로 만져 보았어요. 살결이 솜같이 부드럽고 옥같이 귀여웠지요. 가만히 하체를 만져보니 여인의 몸이었어요. 정욕의 불이 펄펄 일어나서 억누를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의 몸이 이리 저리 얽혀졌지요.

동이 트니 창밖에서 빨리 목탄을 가지고 나오라는 고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정양은 벌써부터 기다렸어요. 그들이 꿈에서 깨고 보니 목탄을 바짝 끌어안고 있는 것이었어요. 밖에서 자꾸 제촉하였습니다. 각기 의복을 걸쳐 입고 목탄을 바치러 나왔어요.

“양쪽으로 나뉘어서 이름을 부르는 데로 한 사람씩 목탄을 가지고 나오너라.”

허정양이 그들에게 분부했습니다. 두 줄로 선 가운데 먼저 한 사람이 나와서 목탄을 바쳤어요.

“네 나이는?”

“제 나이는 76 세입니다.”

“너는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고도 색을 간파하지 못하였느냐? 우스꽝스러운 일이구나.”

“뭘 보시고 제자가 색(色)을 간파하지 못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도 구태여 변명하려는 것이냐, 네가 과연 색을 간파했다면 이 목탄 위에 칠해진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목탄을 살펴보니 목탄 가운데는 담담한 흰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젯밤 자신의 몸에서 내어 나간 양기의 흔적임을 알고는 무색해서 머리를 숙이고 기력을 상실했어요. 비로소 제자 모두는 어젯밤 육체적 관계를 맺었던 것이 한낱 목탄이었음을 알았지요. 그들은 자기네 목탄에 나이가 젊을수록 흰 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들은 추태를 드러내기가 무서워서 제각기 묵묵히 서 있을 뿐 한 사람도 목탄을 바칠 수 없었어요. 바치기를 촉구했으나 한사람도 바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목탄에 흰 점이 묻어 있지 않은 한사람이 있었어요.

“색이란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인데 너는 어찌 좋아하지 않느냐?”

“제자는 색 가운데서 수련하는 법을 배웠사옵습니다. 무엇이든지 쾌락 뒤에는 꼭 공포가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손안에 들어오기를 갈망하던 일이 결국 손안에 들어오면 아침 저녁으로 설새없이 그것에만 열중하여 정신, 기력 그리고 생명을 손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죽음의 공포가 생기고, 공포가 커질수록 자연 그일을 멀리해서 그 환경에 놓여 있어도 생각을 하지않고, 욕망을 끊어서 생명을 보존하려 했습니다. 제자는 소년 시절에 방종하여 절제없는 성생활에 빠져 화류계를 집으로 삼아 돌아오는 것도 잊고 그 속에 있었습니다. 타락적인 유희에 정신이 손상되고 공포심 또한 생겨 도피하려고 했으나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제자는 도를 배워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다시는 색을 탐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묘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널리 알고 많은 경험에서 얻은 것입니다.“

허정양이 머리를 끄덕인후 다른 여러 제자들은 집으로 보내고, 그 한 제자에게만 도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후 제자의 집에는 오얏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빨간 오얏열매가 탐스럽게 열렸어요.

어느날 그 집 담장옆을 지나던 한 여인이 그 오얏나무 열매를 따 먹었는데 그 후로 잉태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없는데 잉태했으므로 갖가지 소문이 떠돌았지요. 그러나 주민들이 이치를 따져보고 여자의 몸에서 큰 인물이 태어날 것으로 여겨 극진히 보살펴 주었어요. 출산 날이 다가와 길일을 태가하려는데, 좋은 해를 고르면 좋은 달이 없고 좋은 달을 고르면 좋은 날이 없고 좋은 날을 고르면 좋은 시가 없었어요. 고르고 또 골라서 81 년동안 골랐어요. 그때 성모의 나이는 이미 백세가 되었어요. 성모는 춥지도 배고프지도 병도 재해도 없었어요.

그해 2 월 15 일 성모는 오얏나무 밑에서 왼쪽 옆구리로 태상노군을 낳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흰머리였지요. 세 발자국을 후퇴하여 중앙에 서서 두 번 외쳤어요.

“천상과 지하 가운데 내가 제일 높다 ‘나’라는 것은 도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공중에 신선의 음악소리가 요란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산들거리고 선녀들이 꽃을 뿌리고 아홉용이 물을 뿌려 태상노군의 몸을 씻겼지요. 그가 목욕한 자리에는 아홉 개의 우물이 생겼어요. 태상의 슬기는 말할 것도 없이 총명하였고 그 성덕도 하늘 같이 높았습니다. 오얏나무 이(李)자를 따서 성으로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흰머리였으므로 노자(老子)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태상노군 탄생의 내력입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신기한 사실이 경서에 기재되어 있어요. 이것은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색상(色相)을 버리는 공부에 참고가 될까 하고 담장진이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데 학태고, 왕옥양도 이 자리에 해후해서 기회가 바야흐로 도래한 것이었다.

“태상의 도덕은 천추에 빛나고 만고에도 높아서 이루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앙선생 가신 후 몇 년동안 우리 수련공부가 상호간에 얼마나 진전이 되었는지 오늘 우연히 모였으니 각기 심중에 있는 비보인 선경을 발표하는 것이 어떻가요!”

유장생, 학태고 등이 제안했다.

“지혜의 칼이 높이 걸려 하늘에 별빛도 짹짹하다. 군소의 외적이 손발이 묶여 침략의 단서가 있을 수 없다. 깊은 밤 삼경이 되도록 고요히 앉았는데 구전선단의 위력에 용도 범도 온순하다.”학태고가 먼자 시를 읊었다.

“선경에 옛 친구를 만나 뜨거운 날 쌀쌀한 밤에 수련하는 공부  
늘수록 새로운 단서가 있다. 지혜는 돋는 달을 붙잡아 매어 저절로 범도  
길들이고 용도 온순하다.” 왕옥양이 화답했다.

“도는 가이없이 커서 귀신도 감담이 서늘하다. 초범입성이야 더욱이  
단서가 있을소냐. 한 주먹으로 치미한 놈을 후려쳐서 누운 달, 화로 속의  
용도 범도 온순하다.”담장진의 시이다.

“생육하면 이내 간담이 서늘하다. 무지개 치마가 나부끼는 곳에 단서가  
있다. 일념의 과오로 갑자기 치미한 놈이 되었는데 선경이 있을소냐. 용호도  
사납다.”유장생이 지었다.

“우리 삼인은 감정이 일치하고 도심이 상응해서 그 시가 기쁨이 있고  
슬픔이 없는데 유도형의 시는 슬픔이 있고 기쁨이 없어서 우리를 멧적게 할  
뿐 아니라 또한 도심이 아닌가 하오.” 왕옥양이 말했다.

“간담이 서늘한 것이 도심이 아니고 치미한 것이 도심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도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도심이 없음을 자책하는 가운데  
도심이 있지요. 그러므로 기쁨, 슬픔을 놀할 것도 없고 멧적을 것도 없지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유도형의 심중에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군요.” 학태고가 말했다.

“맞습니다. 유도형의 요지연에 가셔서 선녀에게 추파를 보내신 관계로  
왕모의 노염을 사 다시 인간으로 하강하는 꿈을 꾸시고 산중에서  
내려오는도중 나를 만나서 허정양의 목탄으로 제자들을 시험한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담장진이 유장생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가신다니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인가요?” 왕옥양이 물었다.

“요정 속에서 도를 깨치고 다방 안에서 참선하는 공부를하여 색상을  
날리려는 거지요.”담장진이 답했다.

“보아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으면 자연 색상(色相)이 빌텐데.”  
왕옥양이 말했다.

“이것이 자기다 저것은 남이다 하는 인아의 관념을 버리면 색상도 자연  
없어질거요.” 학태고가 말했다.

“두분의 말씀은 상지(上智)라야 능히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나로선느  
어차피 많이 보는 것을 수단으로 하고 널리 아는 것을 공부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장생이 답했다.



“색마를 수련하는 공부란 사람마다 있지만 유도형 같은 분은 고급에도 드물 것입니다.” 왕옥양, 학태고가 입을 모았다.

지향이 있으면 봉정만리를 가고 지향이 없으면 앉아서 지키고 각기 자기만 닦는 것이므로 이 이상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담장진이 말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네 사람은 산정에서 참선 하면서 밤을 새우고 이튿날 각기 헤어졌다.

### 학태고의 석굴

학태고가 화음도중에 별안간 머리를 들어보니 산 하나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떠받드는 듯 공중에 반쯤 높이 솟아 있었다. 앞서 스승을 모시고 서쪽으로 올때는 영구가 어깨를 눌러서 산을 구경 못하고 지나갔는데 오늘은 정처없이 왔다갔다 하면던 중이라 자연 선수를 구경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 번 바라보자 그는 곧 양모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학태고는 동쪽으로 멀리가서 서쪽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보는 것이 곧 성도의 시기다.”라고 하던 왕중양 선생의 예언을 상기해 보았다.

그는 정상에 올라갔다. 만산이 부복하고 우러러 보는 것이 가까이 내려다 보였다. 하늘만이 위에 있고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없었다.

머리를 들어보니 붉은 태양이 다가서 있고 굽어 살피니 흰구름이 발밑에 나즈막하게 떠 다니고 있었다.

그 산은 바로 서화 태화산이었다. 산성에 궁관(宮觀)이 열군데가 있는데 무두 도인들이 향화를 올리는 곳이어서 매우 복잡했다.

학태고는 석공이었다. 그는 끌, 방망이를 마련하여 산상에서 제일 한적한 곳을 찾아 신묘한 기술로 석벽에 자기 한 사람만일 앉을 수 있는 굴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 정양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 한 도우가 이불을 지고 찾아와서 그 석굴을 자기에게 양보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었다. 그는 학태고의 허락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제맘대로 석굴안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내려놓고 앉았다. 학태고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그는 먼저 석굴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학태고는 마음이 인자하여 결국 그 사람에게 석굴을 양보하고 말했다.

다시 산 위로 올라가신 수십 장이나 되는 암석이 있었다. 그는 다시 그 암석을 파기 시작했다. 손발이 닳도록 석굴을 파냈다. 앞의 석굴보다 좀 더 넓고 크게 팠다. 그는 매우 기뻐다. 바로 그때,

“불초 도제는 앓을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도형은 석굴을 파는 명수이니 이것을 제게 자비해 주십시오.”

또 다시 자리를 양보해 달라는 도우가 나타났다. 학태고는 수행인으로서 남의 소원을 들어주어야겠다는 생각에 그 곳 역시 그 사람에게 양보하였다.

그는 십년동안 천신만고를 겪으며 72 개의 석굴을 뚫으나 모두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하면 내주고하여 자기는 수양할 곳이 없었다.

그는 다시 뒷산으로 가서 석굴을 팔 만한 곳을 찾아냈다. 그러나 그 곳은 높고 높은 만장석벽으로 산새도 날아들지 못할 곳이었다.

‘여기 굴을 판다면 찾아와서 달라고 한 사람도 없을거야. 그러나 통행할 길이 없으니 줄을 타고 오르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에서 내려와 긴 줄을 사고 충실한 도제를 한 사람 데리고 왔다.

도제가 외곶길 산으로 올라 가서 줄을 큰 나무에 잡아매고, 학태고가 끌, 망치를 허리에 차고 손으로 줄을 잡고 발로 석벽을 밟고 내려가서 굴을 팔 정소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한 사람이 서거나 앓을 만한 자리가 있었다.

그리하여 학태고는 매일 굴을 파고 도제는 밥을 지었다. 학태고는 매일 아침 한 끼만 먹고 나가서 굴을 파고 밤늦게야 돌아오곤 했는데 어느날부터인가 도제는 밥짓기가 싫증이 났다.

‘네가 한해 본 생활을 하려고 도를 배우러 온 것인데 밥짓기가 이렇게 신고(辛苦)해서야 도를 배워 무엇할 것이냐?’

그는 이렇게 해서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

그런던 어느날 그는 자귀를 옆에 찼다. 학태고가 밥을 다 먹었으므로 분명 줄을 타고 굴을 파러갈 것을 알고 뒤따라갔다. 학태고가 줄을 타고 내가는 순간, 이 충실한 도제는 자귀로 줄을 쳐서 잘라 버렸다. 줄이 출렁거리며 잠깐 솟아올랐다가 만장석벽 아래로 떨어져 내려갔다. 학태고의 생사존망은 과연 어찌 됐을까?

지금도 화산남쪽 학조동을 찾아가면 다음과 같은 글이 석벽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형제들아 조심조심. 십리길을 내려가서 화음도서 실수하면 성주까지 날아가네.”

그런데 학태고의 충실한 도제는 줄을 끊어서 스승을 만장석벽으로 떨어뜨렸으니 응당 죽었으리라 생각하고 행장을 수습하여 줄행랑을 쳤다.

그런데 그가 앞산을 십리쯤 내려가 큰 암석이 있는 부근에 이르렀을 때였다. 밑에서 암석을 기어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꼭 자기의 스승 같았다. 그는 깜짝 놀라 전신에 땀이 흘렀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서로 마주치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끝이 부러져서 상주 오철장집에 가서 끝을 사가지고 온다, 너는 행장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학태고가 웃으면서 말했다.

“선생님이 오랫동안 오시지 않아서 선생님을 마중 나오는 길입니다.”

“하하하, 매우 충실한 제자구나. 스승이 잠시 나가서 안 온다고 행장을 꾸려서 마중을 나왔으니. 태양은 세 길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13 리나 되는 길을 어떻게 다 가나. 오늘밤은 추울텐데 이불을 지고 와서 잘 됐다.”

학태고가 웃으며 앞으로 걸어갔다.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은 것은 어찌된 일일까? 겁운을 다 겪지 못하고 굴을 파는 일을 마치지 못한 탓으로 신선이 안된 것인가? 신선이 안 됐다면 어찌서 떨어졌어도 죽지 않고 어느 새 돌연히 내 앞에 나타난것일까? 나를 만나자 웃기만 하고 나쁜 기색이 조금도 없는 것을 보니 도량이 커서 그런 것이겠지. 내가 이런 스승을 놓치면 저 하늘 끝까지 찾아도 다시 만나지 못할거야, 이처럼 대자대비한 분을 떨어뜨리다니 큰 실책이었어, 다시 산에 올라가서 이 분을 성심껏 모시면 나도 앞으로 성공할 날이 오겠다.’

그는 암석 위에 혼자 앉아서 곰곰히 생각한 끝에 이렇게 마음먹고 다시 승승을 따라갔다. 산상에 이르러,

“선생님, 재가 줄을 끊었습니다. 줄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도제가 물었다.

“줄은 필요없이, 뛰어 내려가지.”

학태고가 천암만학(千岩萬壑)을 거침없이 뛰어 내렸다. 나는 새와 같이 몸이 경쾌했다.

학태고는 이미 성도한 사람으로서 줄을 끊는 순간 그는 이미 범체를 해탈한 것이었다. 지금 도제의 앞에 나타난 것은 도법을 나태내어 사람으로 하여금 신선이란 능히 배울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할 따름이었다. 그의

도제가 스승이 뛰어내린 것을 보고 내심 놀라면서 수일동안 기다렸으나 스승은 다시는 올라오지 않았다.

유장생은 색마를 수련할 목적으로 소항주를 찾아갔다. 그 곳에 미인이 많다는 말을 듣고 그는 몇 개의 단단한 돌을 쳐서 금과 은을 만들고 도인의 옷을 벗고 값진 의복을 사 입고 흥청거리며 화류계로 들어갔다. 술개의 족속들이 반가이 영접하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내 이름은 장생자, 본적은 영산, 광산업을 하는 사람인데 소항주는 처음이다. 이곳에서 제일가는 미녀를 데리고 오너라.”

술개들은 천상에서 재신보살이나 내려온 양 아양스럽게 그를 맞아들여 제일가는 미인에게 안내했다. 이 미인은 소항주에서 제일가는 기생으로 천하일색에다 노래, 춤, 음악, 미술등은 물론 멋들어진 시도 쓸 줄 알았다. 이름은 사옥으로, 유장생의 모습이 산뜻하고 언어가 친절하고, 아량이 커 재물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고 이런 좋은 손님이 또 다시 없으리라 여겼다. 그래서 있는 매력 없는 애정을 다 바쳤다.

“태산이 무너져도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태산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는 까닭이요, 미인이 내앞에 와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은 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미인이 와도 오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는 까닭이다.”

유장생은 왕중양 선생의 이 훈화에 따라 그는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서 아무런 생각도 없었으며 색마저 침입할 여유가 없었다. 사옥이 아무리 천태만상으로 애정과 풍류를 다해도 그의 마음을 건드리지 못했다.

마음은 이 몸의 주인공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전하라고 이르는 것이다. 마음만 동하지 않으면 이 몸은 사람없는 빈 집과 같아 고요하다. 그밖에 의식도 사념도 모두 마음의 분부에 따라 배치되는 것이다.

마음은 임금이요. 의식, 사념들은 신하이므로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들이 감히 동하지 못한다. 그러나 눈과 귀는 선동꾼이어서 아름다운 색을 보거나 소리를 들으면 곧 마음에다 보고한다.

장생자는 이런 마음을 조심조심 받들어서 눈, 귀의 이야기를 믿지 않게 하고 큰 일을 저지르지 않게 했다. 그는 사옥이와 한 자리에서 한 배개를 베고 자지만 마음이 동하지 않으므로 냄새가 끄는 고깃덩어리와 분바른 해골이 나란히 누어 있을 뿐 아무런 재미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울긋불긋한 빛이 눈으로 들어오고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므로 장생자는 눈, 귀를 잘 훈련시켜 그들을 보아도 보이지 않게, 들어도 듣지 않게 하는 방법을 훈련시켰다. 그러한 방법을 열심히 배워서 소경인 체, 귀먹어리인 체 했다. 장생자는 사육이와 같이 자고 같이 다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용무가 있는지, 그가 자기인지 자기가 그인지 분별이 없었다.

유장생이 마음, 눈, 귀 세분을 잘 다스린 관계로 세 분도 그가 요정에서 신선을 닦아 이를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환경이나 형상에 구애를 받지 않았다.

그는 늘 기생의 방에서 놀았다. 기생들도 그에게는 돈 요구나 하고 장생자의 머리에 꽃을 꽂았다. 그리고 꽃단진인이라고 부르며 장생자의 옷을 벗기고 여자옷으로 갈아 입히려고 단추를 파헤치는 순간, 별안간 문 밖에서 기침소리가 들리고 한 스님이 들어오는데 검둥이었다.

수염이 짙막하고 눈이 크고 눈썹이 영성하고 이마에 코가 달린 괴상망칙한 모습이였다. 여자들이 놀래어 장생자의 등 뒤로 가 숨어서 숨도 쉬지 못했다. 이 검둥이 스님은 바로 달마조사였다. 남해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항주에서 자색기운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그 기운이 요정집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신선이 강세(降世)하여 화류계에서 헤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가 가서 제도해야겠다고 결심하고 화류계로 들어온 것이다. 그때 마침 여자들이 장생자에게 꽃을 달아주고 옷을 갈아 입히려고 알맞은 치마, 저고리를 고르고 있던 차에 그가 들어온 것이다.

장생자는 얼른 보고 그가 이인(異人)임을 알고 바빠 일어나서 읍하고 앉기를 청했다. 책상 위에 주전자가 있었는데 장생자는 주전자를 얼른 자기 배 위에 얹어 놓고 진화(眞火)운동을 일으켰다. 삼시간에 주전자 안의 물이 끓어 올랐다. 거짓말 같은 사실이었다. 물이 다 끓은 후에 차 잎사귀를 끓인 물에 탫다. 그는 차를 두 손으로 받들어 달마조사께 드렸다.

여자들이 진화작용을 보고 놀라 일제히 기괴한 요술이라고 외쳤다.

“이것은 요술이다. 오행 중에 하나인 진화(眞火)의 작용이다. 나는 나의 배위에서 빵을 구어 낼 수도 있다.”

장생자가 말하자 여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실제로 빵을 익혀 보라는 것이었다. 장생자는 빵을 받아 배위에 얹어놓고 좌측을 세 번 우측을

세 번 운전했다. 빵은 벌써 익었다. 다시 옆구리를 몇번 돌려가며 운전했다. 그런 후 여자들에게 먹어보라고 내 주었다. 너도 한쪽 나도 한쪽 다 나누어 먹었다.

달마는 세상을 간파한 사람으로서 만사가 그의 마음에는 텅 빈 것이었다. 그러므로 남가 우승열패를 비교하지 않았다. 이것이 대도인 것이다. 그리고 매우 광대하게 길러온 자비심이 있었다. 이것이 불성(佛性)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만일 소양이 천박한 인물이라면 이 때 응당 도술을 부렸겠지만 그의 마음이 조금도 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도술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좋은 법이시구료 하하하.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배우지요.”

그는 장생자와 악수를 나누고 헤어지려고하였다.

“동토로 오는 길은 알았는데 서천으로 가는 길을 왜 모르는가? 내 마음이 어두워서 그리워도 그리워도 못하는 내 집.”

달마가 장생자에게 시를 읊어 주었다.

“텅텅 비어 아무 것도 없는 세상인데 일념이 잘못되어 길을 모른다. 이 몸이 임자가 없는데 내 집이 어디라고 찾아가리요.”

장생자의 시이다.

이 시로써 그가 요정에서 수행 중임을 알고 다시 말을 앓고 표연히 사라졌다.

한편 왕옥양은 남쪽으로 가서 도우 중 유장생이 요정에 오래 있으므로 마음이 혼미해진 것이 아닌가 염려되었다. 앞서 고헌에서 장생자가 색마를 수련하기 위하여 소항주로 간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내어 빨리 산림으로 돌아가기를 권고하려는 것이었다. 이날 왕옥양이 소항주로 와서 몇군데 요정을 들어다녔으나 찾지 못하다가 유장생이 머물러 있는 그 요정앞에 이르러 두 여자가 서 있어 물어보니.

“호호호, 이 분도 도장님이신가봐, 배위에서 차를 끓이고 빵을 구워내는 손님을 만나시려는거요?”

둘이서 웃으며 말하였다.

“그래 그이를 만나러 왔소.”

“저를 따라 오십시오.”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왕옥양이 따라 들어갔다. 앞서 찾아온 스님이 도복을 입고 철장을 가졌는데 왕옥양도 도복을 입고

철장을 가졌으므로 그들은 그가 장생자를 만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며 왕옥양을 안내하였던 것이다.

과연 장생자가 천하일색 미인과 침상에 나란히 앉아 즐기고 있었다. 그 모습이 우스워서 책상위에 성냥불을 켜서 장생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는데 불이 장생자에게 가지 않고 여자의 얼굴에 스쳐서 연한 실을 태웠다. 사육이 깜짝 놀라 얼굴을 문질렀다.

“누가 불장난을 해?”

“색마가 내게 시비를 거는가봐.”

유장생이 웃으며 말하였다.

“아니야. 네가 색마에게 시비를 거는거야.”

왕옥양도 웃으며 말했다.

“그대가 나를 색마라고 한다면 내가 색마가 되어 성냥<sup>ㅂ</sup>루로 남의 얼굴을 태우는 마와 비교해 보는 것도 심심치 않을거야.”

왕옥양이 유장생에게 찾아온 뜻을 이야기 하려는데,

“어서 바빠 초국으로 돌아가시오. 그대를 고대하는 이가 있어요. 그이를 만나서 같이 피안에 오르시오.”

유장생이 왕옥양에게 가기를 재촉하였다.

“사형은 언제 가지겠어요.”

왕옥양이 물었다.

“갈 때가 되면 나도 가지요. 시일을 물을 것 없어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왕옥양은 요정을 떠났다.

초국을 향해 가는 길에 담장진을 만났다.

“분주한 것이 쓸데 없고 정양하는 것만이 유익하다. 외공을 그만두고 내공을 쌓자.”

두 사람이 같이 운몽으로 들어가서 수년동안을 수련해서 정과를 이룩했다.

담장진은 4 월 1 일, 왕옥양은 4 월 20 일 각기 성도했다. 유장생은 요정에서 색상을 없애고 소항주를 떠나서 동로로 들어갔다. 입산저양하여 가태 3 년 계해 2 월 8 일 성도했다. 저저로는 「진수집」이 있다. 학태고는

태화산에서 다년간 수양해서 을축년 11 월 30 일 성도했다.  
저서 「태고집」이 있다.

손불이는 낙양에서 12 년 동안 고수(苦修)하여 대도가 성취되고 변화가 무궁하였으나 마단양은 여전히 집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손불이는 그렇게 해서 성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를 지점(指點)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다가 ‘내가 낙양에 있는 동안 사람들이 모두 나를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므로 내가 인심을 감화시키려면 그들에게 나의 도술을 보여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가마 속에서 나와 버드나무 가지를 두 개 꺾어서 입으로 진호흡(眞呼吸)을 불어 넣고 사람으로 변하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버드나무 가지가 곧 한 쌍의 남녀로 변했다. 그들은 팔을 끼고 지껄이며 성안으로 들어갔다.

낙양 사람들은 미친 여자가 어떤 이름모를 사내를 데리고 팔을 끼고 허리를 비꼬으며 거리를 횡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욕을 해도 가지 않고 때려도 가지 않았다.

낙양 거리는 나라의 수도로서 예부터 예의 질서가 정연해서 정숙하고 아담한 것이 자랑거리였는데 꼴이 비슷한 무례한 남녀가 떠돌아 다니며 풍기를 문란케하고 도시미를 손상하는 것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었다. 이에 그들은 낙양 현주에게 진성서를 올렸다.

『중기숙정 가로정화에 관한 진정의 건』

위 진정사실은 수년전 원방에서 온 한 정신 이상한 여자가 성외의 부서진 요내(窯內)에서 서식하므로 아등(我等)은 동정의 일념에서 동 여자를 구축(驅逐)하지 않고 항상 음식을 급여하여 그 생활을 부지하게 해 왔는데, 금반 동 여자가 남자를 대동하고 낙양의 거리를 횡행하며 담소화락하여 구축하나 듣지 않으므로 실로 불성모양이 되었습니다. 낙양은 나라의 수도요 동서남북의 요충으로서 어찌 이런 추태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외방의 조소를 초래할 것이오니 현명하신 현주께서 이 괴담 요녀를 일소해 주시옵기 바랍니다.

』

낙양 현주가 진성서를 보고



『이른바 정신이상이란 본성을 잃고 인사를 살피지 못하므로 범사를 용서받는 것이다, 진정성에 의하면 이 여자는 본성이 완전하면서 정신이상을 가장한 것이다. 남녀가 손을 잡고 다니는 것은 예법이 아니요. 입술을 맞대는 것은 풍기를 크게 문란케 하는 것이다. 백주에 이같이 하는데 야간에야 더 말할 것도 없다. 가로는 남녀가 희롱하는 곳이 아니요, 기와굽는 가마는 음행을 장려하는 처소가 아니다. 곧 구축해서 안가면 그 형적을 진멸하라. 그 소굴에 돌아온 순간을 엿보아 한 수레의 장작을 아끼지 말고 불을 붙여 태워서 그들을 없애라.』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유지들은 장작 한 수레를 싣고 기와 굽는 가마에 도착했다. 그때 마침 미친 여자가 남자와 손을 잡고 가마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 때를 놓 칠세라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장작을 들고 뛰어갔다. 순식간에 가마는 장작산이 되었다. 불이 붙었다. 화염이 맹렬하게 오르고 불개미가 어지러이 날렸다.

그때 별안간 가마 속에서 한가닥 짙은 연기가 공중으로 솟아오르더니 오색상운이 되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 세 신선이 뚜렷하게 앉아 있는 것이었다. 가운데 앉아 있는 신선이 낙양성 가로에서 방황하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녀는 구름 위에서 낙양성안 여러 유지에게 말하였다.

“나는 일개 수행인으로서 고향은 산동으로 성은 손 이름은 불이입니다. 정신이상을 가장하고 이곳에 은신해서 수련한지 12 년만에 대공이 성취되었습니다. 화력을 빌어서 상계에 오르고저 버드나무 가지로 남녀 한쌍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를 상계로 보내 주시니 마땅히 이 고장의 행운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 한쌍을 여러분께 보내드리어서 사실을 증명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좌. 우측 두 신선을 구름 위에서 아래로 밀어뜨렸다. 여러 사람이 놀라 영접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손안에 들어온 것은 과연 버드나무 가지였다. 그들은 그제야 도술이 신묘함을 알고 모두가 어처구니 없어서 크게 웃었다. 다시금 그 여자가 어찌 됐는가 싶어 바라보니,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점차 작게 보였다. 처음에는 달걀만 하더니 나중에는 보이지 않았다. 여러 사람이 공중을 향하여 절을 하였다.

그후 몇 해동안 낙양은 과연 우순풍조(雨順風調)하고 시화연풍(時和年豐)했다. 여러 사람이 그의 덕을 감사히 여겨서 삼신선당을 세웠다. 여기서 자비를 빌면 꼭 감응이 있었던 것이다.

한편, 손불이는 산동 영해현 마가장으로 돌아왔는데...

손불이를 본 마흥이 얼른 나와 영접했다. 손불이가 대청에 올라가서 앉으니 마흥이 원외에게 알렸다. 마단양이 나왔다.

“손도우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지요?”

“사형은 어떤 고통을 염려하시나요? 우리의 고통은 수행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안 받고는 수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새 여러 가복들이 와서 인사를 했다. 손불이가 정답게 그들에게 답했다. 이날 밤 마단양과 손불이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참선을 했다. 마단양은 하루 밤새 여러 차례 자리를 떠났으나 손불이는 꿈쩍않고 밤을 새웠다.

“손도우의 참선공부가 나보다 깊은가 봐요.”

“참선공부만 당신보다 깊은 것이 아니라 도술도 당신보다 훨씬 세겠지요.”

손불이가 일부러 마단양을 괴롭히는 것이었다.

“손도우는 나를 그렇게 가소롭게 보지 말아요. 나도 돌을 지점해서 은을 만들어 낼 수 있다구요.”

“당신은 돌을 지점해서 은을 만들어 내시지만 저는 돌을 지점해서 능히 금을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금, 은으로 생사를 사겠습니까? 다 쓸데 없어요. 옛날에 순양여조가 종리노조를 따라서 도를 배우는데 노조가 비단으로 뭘지 모를 수십 근이나 되는 물건을 싸서 순양여조로 하여금 지고 다니게 했답니다. 귀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삼년동안을 지고 다녔는데 너무 무거워서 볼기가 움푹 패여 들어갔더랍니다. 그래도 순양여조는 원망하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하루는 노조가 순양여조로 하여금 그 비단으로 싼 물건이 무엇인지 풀어다보게 했는데 풀어보니 하잘 것 없는 돌덩이였어요. 그래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더랍니다.

“이것이 보잘 것 없는 돌이지만내가 지점하면 금이 된다. 네가 3 년동안 지고 다닌 보람이 있으리라.”

노조가 이렇게 말하고 돌을 지점하자 황금이 되더랍니다.

“내가 돌을 지점하여 금이 되게 하는 법을 네게 전해줄까?”

하고 노조가 물으니

“돌을 지점해서 된 금이 영구히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순양여조가 묻더랍니다.

“지점하는 금은 진금과 같지 않다. 진금은 시종여일하지만 지점한 금은 오백년 후에 다시 돌로 변한다.”

노조께서 말씀하시자

“그러면 제자 배우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더랍니다. 그러자 “그대의 수도를 내가 못따르겠다. 수도의 성과도 물론 나보다 더 높다.”라고 종리노조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이 이야기로 미루어 본다면 돌을 지점해서 금이 되게 하는 도술이란 후세에 해를 끼칠 뿐이지 수도에 아무 이익도 없는 것이지요.”

손불이의 이야기를 듣고 마단양은 묵묵히 말이 없었다.

이튿날 손불이가 큰 솥에 물을 끓여 방안에 들어와 마단양에게 목욕하기를 권했다. 그가 진리를 깨치지 못하므로 충동하려는 것이었다.

팔월이라 날씨가 아직 더웠다. 끓인 물에서 더운 김이 솟아 올랐다. 마단양이 손으로 끓인 물을 만져보았다. 너무 뜨거워서 살이 부풀어 오를 정도였다.

“아이구 뜨거워라, 안되겠군요.”

“이제껏 무엇을 배우셨어요? 이만한 수련밖에 못하셨습니까?”

손불이가 옷을 벗고 뜨거운 물에 몸을 적시면서 목욕했다. 그리고 옷을 입고 앉았다.

“우리가 같은 스승에게 같이 도를 배웠는데 어째서 그대는 잘 배우고 나는 못배웠는가요?”

마단양이 물었다.

“스승님이 전해주신 것은 하나이지만 수련하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저는 낙양에서 12 년동안을 고수고련(苦修苦煉) 했으므로 묘법을 알았고. 당신은 집안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한칸 방에서 촌보도 떠나지 않고 고된 수련을 하지 않았으므로 묘법을 모르는 것이지요.”

“스승님이 귀공하신 후로 집을 지킬 사람이 없어서 내가 멀리 가지 못했는데 이제 손도우가 돌아왔으니 집을 맡기고 나도 출가수도 해야겠어요.”

그날밤 마단양은 도복을 입고 날이 새기를 기다려 여러 사람이 자는 틈을 타 아무도 모르게 집을 떠났다. 마단양이 집을 떠난 것을 보고

손불이는 그가 집을 떠나지 않고는 성도하지 못할 것인데 집을 떠났으므로 많은 전재를 남겨 둘 필요가 없었다.

왕중양 선생이 귀공 후에도 마단양은 많은 전재를 저축하였는데 손불이는 그 돈으로 무너진 다리도 보수하고 도로도 포장하고 빈민도 구제하고, 마명의 아들을 양자로 세워 마원외의 집 계통을 이어가게 했다. 손불이는 이렇게 모든 일을 정리한 후 태산 옥녀봉으로 들어가 수년동안 만사를 다 버리고 수련하여 12월 19일에 성도하였다.

한편 마단양은 영해현을 떠난 후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고 당황해 하였다. 그러나 사람은 근본만 잊지 않으면 자연 묘한 생각이 나는 법. 그는 협서에 갈 작정으로 서쪽을 향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장안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구장춘 도우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보였다. 그래서 반가운 생각에 그가 구장춘인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았으나 “구도우!”하고 불렀다. 글자 부르는 소리를 들은 그 사람이 비호같이 그 앞으로 달려 왔는데 과연 구장춘이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길가에 나란히 앉았다. 마단양이 구장춘의 수련기간, 장소, 방법을 물었다.

“사부의 묘소가 있으므로 항상 여기에서 멀리 떠나지 못했어요. 본성을 수련하는 공부도 늘 버리지 못했어요.”

“선생님은 대도를 성취하신 분이므로 죽음이란 있을 수 없는 문제지요. 다만 사람들의 형상에 집착하는 망상을 끊게 하기 위해서 형상을 바꾸신 것 뿐이지요. 그대는 선생님이 참으로 죽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성을 수련하는 것은 내공이고 말과 행동은 외공이므로 내외공을 겸수해야만이 묘법을 아는 것인데 그대는 지금 언행의 수련을 포기하고 본성만을 수련하는 것은 아닌가요?”

구장춘이 마단양의 말을 듣고 확연히 깨달았다. 과연 그는 수년동안 이런 경향을 따라 온 것이었다.

“사형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저는 죽도록 깨치지 못할 뻔 했어요. 도우님의 말씀으로 인해 제 심중의 모순당착(矛盾撞着)이 갑자기 열린 듯 합니다. 이는 실로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산동에서 선생의 영구를 모시고 오던 도중 누런 옷을 입은 선생과 대면한 사실을 마단양에게 이야기했다.

“그대는 자취와 빛깔을 감추지 못하고 한갓 총명을 드러내므로 칠인 가운데 맨끝에야 성도하겠다고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죠. 능히 자기를 반성하고 아는 것과 슬기로운 것을 드러내지

않고 단순하고 솔직한 참된 마음을 지킨다면 선생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모조리 그대에게 전해 드리겠어요.”

구장춘이 듣고 기쁨을 억제하지 못했다. 구장춘은 마단양을 안내하여 대위촌에 이르러 선생의 사당에 배알하고 다시 종남산 밑의 묘소를 참배했다. 그런 뒤에 두 사람은 형향으로 갔다.

구장춘은 전과 달리 형적을 감추고 재치를 드러내지 않았다. 마단양은 그에게 묘법을 전해 주었다. 구장춘은 부지런히 묘법을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초국은 변화해서 협서와 같지 않고 인심이 메마르므로 마단양이 구장춘을 대동하여 양하에서 사곡으로 갔다.

두 사람은 차가운 옛 사당에 들어가서 이불 하나를 깔고 둘이 같이 앉았다. 처음 구장춘이 마장가에 도를 배우러 왔을 무렵에는 이불도 없고 다른 아무 것도 없었다. 그 후 왕중양선생을 따라 강남으로 갈 무렵 마단양이 자기 이불과 철장을 그에게 주었다. 그 후 선생의 영구를 모시고 갈 무렵 그 이불에 도복을 싸고 관 위에 얹어서 협서까지 갔다.

그 후 도복은 오래 입어서 구멍이 뚫어지고 이불은 아직 헐지 않았다. 왕중양 선생이 마가장에 계실 때 철진을 위하여 이불 일곱 채가 필요한 것을 알고도 여섯 채만 마련한 것은 훗날 이불 하나로 둘이 나눌 시기가 올 것임을 알고계셨던 것이다.

마단양은 집에서 사용하는 요 이불이 있으므로 이불을 새로 마련하지 않았고, 또한 집을 떠날 때는 바쁘게 서둘러서 옷이 헐면 갈아입을 옷과 돈만 조금 가지고 나왔을 뿐이었다. 그런데 구장춘과 만나게 된 무렵에는 돈이 다 떨어졌으므로 구장춘이 시주해 온 것으로 생활을 유지하였다.

한 사람이 시주해 온 것으로 생활을 유지하므로 이불을 새로 마련할 여유가 없어서 두 사람이 한 이불에서 등을 맞대고 앉은 것이다. 수행인은 안락한 생활을 구하는 것이 아니를 빠듯한 생활을 유지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단양, 구장춘이 사곡의 옛 사당에서 지내고 있을 때 그날 밤 많은 눈이 내렸다. 평지에 눈이 석 자쯤 쌓여 사곡의 첩첩산중에 있던 그들이 인가가 있는 곳까지 음식을 얻으러 가지 못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사흘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구장춘의 뇌리에 문득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마단양과 구장춘이 사곡에서 있을 때 눈에 막혀서 인가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마단양은 언제나 속에 있는 보배를 남에게 알리지 않는 사람이므로 그가 이미 도를 깨달았음을 구장춘이 알아채지 못하였다. 그래서 구장춘이 알아채지 못하였다. 그래서 구장춘은 다만 그가 부자집 출생으로서 이런 기아를 처음 당하리라 생각하고 마단야을 위해 백난지중이라도 인가를 찾아가서 죽을 얻어다 공양하려 하였다.

구장춘이 사당문 밖으로 나가 살펴보니, 태산 꼭대기에 구름이 가로 놓여 있고 천산에 눈이 가득하여 인가가 보이지 않았다. 길이 모조리 눈에 덮여서 자취를 찾아볼 수 없었다. 만일 함부로 가다가 깊은 골짜기에 빠지면 죽을 얻어오지 못할 뿐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사당으로 돌아와서 눈이 그치고 길이 보일 때까지 허기를 참았다.

하루는 길에서 마단양이 나뭇가지를 꺾는 사람에게 낫을 빌려 이불을 자라서 둘로 만들고 낫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었다.

“이불 하나를 둘로 쪼개어 그대 하나 나 하나 가지고 각기 자기의 수도에 전력해서 시근종태하는 일이 없기로 하세.”

마단양이 구장춘에게 이렇게 말하고 혼자길을 떠났다. 구장춘이 이별하기가 아쉬워 뒤를 따라갔다.

“날이 저물었는데 사부는 어디로 가시는거요?”

나무꾼이 나무위에서 구장춘에게 물었다.

“사형을 따라가오.”

그 사람이 나무 위에서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사람 종적이란 어디에도 없었다.

“이 길로 가셨어요.”

구장춘이 가운데 길을 가리켰다.

“이 길은 저 멀리 천리 밖을 살펴보아도 사람이란 한 사람도 없군요. 날이 다 저물었으니 내말대로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나가서 찾아보시구려.”

“도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좀 불러봐 주십시오. 사람이 안 보이더라도 소리를 듣고 되돌아오실런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나무위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도장~. 어서 이리 오세요. 혼자 가시면 안돼요.”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 사람은 나무에서 내려와 집으로 갔다.

한편 마단양은 공부가 원만했으므로 구장춘과 이별하여 그로 하여금 스스로 수행하여 공부를 완성케 할 목적이었다. 만일 한 곳에 같이 있으면 그의 앞길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다.

이 날 마단양은 사당집에서 나온 후 토둔법으로 하남 승산에 이르러서 정양 중 원조 가태 갑자년 12 월 27 일 성도했다. 「수진어록」이란 저서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칠진 가운데 오직 구장춘만이 아직 공부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는 마단양과 이별하고 혼자 수련한 후로 더욱 노력을하여 아홉가지 원을 세우고 망념소멸을 맹세하는 시를 지었다.

『망념이 일어날 때 막아내기 어렵다.

굶주리면 밥을 생각하고 목 마르면 물을 생각한다.

모든 망념이 깨끗이 소멸되면 목은 창자가 바뀌어 새 창자가 된다.

남의 재물을 함부로 갖거나 먹으면 이내 입에 창병이 생기리라.

모든 망념을 모조리 깨끗이 소멸되면 마음이 비고 비어 간직한 것이 없다.』

구장춘이 이 시를 쓰고 마음에 매우 만족하게 여겼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이 시에 표명한 관념이 차츰 희박해졌다. 그래서 그는 가게에 들러 널조각을 사서 이름표보다 더 크게 만들어 그것에 시를 써서 차고 다녔다. 언제든지 보고 마음에 경계하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망념을 없애려 해도 말끔히 없애지지 않아 이제 패를 만들어 썼다.

『망언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망탐 망상을 모조리 소멸한다.

남의 돈을 함부로 받으면 이내 손을 끊고

남의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이내 입에 독창이 생기리.

칠정육욕이 생기지 않도록 때때로 나의 신변을 점검한다.』

구장춘은 이 표를 허리에 차고 하루에도 두 세 번씩 살펴보았다. 망념을 없애는 공부가 점차 익숙해졌을 무렵 하루는 하동지방에 도착했는데 길가가

매우 한적하고 격식이 있는 농가가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안에서 어린 종이 나왔다.

“나는 멀리서 온 나그네인데 인정 많은 이택에 밥 한 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린 종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얼마 안되어 차판에 음식을 들고나와 문앞 댕돌위에 놓고 구장춘에게 권했다. 구장춘이 앉아서 막 먹으려고 할 때 문득 머리가 반쯤 흰 50 세가량의 노인이 안에서 나와 구장춘을 바라보고는 차판에서 만두 두 개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어린 종에게 도로 가져 가게 했다. 밍살스런 노인이라고 생각한 구장춘은 기분이 나빴다.

“이 소년이 차판에 만두를 들고 나와서 빈도(貧道)에게 성의를 표하는데 어째서 도로 가져가라고 하십니까? 만두가 아까워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빈도(貧道)가 그것을 전부 먹을 복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노선생은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밥 한 끼 공양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도장이 그것을 먹을 복이 없는 까닭이요.”

“내가 밥 한 끼 먹을 복도 없는데도 필연 그 곡절이 있을거요.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마의상법을 배워서 정통한 후 강호에 널리 다니며 사람의 궁통수요(窮通壽夭)와 영고득실(榮枯得失)의 운명을 호불차착(毫不差錯)이 없이 단정했으므로 세상에서 나를 신인마의라고 불려왔지요. 아까 도장의 상을 보니 밥을 배부르게 먹을 복이 없더군요. 그래서 조금씩 먹어서 끼니를 지속하는 편이 좋을 듯 해요. 이것이 도장에 대한 나의 호의요.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요.”

“노선생이 정말 나의 사주를 똑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수행해서 성도할 수 있겠는지 다시 한 번 상을 잘 봐주십시오.”

노인이 다시 구장춘의 상을 살펴보았다.

“성도 못해요. 성도 못해. 그대의 코밑에서 두 개의 줄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입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등사가 입에 자물쇠를 채운 것이라고 해서 응당 아사할 운명이지요. 다른곳은 다 좋지만 이 액을 면치 못하겠지요?”

“그렇다면 참 곤란합니다. 어떻게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고치다니 어떻게 상이란 일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니 죽으면 고쳐지지요. 그대의 부귀, 빈천, 출가, 불출가를 막론하고 타고난 팔자는 피할 수도 없고 푸는 법도 없어요. 내가 아사한 사람의 예를 두 가지 들어서 이야기 할태니 들어보시오.

열국시대에 무영왕이 아사할 상이었는데 그가 적어도 일국의 왕으로서 어찌 아사했는가 하면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서로 왕위를 다투어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부친의 애정이 공평하지 못함을 규탄하는 마음에서 궁문을 굳게 닫아 파수병을 세워서 무영왕을 못 나오게 하고 양쪽에서 살육을 시작하여 두 달동안 해체되지 않았어요. 궁중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궁인이 모두 굶어 죽게 되었고 무영왕은 7 일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했어요. 무영왕이 궁전 나무위에 참새집이 있는 것을 보고 참새새끼를 잡아 먹으려고 나무위에 올라갔으나 참새는 다 날아가고 없고 참새알 하나만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려는 순간 어디서 어미 참새가 날아와서 날개를 퍼드덕하는 바람에 무영왕이 그만 그 새알을 놓쳐 버렸어요. 아사할 팔자는 새알 하나도 먹지 못하고 결국 아사하게 된대요.

한성제군때에 정통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상사(相士)가 보고 응당 아사하리라고 말했대요. 하루는 정통이 한성제를 배알하고,

“신 정통이 벼슬살이에 청렴하여 집에 사사로이 저축한 것이 없사온데 신이 응당 아사하리라고 상사(相士)가 말하오니 신의 집이 이렇듯 담박하여 생각하옵건데 신이 후일에 응당 아사하올까 두렵습니다.”라고 아뢰니 한성제군이 대답했어요.

“경은 두려워할 것 없소. 짐이 이렇게 부귀를 누리고 있으므로 상사(相士)의 말이 그렇다면 짐이 운남국 동산을 경에게 주겠으니 구리를 파내어 돈을 주조하면 일 년에 십만 동전을 얻고 십년이면 백만이 되리니 어찌 아사 하겠는가?” 그래서 정통이 아사를 면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래지 않아서 한성제가 왕위를 버리고 태자가 등극하자 문무백관이 정통을 규탄하여 노왕을 속이고 사복을 채우려고 국가의 동산을 동전을 주조해서 사용하니 그 죄가 막중하다고 아뢰었대요. 후주가 상소를 보고 심중에 우려하여 형부관으로 하여금 그의 가자를 몰수하고 선재의 구신이라는 명목상 죽이지 않고 옥중에 가두었지요. 그런데 옥관이 다시 상소하여 음식을 주지 않으므로 정통이 8 일동안 굶고 사경에 이르러 물 한 컵만 달라고 애걸하자 옥졸이 동정하여 물을 들고 가는데 옥관이 보고 고함치는 바람에 놀래어 그만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놓쳐 버렸지요. 그래서 아사할 팔자는 물한컵 못 마시는 거요. 결국 아사했으니 상법이 이렇게 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러므로 백의숙제는 운명을 알아서 자진해서 수양산에서

아사했고 야무제와 후진왕 부견은 운명을 몰라서 한 사람은 대성에서 아사하고 한 사람은 오장산에서 아사했지요. 운명을 알거나 모르거나 아사하고 말아요. 도망치지 못해요.“

구장춘은 낙심하여 불타오르던 수도의 일념도 냉각되어 재가 되었다. 그의 일편단심이 무너지고 녹아내렸다. 그래서 그는 신선이 되기를 단념하고 서진으로 돌아왔다.

구장춘은 백이숙제와 같이 운명을 알고 천심에 순응하자는 것이었다. 신선이 못될진대 성인을 배우자는 것이었다. 그의 인품이 역시 비범하여 하루는 서진에서 어느 계곡을 따라 올라갔다. 양쪽에는 높은 산이 있고 중간에는 깊은 시냇물이 있으며 계곡의 양언덕에 암석이 착족하여 사람의 내왕이 끊어진 으스스한 오솔길 옆 크고 편편한 암석을 골라 누웠다. 7 일 낮과 밤을 물 한모금 마시지 않고 굶어 죽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쉽사리 되지 않았다. 보통 사람이면 벌써 죽었을 것이다.

9 일째 되던 날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냇물이 넘쳐흘러 구장춘이 누워있는 바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죽기를 원하는 사람, 운명에 만족감을 갖고 상법을 시험해 보려는 사람으로 살길을 찾을 필요가 없었으므로 그대로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가 만일 자기의 운명에 불만을 품었다면 벌써 물속으로 뛰어 들어서 기아를 참는 고통을 면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큰 복숭아 한 개가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려오다 수력을 따라서 구장춘의 면전까지 흘러가지 않았다. 복숭아는 수중에 넣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무영왕이 죽을 때 새알 하나를 먹지 못했고 정통이 죽을 때 물 한모금 마시지 못한 것을 상기하고는

“나도 지금 사경에 있는데 복숭아를 먹을 수 있을까?”

구장춘은 물에 떠내려온 복숭아를 보고 자신이 아사할 운명이라면 그것을 보곤 못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시험해 보려 하였다. 그는 복숭아를 집어서 먹었다. 향기롭고 맛이 비상히 좋았다. 먹은 뒤에는 정신이 매우 시원학 기갈이 갑자기 풀리고 냇물도 다시 줄어들었다.

본래 복숭아를 보내올 목적으로 냇물이 불어났던 것이다. 구장춘이 복숭아를 얻었으므로 냇물은 더 흐를 필요가 없었다. 일륜홍일이 밝게 비추었다. 그는 전신에 땀이 흘렀다. 그는 누워있기가 편치 않아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자기의 운명은 물에서는 죽지 못하고 높은 산꼭데기에 가야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이 한생각이 요미에게 붙잡히면 일평생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인은 죽음도 인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생사에 집착하는 것이 흑인과 마찬가지로 유에도 무에도 집착않고 유무를 다 공한 것, 허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마가 침입하지 않고 마음이 안온 정적하게 되는 것이다.

구장춘이 진령에 오르니 산꼭데기에 넓은 사당이 하나 있었다. 사당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깔고 누웠다. 또다시 9 일동안 굶었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

하루는 숲이 넘어가려는 순간인데 밖에서 사람의 이야기소리가 들려왔다. 또다시 구장춘을 살려줄 사자가 온 것이다. 구장춘이 눈을 겨우 떠서 바라보니, 십여명의 장정이 문앞에 앉아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들어와서 구장춘을 살펴보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구장춘이 어느 한 지점에 시선을 집중하고 아무 말도 없자,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여기고 다시 말을 붙이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마른 가지를 주워와서 돌을 모아 술을 걸고 짐을 풀어서 큰 고깃덩어리를 꺼내어 술에다 삶아 익혀서 신전에 올렸다가 내려 다시 요리해서 형 아우 마냥 먹고 마시는 것이었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 진령산에서 길가는 사람을 터는 강도였다. 그 중 이름난 사나이로 일조벽, 이이웅, 삼장건, 사왕능, 오주구등이 있었다. 그들은 약탈한 금품은 신전에 올렸다가 나누어 가지고, 술이나 음식은 여기 가져와서 나누어 먹는 것이었다. 술이 얼큰하게 취할 무렵 “조형, 우리 형제들이 지금껏 악한 일만 주로 해왔는데 오늘 우리가 갑자기 선한일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왕능이 조벽에게 물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지. 동생이 말한 선한 일이라면 하지.”

“저 사당안에 까무러진 저 도승은 내가 보건대 병이 아니고 오래 굶어서 그리된 것 같은데 죽을 끊여다 먹여서 그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면....,”

“음, 좋은 일이야. 친구들 어서 가서 빨리 죽을 끊여라.”

조형의 말이 떨어지자 어느새 죽을 끊여서 구장춘에게 권하였다. 구장춘은 먹지 않았다. 그들이 구장춘을 붙들어 일으켜서 머리를 받치고 한꺼번에 죽 두 그릇을 떠 먹었다.

구장춘은 금방 배가 부르고 전신에 온기가 돌았다. 음부에서 양계로 돌아온 것이다.

“나의 목적이 곧 이루어졌는가 했더니 당신들을 만나서 이름없는 음식을 먹었으니 또 고생을 겪게 되었어. 살자니 고생이요. 죽자니 역시 고생이란 말이야.”

구장춘이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말이 주구의 비위를 건드렸다. 주구가 허리에 찬 칼을 빼고 노기가 충천하여 칼로 구장춘을 겨누면서 꾸짖었다.

“네 이 멍청이 야도(野道)놈아! 우리 친구들이 성심껏 너를 살려준 은공은 모르고 뭐라고 중얼거리느냐? 이름없는 음식이라고? 네가 그렇게 죽기가 소원이라면 내가 이 한칼로 통쾌히 죽여주마.”

주구가 칼을 높이 들고 구장춘을 치려고 했다. 구장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배를 내밀고 탁탁치며,

“나를 치려면 딴 데를 하지 말고 배를 쳐서 창자를 꺼내어 당신들의 이름없는 음식을 돌려드리면 죽어도 원이 없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하하하, 노사부(老師夫)는 정신이 돌았습니다. 하하하, 남의 음식을 잘못 먹었다고 배를 갈라 그것을 돌려주겠다니 그런 엉뚱한 생각을. 나는 그런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 도대체 당신은 무슨 까닭에 죽기를 원하는지 그이야기나 들어 봅시다. 우리가 다 알아야겠어.”

주구는 구장춘을 상대가 안 되는 미친 사람으로 치부해 버렸다.

“나는 일찍이 마의 상사를 만났었는데 나의 상을 보고 아사(餓死)할 운명이라며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했어요. 나는 백이숙제와 같이 내 운명을 확인하고 천명에 순응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노사부(老師夫)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사가 걱정이라면 우리 형제들이 명하전을 거두어 모아 드릴테니 그것으로 어느 암자에 가서 살면서 제자 한 명을 두어 매일 시주를 거두어 양식을 많이 쌓아 두십시오. 왜 아사합니까?”

조벽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건과 이웅이 각기 자기 몸에서 돈을 꺼냈다. 세냥쯤 되었다. 나머지 사람들도 돈을 꺼내려고 하였다.

“그만 두십시오. 그만 두십시오. 나는 일평생 남의 돈을 가져 본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신다면 이 표를 보여 드리지요.”

구장춘이 몸에 찻던 표를 꺼내어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남의 돈을 함부로 받으면 이내 손을 자르고 남의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이내 입에 독창이 생기고....」

“우리들이 자진해서 드리는 것이므로 이것은 함부로가 아닙니다. 망령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에 해당되지 않아요.”

구장춘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므로 죄가 안된다는 점을 왕능이 강조했다.

“무릇 공이 없이 남의 돈을 받는 것이 까닭없는 또는 이름없는 돈을 받는 것입니다. 남의 이름없는 돈을 받아쓰고 남의 이름없는 음식을 받아먹는 것은 모두가 함부로 망령되어 갖는 것입니다.”

“국법을 따르다간 매맞아 죽고 불법을 따르다간 굶어 죽어요. 우리들이 동정해서 당신에게 몇 푼 안되는 돈을 드리려는데 당신이 죄가 무서워서 못 받는다면 남의 재물을 털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는 얼마나 클까요?”

주구가 물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이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전생에 조금도 남을 도와 주지 않았으므로 금생에 남의 공양을 못받는 것이요. 여러분은 전생에 남을 많이 도와주었고 또 남들이 여러분의 재물을 몰래 많이 가져 갔기 때문에 금생에 노상에서 서로 만나 이쪽은 터는 것이지만 저쪽은 이자 갖추어서 갚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빚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혹시 만나더라도 그대로 놓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장춘의 말을 듣고 그들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내생의 빛을 생각 안 할수 없었던 것이다.

“도장의 논리를 근거로 한다면 남들만이 우리에게 빚지고 우리는 남들에게 조금도 빚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금생에 우리가 남들을 털었으므로 내생에는 남들이 우리를 털게 된다는 말이 아닌가요?”

이웅이 말했다. 그들 13 명이 모두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우리들이 각기 다소의 금전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으로 작은 영업이라도 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은 이 기회에 부정한 길을 버리고 정도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조벽이 여러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는 구장춘의 제자가 될만한 큰 근기가 있는 사람이었다.

“형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요. 우리는 이 기회에 놓은 마음을 거두어야 해요.”

주구가 이렇게 말하고 칼을 멀리 숲속으로 내 던졌다. 그도 역시 구장춘의 제자가 될만한 의기의 남아였다.

“노사부는 훌륭하신 수행인이십니다. 우리 형제들이 앞으로 조만간 당신을 사부로 모시고 좋은 도법을 배우겠습니다.”

조벽이 구장춘에게 인사하고 일동이 떠났다.

조벽의 구원으로 해서 구장춘의 아사를 원하는 마의 일심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는 산에서 내려와 한달동안 시주를하여 쇠사슬과 자물쇠를 샀다. 그는 자기의 목적을 이룰수 있는 알맞은 장소를 찾았다.

사당집도 없고 길도 통하지 않는 나무숲속, 깊은 산중이라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렀다. 수목이 탕천하고 가지덤불이 짙차 있었다. 그는 쇠사슬을 큰 나무위에 걸고 한 끝으로 자기의 목을 감아서 자물쇠를 채웠다. 그리고 열쇠를 멀리 던져버려 어디에 떨어졌는지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나무밑에 누워서 이번에는 살아날 길이 없으리라고 안심했다.

그런데 그의 이런 행동을 상계에서 태백금성이 보고 있었다. 태백금성이 약캐는 사람으로 변해서 그의 앞에 나타났다.

“아아, 노사부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독한놈을 만나서 쇠사슬로 목이 잠기고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습니까?”

약캐는 이가 자꾸 물었다.

“당신은 어서 가서 당신 볼일이나 보시오. 남의 일에 간섭말고.”

구장춘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이 세상일은 이 세상 사람이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간섭 말라고 그러시나요? 나도 경위를 대강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심중을 내게 고백해 보श्य. 내가 자세히 이모저모를 분석해 보면 혹시 당신의 걱정을 풀어드릴지 누가 알아요?”

약캐는 사람의 말은 구장춘으로 하여금 밀져야 본전이라는 기분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응당 아사하리라는 신인마의의 단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고 또한 죽기를 원하다가 누차 구원받은 사실을 이야기 했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와서 내손으로 나무위에 쇠사슬을 걸고 내목에도 걸어서 영구히 살아나지 않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당신이 간섭말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의 모든 걱정근심이 애써서 풀 필요도 없이 저절로 풀릴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약캐는 사람이 대발일소하였다.

“하하하하, 어리석은, 정말 어리석은 미신집착...., 당신의 사소한 일념이 마에게 사로잡혀 이렇게 당신의 일생을 망치는 하늘 땅만큼의 큰 금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상(相)이란 보통 사람의 운명을 판정하는 것이지만 대선인이라면 상이 맞지 않고 대악인도 역시 상이 맞지 않아요. 상이란 내외의 차이가 있으므로 심상(心相)이 있고 면상(面相)이 있어서 면상이 심상만 못하고 팔자좋은 것이 마음씨 좋은 것만 못해요. 상이란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므로 마음씨가 좋으면 상도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대선인은 죽을 사람도 오래 살고 곤란한 일도 복되고 흉한 일도 길합니다. 상이란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므로 마음씨가 나쁘면 상(相)도 나빠집니다. 그러므로 대악인은 오래 살 사람도 횡사하고 복된 일도 해가 되고, 기쁜일도 걱정입니다. 상법비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대로 중후한 마음이 있는 집은 그 자손의 수복이 면면하게 길고, 대대로 경박한 마음이 있는 집안은 그 자손의 수명이 단축되고, 세상을 구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난할 팔자가 오히려 부귀해지고, 자기 이익만 취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부귀할 팔자가 도리어 간해지고, 곡식을 귀중히 여기면 아사할 상도 되려 잘먹고, 곡식을 헐사리 보면 잘먹을 상도 오히려 아사하고, 호생지덕이 있으면 자손이 많고 인자한 마음이 없으면 대를 이을 자손이 없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심상론으로 면상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신인마의가 따르지 못할 높은 상법이였다.

“더군다나 수도하시는 분들은 천지의 조화를 대신하고 음양의 묘리를 운용해서 하나의 범체로 신선을 이룩하는 것이므로 신선이란 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수련해서 이룩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능히 수련하여 신선이 된다면 어는 신선이 아사한 예가 있습니까? 당신이 생각하시는 바에 의한다면 살아서는 기민(飢民), 죽어서는 아귀, 살아도 쓸데 없고 죽어도 쓸데 없고...,”

약캐는 사람의 설유로 해서 구장춘의 마음을 다잡은 큰마가 순식간에 자라졌다. 꿈에서 깬 듯 어두운데가 갑자기 밝아진 듯 지금까지 죽기를 원한 것은 속좁은 여자의 견해와 같은 것으로 대장부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나 남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그는 곧 머리에 썬워진 쇠사슬을 벗고자 했으나 가엾게도 열쇠가 없었다.

구장춘은 약캐는 사람의 말을 듣고 꿈을 꾸다가 누가 때려서 깨어난 것만 같았다. 그제야 자기의 행동이 어린애와 같았음을 깨닫고 바빠 쇠사슬에서 벗어나려 하였으나 열쇠가 없어 몹시 당황하였다.

“열쇠는 내가 주웠어요.”

하고 약캐는 사람이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쇠사슬을 풀어주었다.

“나는 벌써 죽은 목숨이나 다름 없는데 당신의 한마디 말로 인해 절벽의 길을 터놓은 것 같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그 은혜 막대하옵니다.”

“내가 당신에게 밥을 드린 것도 아니요, 돈을 드린 것도 아니요. 다만 몇마디 말로써 당신에게 권고한 것 뿐인데, 믿는 것도 당신의 자유 안 믿는 것도 당신의 자유입니다. 믿으면 살것이요, 안 믿으면 죽을 것이니요. 당신 스스로가 짓는 것이라 내가 간섭할 필요가 없고 또 은혜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약캐는 사람은 말을 마치고 바람과 같이 사라져 삼시간에 보이지 않았다.

구장춘은 이제 하늘의 구름이 걷힌 것 같이 죽기를 원하는 생각이 없어졌다. 넓고 넓은 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같이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만일 태백금성이 일언(一言)으로 그의 마음에 뿌리 박힌 마를 뽑아내지 않았더라면 비록 백만천병이 있더라도 또한 일천위태가 항마의 방망이로 치더라도 그 마의 장해를 물리치지 못하고 마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했으리라.

그러므로 수도인은 마의 장해가 일어나면 곧 그 뿌리를 찾고 그 일어난 곳을 살펴서 그곳을 거뜬히 파버리면 조금도 어려운 문제가 없다. 만일 마가 여기에 뿌리 박혔는데 저기서 찾는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심병(心病)을 풀지 못하고 그도 역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약캐는 사람이 그의 잘못된 길을 깨우쳐 준 후로 구장춘은 더욱더 내공을 쌓고 다시는 죽음을 찾지 않았다. 구장춘은 약캐는 사람이 태백금성인 줄을 몰랐다.

하루는 구장춘이 어느 산천이 수려한 지방에 당도하였다. 거기에는 강물이 가로 놓여 있었는데 물이 얇아서 다리도 놓지 않고 나룻배도 없었다. 사람들은 옷을 걷고 물을 건너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강물의 성질을 잘 알아서 마음놓고 왔다갔다 하였다.

구장춘은 여기서 괴롭게 공을 짓고 방편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물을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을 업어서 건네주었다. 그 중에는 돈을 주는 사람도 있고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도 있었다. 구장춘은 그것으로 생활을 유지했다. 물론 한푼도 받지 않고 업어다 주는 일도 있었다.



그는 물이 마를 땐 시주를 걸으러 다녔는데 아침에 일곱군데 저녁에 일곱군데 걸었다. 그렇게 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입혀주고 먹여주며 자기보다도 남을 이롭게 하였다. 그리고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과거 수행동안 그는 백여 차례나 굶은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구장춘의 큰 기아는 72 차례 작은 기아는 쇠털같이 많아서 셀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구장춘은 그렇게 낮에는 괴롭게 공을 짓고 밤에는 차가운 사당에서 잤다. 현판에는 ‘반개의 여러 제자, 삼가 험납한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 강물이 반개인 것을 알았다. 그때 그는 왕중양선생의 석번계의 예언을 상기했다. 석번계(石番溪)가 곧 반계(磻溪)인 것이다. “나는 인생고를 완전히 뿌리뽑을 곳은 여기서다.”

그는 항구적인 지향을 크게 세우고 도의 묘법을 터득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앉아서 내공을 지었다. 이렇게 3 년동안 겪은 곤고는 이루다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산이 막히고 물이 가로놓인 막다른 골목에서 갑자기선을 반기는 사람을 만나서 그와 연분을 맺고 그로 하여금 아사동사할 위기를 면하게 해 주었다. 진심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상천이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진심으로 고수(苦修)해서 도를 깨친다면 헐벗고 굶어 죽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구장춘은 6 년간의 고된 공을 쌓아서 공덕이 원만할 무렵, 강물이 갑자기 넘쳐흐르고 각기큰 칼을 찬 세명의 군인이 손에 선혈이 임리(淋漓)한 사람의 머리를 들고와서, 간첩의 머리를 베어 상사에게 바치러 가는 참이라며 물의 성질을 모르니 업어서 건네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본시 고된 공적을 쌓는 것이 소원이므로 한 사람, 두사람을 건네주고 마지막 사람을 건네주려하니 벌벌 떨며 업히지 않으려고 하였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물이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조심해야 하오.”

“네네, 잘 알았습니다. 마음놓고 업히기만 하세요. 무서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장춘이 그 사람을 업고 물살이 강한 가운데에 이르렀다. 갑자기 물살이 더 빨리 몰아쳤다.

“에구머니!”

그의 등에 업힌 군인이 소리를 지르고 그의 옷을 강하게 붙잡으려는 순간 손에 들었던 간첩의 목이 강물에 떨어지고 말았다.

“에구머니, 이 일을 어찌나.”

구장춘이 놀라서 바라보았다. 간첩의 목이 물결에 휩싸여서 떠내려가고 있었다. 구장춘은 황급해서 빠리 그 사람을 업어다 주고 그 목을 찾으려 강물을 휘둘러 보았다. 파도 소리가 우렁차고 물은 철새없이 흘러갔다. ‘어디를 가면 그 목을 찾을 것인가?’ 구장춘은 다시 그 군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땅이 꺼져라고 고함을 치고 있었다. 구장춘은 마음이 총망하고 의식이 혼잡해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당신이 칼로 내 목을 베어 그 목 대신 가져가시오.”

“네 실수로 목을 빠뜨렸으니 당신은 아무 관계없어요.”

“나는 나 혼자 몸이니 죽으면 오히려 행복하지만 당신은 여러 식솔이 당신을 온 가족이 살 수 있다면 나쁜일이 아니겠지요.”

“당신의 고마운 마음은 잘 앓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 당신을 죽이겠소. 상말에도 날카로운 칼이지만 죄없는 사람의 목을 베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나의 목을 보전하고 싶거든 당신 손으로 당신의 목을 베는게 어떻겠소?”

그 군인이 말을 마치고 칼을 구장춘에게 넘겨주었다. 구장춘이 칼을 받아들고 자기의 목을 베려는 순간,

“구장춘! 내게 필통을 돌려주오.” 하는 소리가 반공중에서 나서 우러러 보니 세 군인이 우뚝 서 있었다.

“우리는 천관, 지관, 수관의 삼관으로서 너의 도심이 견고하고 고행이 원만하므로 특히 너를 시험하려는 것이다. 네가 과연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해서 공을 쌓고 행을 더했으므로 이제 너의 범신을 도신(道身)으로 만들고 가체를 선체(仙體)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6 년만에 도를 깨치고 7 년째 성도하리니 부지런히 배워서 과오가 없도록 하라.”

삼관대제의 지시를 듣고 구장춘은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고 슬기가 환발(煥發)하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곤에 딱 잡은 칼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칼이 아니고 보고서류가 들어있는 필통이었다. 그는 삼관 가운데 한분이 필통을 안 가진 것을 보고 자기가 들고 있던 것을 돌려 드리려고 공중을 향하여 물을 날렸다. 그러자 뜻밖에 몸이 훌훌 공중에 날려서 오색상운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필통을 바쳤다. 그러자 삼관대제는 상운을 높이 타고 멀리멀리 사라져 갔다.

구장춘이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순간 갑자기 마의상사가 떠올랐다.

“그가 나를 아사할 팔자라고 단정했는데 내가 이제는 도과(道果)가 익어서 아사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 구름을 타고 하동까지 가서 그의 판단력이 어떤가를 시험해보자.”

그의 마음에 또 다시 마가 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중(自重)하지 못하고

“빛깔을 감추고 자취를 숨겨라.”

구름을 타고 경각간에 천리를 날아 신인마의 집에 도착했다. 구름 위에서 내려 그 집문앞에 들어섰다. 20 세 가량의 젊은이가 보였다. 앞서 만두를 주었던 그 가복이었다.

“나는 상을 보시는 노선생님을 뵈올려고 왔소.”

“선생님께서서는 오랫동안 밖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상을 보시려면 저를 따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가복이 구장춘을 안내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신인마의가 대청에 앉아 있었다. 구장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영접하고 상빈례(上賓禮)로 접대하였다.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선생님을 못 뵈은 지 수년동안 수발(鬚髮)이 하얗게 되셨군요.”

구장춘이 신인마의 수발이 모조리 희고 비범한 얼굴이 노쇠해진 것을 보고 말하였다.

“노후(老朽)한 이 몸이 어디서 도장을 만나 뵈었는지 얼른 기억이 나지 않는구려.”

“선생님은 제 상을 보시고 등사가 입을 보냈으므로 아사할 팔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신인마의가 구장춘의 상을 살펴보더니

“하하하 놀라운 일이군요. 도장은 어떤 공덕을 지었길래 이렇게 상이 바뀌었소?”

신인마의가 손뺍을 치며 크게 웃었다.

“노선생님께서 상이란 판에 박은 것이어서 영구히 고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어째서 상이 바뀌었다고 하십니까?”

“나는 얼굴만 볼 줄 알지 마음은 볼 줄 모르오. 지금 와서 도장의 상이 마음에 따라서 변할 줄이야 내가 어찌 알았겠소. 앞서는 두 개의 선이 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등사가 입으로 들어가 아사할 상이었는데, 지금은

두 개의 선이 두 갈래로 나와서 승장(承漿)자리를 에워싸고 승장자리에서 하나의 작은 사마귀가 생겨서 대격국(藪格局)이 되었으니 이것은 두 용이 구슬을 희롱한다는 것으로 말할 수 없는 귀공인상이지요. 이 복덕상은 공덕이 불가칭 불가량이어서 응당 제왕의 공양을 받을거요. 이렇게 변할 줄 내가 어찌 알았겠소.”

이 말을 듣고 구장춘은 그의 상법이 신통함에 감복했다. 곧 그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다시 반계로 돌아왔다. 상천에서 아직 부르지 않았으므로 머물러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남도 비교하면 신인마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의 장애로 해서 참선시간에 취한 듯 알송달송한 환경(幻景)이 생기는 법, 구장춘은 깊은 산중, 인적없는 곳에 앉아 있는데 별안간 일진광풍이 일어나고 한 마리 누른 점이 이는 사나운 토끼가 나타나서 이를 드러내고 발톱을 휘둘러서 자기를 할퀴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조금도 그런 환경(幻景)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음귀가 올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곧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또 그가 정신이 아찔할 무렵, 한 소년이 뛰어와서

“우리 사부 마단양이 여기 당도하십니다. 사숙(師叔)은 어서 일어나서 영접하십시오.”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친한 사이였으므로 이런 환경(幻景)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는 과연 그런 뒤에 마단양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도란 정에 쏠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오면 오는 대로 마음이 담담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강을 건너지 못하던 것을 당신이 업어서 건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리철이 되어 한섬을 모아왔으니 한해는 염려 없으실 겁니다. 또 두 켤미의 돈과 옷가지도 모아왔습니다.”

하고 보리와 돈을 그의 옆에 놓고 받으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역시 무관심했다.

또 정신이 아찔할 무렵, 나이가 17,8 세쯤 돼보이는 어여쁜 여자가 와서, 자기는 계모에게 혹독한 매를 맞고 몰래 달아아서 외숙댁으로 가려는데 무서워서 혼자 가기가 어려우니 자기를 데려다 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목소리가 빗방울이 떨어져 울리는 것처럼 우는

듯 하소연했다. 그러나 구장춘은 색상의 관념이 없으므로 그 여자와 자기와의 의식이 없었다.

또 별안간 그의 둘째 형수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둘째형이 돌아가시자 큰형이 재신을 혼자 차지하여 가엾은 아이들이 굶어 죽게 되었어요. 내가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그들을 부양하겠습니까? 그대가 둘째형을 받드는 마음으로 혹은 골육지정을 생각해서 우리 모자를 살려주세요.”

라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몰려와서 울며불며 매달렸다. 그러나 구장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아주 정적인 가운데 슬기가 자연 생겨서 심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그때 별안간 반공중에서 광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천문이 크게 열리고 두 동자가 백학을 안고 구장춘에게로 왔다.

두 동자가 백학을 안고 구장춘앞에 이르러서 상제의 칙령으로 구진인을 모시러 왔으니 학을 타고 올라가자고 했다.

구장춘은 바로 그때 “7년째 성도하리라.”던 삼관대제의 예언이 떠올랐다. 벌써 오라는 것 믿지 못할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벌써 오라는 건 도저히 믿지 못하게다. 아마 이것은 내 심중에 음마가 발동하여 생긴 허위이리라. 이것을 모르면 나의 진양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두 동자는 보이지 않고 백학도 없어졌다.

꿈인 듯 꿈이 아닌 듯 그는 혼자 앉아 있었다. 달이 환학 별빛도 찬란했다. 모든 것이 고요했다. 달이 환하고 별빛도 찬란했다. 모든 것이 고요했다. 사람의 일생에 흔히 이와같은 기괴한 일이 생기는데, 일념 아차 잘못하면 큰 과오를 저지르게 된다. 그는 한때의 기분으로 신인마의를 시험하려 가는 것이 아니었다고 느꼈다. 그 까닭에 많은 음마를 초래한 것이다.

한치의 사심을 가지면 열자의 위험이 생기는 것이다. 만일 모든 음기를 수련해서 없애지 못하면 순양체가 될 수 없다.

그는 곰곰히 생각한 끝에 마의 장애에 대비하는 법을 준비했다. 모든 음기를 모조리 없애고 틈을 타고 들어올 찌꺼기도 없게 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그는 반계묘를 떠나서 동산에 이르렀다. 산밑에 무게가 백근쯤 되는 둥근 돌이 있었다. 그곳은 매우 조용한 곳이었다. 그는 풀을 베어 암자를 짓고

않았다. 만을 음마가 발동하면 그는 돌을 씹머져서 죄를 보상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삼년이 흘렀다. 그는 음마가 모조리 물러가고 순양체가 되었다.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형상이 다 비고 환경(幻景)이 생기지 않았다.

영이 밝아서 날로 드러나고 천기가 자연히 반응해서 세상일을 점치지 않아도 자연 알았다. 그는 앞으로 어떤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천기를 누설할 수는 없었다.

그후 그는 남을 제도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능히 반성한다면 지금도 타락의 구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위로는 상천의 호생지덕(好生之德)을 따라 행하고, 아래로 제도의 법문이 열릴 것이다’는 목적으로....

그 당시 간룡땅에 큰 부자가 있었다. 성은 왕이요 이름은 운이었는데, 남보다 뛰어난 부자여서 사람들이 그를 왕부자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렇게 칭한 데에는 그가 또한 수전노라는 나쁜 점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산을 의하고 물을 끼어서 살았다. 산이 빙 둘러쳐져 있고 물을 끼안고 있는 좋은 땅이었다. 문밖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그는 많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각박하여 큰 저울과 작은 저울로 나가는 것은 가볍게, 들어오는 것은 무겁게 빈민을 속이고 약한자를 능멸하고 남의 전지(田地)를 점령하고 강탈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력을 빌어서 이익을 얻는 격으로, 그의 노복들도 주인의 세력을 믿고 부락의 우민을 기만하고 혹은 부녀자들을 간음하는 등 못할 일이 없이 하늘에 뻗치는 큰 죄를 지었다. 그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고 설사 알았더라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집 문밖에는 큰 돌이 있었는데 길이가 한길쯤 되고, 높이가 두자쯤 되며, 머리가 크고 꼬리가 작아서 꼭 사자모양 같았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돌사자라고 불렀다.

야외에서 밭일하는 일꾼들의 수가 많아, 식사때가 되면 문을 지키는 사람이 돌사자 위에서 목탁을 치면 여기저기서 식사하러 모이는 습관이 되어있었다.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기둥이 있고 긴등위에 관음묘가 있었다. 이 관음묘는 왕운의 선조때 건립한 것으로 제전도 두고 주지스님도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왕운에 이르러서 주지를 축출하고 토지를 회수해 버렸다.

그나 묘우(廟宇=신의를 모신 집, 사당)를 헐지 않고 불상을 부수지 않은 것은 그가 아직도 한점 착한 마음이 남아 있다는 것인가.

구장춘은 보계지방으로부터 여기에 이르러서 이 관음묘에 머물렀다. 매일 목탁소리가 들려오면 시주를 걷으러 갔다. 십여일 동안을 걷으러 다녔으나 한 사람도 그에게 희사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춘화라는 어린 여종만이 그를 애처로이 여겨 남몰래 만두를 조금 가지고 나와서 그의 옷소매안에 넣어주곤 하였다.

“사부님 어서 빨리 가십시오. 나쁜 사람들이 알면 좋지 않습니다.”

이틀 후 또 다시 시주를 하러 갔더니, 때마침 왕운이 문앞에 서 있었다. 구장춘은 원래 그를 제도할 목적으로 왔으므로 곧 시구(詩句)로써 그의 마음을 타진하였다.

“이름을 탐내고 이익을 찾는 마음 줄곧 돌리지 못하건만, 하루 아침에 무상귀가 오자 만사가 그만이다. 금은 보화가 있어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두 눈에 눈물만이 속절없이 흐르게 된다.”

그러나 왕운이 버럭 화를 내며

“야! 이 새끼, 함부로 누구에게 그따위 수작이나. 나는 불법을 통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야, 함부로 어물쩍 거렸다면 없다 없어. 빨리 꺼져!...”하며 쫓는 바람에 “빈도(貧道)는 단지 귀택을 위해 시주를 걷으러 온 것일 뿐입니다. 하고 구장춘이 곧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때 마침 문밖에는 말뚝을 주워 모아놓은 광주리와 말뚝을 집는 집게가 있었는데 왕운이 집게로 말뚝을 집어서 구장춘의 면전에 떠밀며,

“자, 이것을 주라.”

하였다. 구장춘이 밥바가지로 두손으로 받들며 “농담이 안니가?” 하고 왕운의 마음을 떠보았다. 그러나 왕운은 과연 말뚝을 밥바가지에 집어넣었다. “말뚝이 제게 소용이 있을까요?” 하고 구장춘이 묻자,

“이 말뚝은 내가 품삯을 주고 인부를 부려서 주워 모은 것이다. 그래서 시주라니까 돈 안받고 내 주는 거야.”

라고 왕운이 대답했다.

구장춘은 고맙다고 치사했다. 그러자 왕운이 ‘허허허’하고 웃어댔다. 여러 가복들도 다 웃었다. 그의 집 식구들이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이 말을 듣고 다들 웃었다. 춘화만이 마음 속으로 송구스러워 했다.

하루는 다른 노복들이 모조리 긴등에 일하러 나간 틈을 타서 춘화가 몰래 만두를 옷안에 조금 넣고 문밖으로 나왔다. 그때 마침 구장춘이 문밖에서 있었다. 춘화가 그에게 만두를 두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시주 걸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네게 꼭 할 말이 있어서 온 것이다. 너는 꼭 잊지 말아야 한다. 저 돌사자의 눈이 붉어지면 사람들이 다 죽게 돼, 그러면 너는 저 긴등꼭대기 관음묘에 와서 잠시만 있으면 살아날 거야.”

구장춘이 말을 마치고 바람과 같이 사라져 별안간 간 곳이 없었다. 춘화가 이 말을 심중에 두고 매일 두 차례씩 문밖에 나가 돌사자를 살펴 보았다.

이렇게 하기를 두 달이 지나 춘화의 행동은 양치는 소녀의 눈에 띄게 되었다.

“춘화언니, 언니가 매일 두 차례씩 돌사자를 보러 나오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하고 소녀가 물었다.

“저번 그 시주를 걸으러 온 사부님이 이 돌사자의 눈이 붉어지면 빨리 관음묘로 가서 잠시 피해야만 살아난다고 하더군.”

소녀는 이 말을 듣고 괴이쩍게 생각하고 춘화를 놀려줄 생각을 했다. 그래서 붉은 흙을 파다가 돌사자 면상에 원을 기리고 숨어서 춘화의 동정을 살펴보았는데....

그날 날이 저물자 춘화는 갑자기 심장이 뛰고 눈이 깜박거리고 마음이 불안했다. 그래서 돌사자의 눈이 붉어졌는지 몰라 곧 밖으로 나가려는데 주인의 눈초리가 염려되었지만 살짝 나가서 살펴보니 과연 사자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춘화는 깜짝 놀라서 관음묘로 줄달음쳤다. 양치는 소녀 춘화가 뛰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다.

소녀가 묘안에 들어가서 춘화에게 말을 붙이려는 순간, 갑자기 탕, 쿵 하는 우뢰소리에 산이 흔들리고 땅이 움직였다. 태풍이 일어나고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다. 폭우가 박으로 붓는 듯 쏟아졌다. 밤중이 되어 비가 조금 개었다. 춘화와 소녀는 단앞에 엎드려 밤을 세웠다. 귀에 들려오는 비바람소리가 북을 치는 것도 같고 수만리 말이 달음질치는 것도 같았다.

날이 밝아서 그들이 겨우 밖으로 나와보니, 왕운의 저택은 물에 휩쓸려 온통 흔적이 없고 돌사자만이 물 한 가운데 누워 있었다. 왕운의 저택은 어젯밤 몇 시경인지 교룡이 지나다 보고 방이 깨끗이 잘 마련됐다고 해서 바다 밑 수정궁으로 옮겨간 것이었고 돌사자만은 수정궁에 필요없음인지



옮겨가지 않았던 것이다. 춘화가 서글퍼서 눈물이 흘렀다. 원근에 있는 남녀노소들이 모여와서 춘화를 위로하였다.

“하느님이 눈이 있다는 게 옳은 말인가 봐. 이렇듯 보복이 틀림없단 말이야. 그런데 네 주인집은 일가몰살 되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아났느냐?”

하고 울고 있는 춘화에게 묻는 것이었다. 구장춘이 지시한 이야기를 춘화가 그들에게 설명했다.

“왕운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느님이 수재를 내신 거야. 그 도장님은 필시 신선이신가봐. 왕운을 제도하러 오셨는데 왕운이 마음을 돌리지 않으므로 물에 휩쓸린거야. 너는 보잘 것 없는 어린 종이지만 그래도 선심이 있으므로 구출됐고 양치는 소녀도 너의 덕택에 죽지 않은 거야. 어쨌던 인생은 천지사이에서 우선 좋은 일을 했어야만 큰 재난도 멸할 수 있는거야. 그런데 춘화야 너는 앞으로 어찌 할거냐?”

부락 사람들이 분분한 의논 끝에 물었다.

“이 집은 본래 우리 주인께서 수조해야 할 모옥이고 주위에 토지도 경작해야 할 것인데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 불당을 지키면서 처녀로 수행하고 홍진세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반기지 않겠습니다.”

춘화가 대답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너의 임시 생활비를 모아 줄테니 그럭저럭 지내고 있으면, 올해 수수부터는 너의 의식용도에 지장이 없을거야.”

그들이 돈과 쌀을 모아서 춘화에게 주고 또 외로운 노파 한분을 같이 살게 했다. 춘화가 그들의 은혜를 치사했다. 그후부터 춘화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수행에 애썼다. 수년후에 구진인이 용문동에서 심신을 편하게하여 단련하던중 춘화가 진심으로 도를 즐기는 것을 알고 찾아와서 제도했다. 그런데 구장춘이 춘화에게 수재를 알려주고 그 즉시 용주의 산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한 석벽이 있고 석벽 꼬대기에 동굴이 있었다. 이것은 진조 말년 한조 초년에 루경선생이 해와 달을 붙잡아 맨 곳이었다. 아래에 강물이 있고 현암석벽이 강물머리에 있었다. 물이 꼬불꼬불 굽이쳐 흘렀다. 멀리서 바라보면 석벽이 물위에 타 앉은 것 같고 동굴이 문테두리 같이 보였다. 그시대 사람들이 과거를 소중히 여겼으므로 이 동굴을 용문이라고 이름했다. 잉어가 여기를 뛰어오르면 용으로 변한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구장춘은 이 동굴에 들어가서 영성을 기르고 진리를 수련했다.

왕중양선생이 용이 나는 문 위에서 큰 단을 이룩하리라는 예언이 응당 여기를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 해를 지내기가 아쉽게 용주에 큰 가뭄이 닥쳐왔다. 용주태수가 군민을 인솔하고 비를 빌었으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한시가 새롭게 온갖 곡식이 말라갔다. 이로 인하여 백성들은 근심속에 잠겨있었다.

“내가 비를 빌면 능히 사흘동안 단비가 내려서 만민이 다시 살아날 것이요.”

하고 구장춘이 용주의 관부에 가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 하였다. 용주의 관원이 크게 기뻐해서 구장춘을 초청하여 비를 빌게 했다. 구장춘이 의관을 정제하고 단 앞에서 엎드려 지성으로 비를 빌었다. 지성이 하늘에 통하여 과연 비가 사흘밤 사흘낮을 내렸다. 화곡이 풍족하고 만민이 시름없이 풍족하게 지냈다.

다음에 또다시 직예일대가 크게 가물었다. 천자가 백관을 인솔하여 비를 빌었으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 원순제의 어명으로 방이 나붙고 우리의 덕택을 빌만한 도 있는 인사를 널리 초빙했다. 능히 빌어서 비를 오게 하는 인사는 고관대작으로 그 공훈에 보답한다는 것이었다.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알려지자 용주 태수가 능히 우리를 빌만한 인사 한 사람을 나라에 보고 하였다.

## (白雲寺)

도덕수행이 청고한 인사를 초빙하여 우리의 자비를 빌라는 원순제의 어명이 내려지자 용주 태수가 급히 상경하여 어전에 상소하였다.

「용주의 용문에 고사 구장춘이라는 사람이 도와 덕이 높아 작년 용주의 한재때 그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자비를 얻어 만민을 구제했사오니 이제 황상께옵서 우리를 멈추시어 만민의 곤고를 푸시려면 이 사람이 아니고는 안될까 하옵니다. 신은 민생고를 구제하려는 일념에서 이 사실을 상신하는 바입니다.」

원순제가 이 글을 보고 내심 크게 기뻐하여 곧 아리타타 대부로 하여금 구장춘을 초빙하게 했다. 불간에 아리타타 대부가 용문에 이르러서 옥백(玉帛)을 드리고 원주의 뜻을 전달하니 구장춘이 흔쾌히 수락하고 대부와 함께 북경에 도착하여 다음날 원주를 조건했다.

원순제가 스승의 예로써 존대하고 구경의 윗자리에 앉게 하고 기우제 지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황상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하시오니 신이 감히 미력이나마 진심갈력 하겠습니다. 다만 기후단을 높이 모시고 황상께서 친히 소향 예배하신 후 신이 나아가서 상제께 비오면 꼭 사흘안에 비가 내릴 것이옵니다.”

구장춘이 아뢰는 말에 원주가 크게 만족하여 곧 유사로 하여금 그 일을 서두르게하고 태감이 구장춘을 집현관으로 안내하여 편안히 쉬게 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유사가 와서 기우단 설치가 다 되어 법사의 등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구장춘이 단앞에 이르렀다. 천자가 친히 소향 예배하고 옥가회궁(玉駕回宮)한 뒤 구장춘은 단앞에 엎드려 간곡한 제문을 읽었다.

그런 뒤 삼일째 되는 날 오후 한 시경 붉은 태양이 불덩이 같이 떠 있었고. 거리에는 먼지만 날리고 사람들은 땀만 흘렸다. 이때 구장춘이 버드나무 가지에 물을 적셔 태양을 향하여 뿌리니 조금 뒤 태양의 언저리에 검은 해 무리가 생기고 그것이 갑자기 구름으로 변하여 태양을 가렸다. 삼시간에 천지가 캄캄하고 큰 비가 쏟아졌다. 비가 우렁차게 며칠동안 내렸다. 마른 것이 다시 번영하고 썩은 것도 생기가 돌아왔다. 백성들은 기뻐서 춤을 추고 모든 생명이 감사에 젖었다.

원순제가 크게 만족하여 구장춘을 홍도진인으로 봉하여 서울에 주재하게 하고 상빈례(上賓禮)로 대우했다.

하루는 원주가 구장춘을 불러서 대궐안에서 같이 노닐다 어원에 이르렀다. 어원 안에는 상록초, 불노화등 이름을 알 수 없는 기석 괴목이 많이 있었다. 구장춘은 원주와 나란히 돌 위에 앉아서 도법을 담론했다. 그의 놀라운 설법을 듣고, 원주는

“짐이 조종의 대업을 계승한 몸이 아니었으면 적송자를 따라 놓고자 하나 후사가 없으니... 만약 짐이 후사(後嗣)가 있으면 마땅히 구진인을 스승으로 모시고 입산 수련하려 하오.”라고 말했다.

“주상께서는 심려 마시옵소서. 황후께서 이미 용태를 품으셨나이다. 미구에 저군 탄생이 있을까 하나이다.”

구장춘의 말을 들은 원주는 친필로 각서를 썼다.

『금반 후궁주모(後宮主母)의 황태에 관하여 백운사의 백운승은 봉태궐을 주장하고 홍도진인 구장춘은 용태설을 전개하여 양인간에 이론이 있으므로 내기를 정하되, 만일 후궁주모의 소생이 용인 경우에는 백운승이 진 것이므로 백운사를 구장춘에게 양여하고 영구히 이의가 없기로 함.

백운사 백운승 날인, 홍도 진인 구장춘 날인』

백운승과 구장춘이 각서에 도장을 찍고 각기 한 번 읽어본 후 어안위에 올렸다. 원순제가 각서를 점검하고 친히 보관해 두었다. 그런 뒤 황후의 분만이 있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백운선사는 백운사로 돌아와서 구장춘의 대담한 용단을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황후가 과연 용태라면 내가 오산이란 말인가?’

백운선사가 마음을 못놓고 다시 한 번 수리를 추산해 보았다. 그러나 조금도 착오가 없었다. 백운승은 기뻐며. “구장춘, 네가 나를 저주하지만 말라. 네 잘못으로 네 목숨을 버리게 되는 거야. 지금껏 수도한 보람없이...,”라며 혼자 중얼거렸다.

한편 구장춘은 집 현관에 돌아와서 황후의 분만할 시기를 산정한 후 일도신부(一道神符)를 구천선녀의 궁안으로 놓아서 옥정이라는 선녀를 불러오게 하였다. 옥정은 신통이 광대하고 변화가 무궁한 선녀였다. 옥정은 구천 성모의 명령으로 집현관에 내려와서 구진인이 부탁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밤 새벽 한 시, 여왕부중에 왕비가 여아를 낳을 것인데, 그대가 표주박을 남아로 바꾸어서 왕비의 여와와 교환하여 금난전위에 안고 섰다가 내가 왕비의 여아를 갖고 남아와 교환한 뒤 그대가 그 여아를 다시 표주박으로 갈아라.”는 것이었다.

선녀가 구장춘의 부탁을 듣고 그 일을 수행하기로 했는데...

이날밤 새벽 한시 황후가 여아를 분만했다. 과연 백운선사의 봉태설이 이긴 것이다. 그의 산법이 매우 정확한 것이었다. 궁인이 원주에게 보고했다. 원순제가 선사의 정확한 산법에 감복하고 또한 구장춘의 목숨을 사리기 어려운 것이 걱정되었다. 각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구장춘이 질 경우에는 생명을 바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수단으로든지 임금된 도리로서 구장춘을 살려야만 될 것이라고 원주는 생각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조회를 보았다. 공주 탄생을 듣고 문부백관이 일제히 와서 조하드렸다. 백운선사도 와서 치하하고 기뻐했다.

“짐의 운명이 아마도 후사(後嗣)가 없는가 보오. 그야 운명이라면 한할것도 없지만 구진인이 음양의 추산을 잘못하여 내기에 졌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그가 비를 빌어서 큰 공훈을 세웠으니 그의 목숨은 견져주고 싶소.

짐이 황실에서 십만 냥을 덜어내어 백운선사에 바쳐서 구진인의 목숨을 보상하려 하오.”

원주의 말에 백운선사는 대답을 않고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황문관이 구장춘의 입조를 보고했다. 원주가 구장춘의 입조를 하명하였다. 구장춘이 조배를 마치고 나서,

“황후께서 저군(儲君)을 탄생하시와 신이 주상께 치하하며 기뻐하는 바입니다.”라고 치하드리니

“진인은 모르고 있소. 황후의 소생은 딸이요.”

“신의 추산이 만에 하나도 틀림이 없사옵니다. 과연 공주인 것을 신의 눈앞에 직접 보여 주신다면 신은 죽어도 이의가 없겠습니다.”

원주는 어쨌든 구장춘을 구출하려고 한 것인데 구장춘이 이렇듯 강경하게 나오므로 원주는 심중이 개운치 않아 궁녀를 안으로 들여보내 여아를 나오게 했다.

한편, 아침 일곱시경 선녀는 갈대를 갖고 남아로 바꾸어 황후의 여아와 교환할 차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금난보전에서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궁녀가 여아를 안고 나와서 복명(復命)하였다. 원주는 궁녀로 하여금 여아를 구장춘에게 넘겨주게 하고 잘 보도록 하였다. 구장춘이 여아를 쌍수로 받아들이고 옷소매로 가려서 다른 사람이 못보게 했다. 이때 선녀가 자기가 안고 있던 남아와 여아를 바꾸어서 옥부로 올라갔다.

문무백관은 육안범태(肉眼凡胎)라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였다. 백운선사도 소소한 지혜는 있었지만 신통에는 이르지 못했으므로 알아 채지 못했다.

구장춘은 용을 훔쳐와서 봉과 교환하는 수단으로 남아를 쌍수로 받들어서 문무백관에게 보기를 요청했다. 과연 이것이 여아냐 남아냐? 문무백관이 일제히 보고 태평춘추를 외쳤다. 백운선사가 얼굴빛이 확 변하여 뛰어와서 영아를 수중에 들고 보았다. 분명 남아였다. 백운선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과연 후대를 이어갈 저군이십니다.”

백운선사가 이렇게 치하하고 영아를 원주에게도 돌렸다. 원주는 영아를 안고 매우 기이하게 생각하였다.

“짐이 궁인에게 보고만 듣고 영아를 내눈으로 보지않아 여아로만 알았었는데 이것이 궁인의 오인이었나 보오.”

원주는 광록사에 하명하여 삼일간 잔치를 벌이게 하고 천하에 대사령을 내렸다. 원주는 궁전에서 물러가고 문무백관도 헤어졌다.

“선사는 분부를 어이하시겠습니까?”

구장춘이 백운선사에게 물었다.

“말이 한 번 입밖에 나오면 천리마도 못따른다고 했으니 내일 당장 백운사를 당신에게 양도하겠으니 짐을 실어 들고 나는 짐을 실어내면 그만이지 분부가 뭐란 말이에요?”

백운선사가 말을 마치고 백운사로 돌아왔으나 심중이 석연치 않아서 다시 한 번 수학상으로 이치를 따져보았으나 남아라는 단정이 나오지않았다.

“이렇게 큰 서원을 구장춘 한 사람은 독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1 대 1 로 인원을 교환하기로 해서 저쪽이 인원을 못대면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 천천히 수단을 쓰는 것이 어떠합니까?”

한 소송이 선사에게 말했다. 백운선사가 이 말을 듣고 무척 기뻐했다. 다음날 구장춘이 백운사에 이르렀다.

“집도 넓고 중도 많아서 오착이 생기기 쉬우니 도인이 한 사람 들어오면 승인 한사람 나가기로 해서 1 대 1 로 교환해야 하겠어요. 인원교환이 다 안되면 사원양도는 다 안된 것이니 도인도 살고 승인도 살게 될 것이요.”

백운선사의 수작이었다.

“묘안이요. 그래야 되지요. 그러면 내가 문밖에 나가서 도인들을 불러오겠어요.”

구장춘은 문밖으로 나가서 떨채의 실을 빼어 공중으로 날렸다. 진기(眞氣) 신선의 진호흡(眞呼吸)을 불어서 공중으로 내보냈다. 실머리가 바람에 나부끼어 어디로 떨어졌는지? 삼시간에 무수한 도인들이 나타나서 구장춘의 뒤를 따라 백운사로 들어가 승은들은 한사람도 남김없이 교환했다.

백운사는 구장춘이 거쳐하던 집현전으로 가고 여러 승인들은 각 불당으로 헤어졌다. 구장춘이 어찌 꼭 백운선사를 필요로 했는가 하면 첫째, 북경지방이 왕자의 운기가 성해서 도읍지로서 오래 유지될 땅이므로 이땅에 법단을 열어서 도법을 퍼려는 것이요. 둘째, 남승북도(南僧北道)라는 말과 같이 백운선사는 마땅히 남쪽으로 가서 삼강일대의 지방을 개척해야 할 것이었다.

만일 그가 오래도록 북경에서 백운사를 지키고 있으면 결국 삼강의 일대를 건지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구장춘이 이 서원을 차지해서 그로

하여금 남쪽으로 가서 중생을 보도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구장춘은 진인에게 적절한 장소를 허용한 것이지 서원을 무리하게 차지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 지방은 이롭지만 저 지방은 해롭고 이 사람에게는 이롭지만 저 사람에게에는 해롭다는 것이 지리(地利)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류도인은 진성을 닦으려는 상생상응적(相生相應的)인 장소를 택하여 살고 상극상충(相剋相沖)이 되는 장소를 피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지리(地利)를 얻었다는 것이다.

구장춘이 백운사에서 기거한 지 한 달쯤 지나자 날마다 수십 명의 도우가 모여들었다. 그들을 응접하기가 바빠 반을 짜서 각 반에 책임자를 두었다.

“이른바 출가라는 것은 진세 속세를 다난 것이니 진세 속세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남모르게 숨어 살아서 오직 진심으로 도를 구해야만이 참된 출가라고 이를 것이다.

만일 일시적 망상으로 신선이 되기를 바라거나 혹은 불의의 실패로 반감이 생겨거나 또 안일한 생활을 기도해서 출가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도를 이용해서 자기몸을 안전하게 꾸리려는 것으로, 그러면 날랜 마음이 일어나기 쉽고 장구한 마음뜻을 얻기 어렵다. 그러므로 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서 묘법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어려서부모를 잃었거나 늙어서 고독하여 출가했거나 진세 속세를 간파한 것이 아니고 다만 도문을 일신의 서식처로 삼는 것은 옳은 출가가 아니다.

그러나 세상을 간파하고 못하고간에 이미 우리의 도문에 들어온 이상 그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 삼보의 땅에 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연분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도문에 들어왔다고해서 가난할 것이 아니고 가난할 것이 아니고 나갔다고 해서 부할 것이 아니니, 이미 도문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은 나의 마음을 본받고 가시기 바란다.

첫째 참선, 둘째 송경설법, 셋째 노력봉사, 어느 일이든지 다 출가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남이 못하는 일을 내가 능히 했고 남이 못참는 일을 내가 능히 참았다. 못하는 일이란 정욕을 끊는 일이요, 못 참는 일이란 배고픔과 추위이다. 내가 만일 남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아마 이것일 것이다.

심중이 공허해서 한점 막힌 데도 없고 사심도 일어나지 않고 남이라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자기까지도 없으면 마의 유혹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때가 없다. 이렇듯 공허한 마음에서 도를 구하면 자연 공부와 잘

되지만 상좌(上座)가 되기를 바라는 공부라면 도리어 참된 도를 잃어버리게 된다. 모든 일을 자기 역량에 따라서 행하여 과불급(過不及)이 없이 큰 일은 크게 이루고 작은 일은 작게 이루어서 승묵에 따라서 시작하고 규구에 따라서 마치면 비록 선불이 못될지라도 또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출가한 보람이 아닐 수 없다.

만일 머리를 튼 것은 도인이요 머리를 깎는 것은 형식적인 관념으로 오온(五蘊)이 비지 못하고 사상(四相)을 잊지 못하여 외면은 의관이 엄연하지만 속으로는 금수나 다름 없이 명리와 호화로운 생활을 항상 생각하고 의복 음식이 남만 못할까 두려워서 요행을 바라고, 하는 일이 원대로 될 것을 항상 바란다면 이런 사람은 출가한 도인이라도 이름해도 실은 도인이 아닌 것이다. 이런 사람은 빨리 환속귀가(還俗歸家)해서 고해를 극락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낫다.

현관을 자칭하고 도를 구실로 하여 영화를 누리려고 가이 없는 죄악을 지을 필요는 없다. 금생에 속세에서 뛰어나지 못하면 내세에 또 다시 고해에 떨어지리니 이는 금생의 복된 과보(果報)를 얻기 위하여 내세의 죄업을 심는 것이다. 여러분은 삼가기를 바라는 바이다.

수도의 수준이 동일하지 않는 여러 도우들에게 구장춘은 이와 같이 설하였다.

이때 문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십여명의 사람들이 구장춘을 찾아왔다. 모두 키가 크고 몸도 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앞서 진령산에서 구장춘의 생명을 구제한 조벽, 주구, 왕능 등이었다. 그들은 구장춘을 구한 후 구장춘에게 죄와 복의 인과를 듣고 각자가 깨쳐서 사도를 버리고 정도로 돌아와 유연땅에서 잡화상을 경영하며 날을 보내던 중 십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조벽, 왕능, 장건 등은 이미 늙고 구주, 이웅 등은 아직 젊었다.

그들은 구진이란 도사가 비를 빌어 만민을 구제하고 또한 황태자 탄생을 백운선사와 내기해서 백운사를 점령하고 널리 행인을 모아서 강경 설법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때 진령산에서 우리가 구제한 그 노사부는 이름표에 구모봉행이라는 서원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과연 도를 깨친 것인지 우리가 백운사에 가서 한번 만나보는 것이 좋을 거야.”

조벽의 말에,



“우리가 도덕이 있는 분을 찾아서 여러 해동안 동서로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우리의 소원이 성취될지도 몰라요.”

장건이 말했다.

“그가 과연 도덕이 높다면 우리들의 스승으로 삼고 출가합시다.” 구주의 말에

“동생의 말이 매우 통쾌하군.” 조벽이 기뻐했다. 그래서 그들이 백운사로 찾아온 것이다.

구진인이 여러 도우들과 넓은 전당에서 출가수도에 대한 법을 설하던 중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서서

“여러 형제들은 서로 헤어진 후 연고나 없으셨는지요?”라고 물었다. 그들은 구장춘을 알아보지 못하고

“황천이 염려하여 주신 덕택으로 무사인과 하옵니다. 노사부께서 어디서 저희들을 만나보셨는지 저희들은 기억이 없사옵니다. 죄송하오나 먼저 그 말씀을 일러 주셨으면 합니다.”

“진령산에서 굶주리던 도인을 모르시오?”

“그럼 도장님이 그때 우리를 깨우쳐주셨던 사부이십니까?”

“그럼요. 바로 제가 그 사람이지요.”

조벽등이 그 말을 듣고 일체히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때 뵈은 후로 어언 십년이라는 세월이 흐러갔는가 보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노쇠했사오나 사부께서 얼굴이 도리어 젊어졌사오니 이것은 도덕이 높은 증거인가 보옵니다. 그때 노사부께서 도를 깨치는 날엔 저희들이 모두 와서 구도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사오니 노사부께서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곧 문하에 엎드려 제자가 되고저 하옵니다. 사부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때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은혜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내가 도를 깨쳤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도 깨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도를 근거로 하여 세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데 불과한 것이지요.”

구장춘이 조어를 바꾸어서.

“슬프다! 고해바다는 가이없지만 머리를 돌이키면 이것이 배를 대는 항구이다. 내가 그때 하소연한 이야기는 이것이 자기자신을 깨우치려는

목적이었는데 뜻밖에도 여러분이 이 말에 마음을 닦고 얼굴을 바꾸고 용기있게 잘못을 고쳐서 결국 좋은 사람이 되어 십년동안 굳건히 지켜오는 이제 홍진세계를 간파해서 출가하려고 하니 또한 통쾌한 일이다. 출가란 전생에 선행을 쌓은 결과 마음에 이런 생각이 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승인도 도인이 되려고 발심한 이상 꼭 선불의 말씀을 준수해야 한다. 마음의 자세를 낮추어서 모든 것을 존경하고 마음대로 놓아 먹거나 갖가지 망념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자기 고집을 버려서 남을 따르는 것은 제일 좋은 일이고 남의 생명을 상해하는 것은 가장 나쁜 일이다. 내가 남만 못하다고 시기심이 생기거나 남이 나만 못하단 경만심이 일어나나 이기기를 좋아해서 자기를 위엄차게 하거나 등등의 비행이 없어야 한다. 내가 남만 못한 것은 그의 시운이 아직 도래하지 못한 것이다. 도는 대소가 없고 사람은 도래하지 못한 것이다. 대소가 없고 사람은 존비(尊卑)가 없고 본래 평등한 것, 부귀빈천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이 도가 있으면 크고 덕이 있으면 높다. 즐겨 배우는 사람은 금과 옥 같이 귀중하고 즐겨 배우지 않는 사람은 풀과 같이 가치가 없다. 금은 보화가 귀한 것이 아니고 사람도 덕인의가 귀한 것이다. 출가했다고 귀한 것이 아니다.

내가 처음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형님 덕택으로 자라나서 홍진세계와 연분이 없는 것을 스스로 알고 일심으로 도학만이 참된 것이라고 믿던차에 선사 중양선생을 만나서 대도를 전해받고 다시 마단양 사형의 지시를 받아 도문에 이름을 올린 후로 깊이 마음에 멀려(勉勵)해서 큰 기아가 72 차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고 작은 기아는 무수히 겪어서 고생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내 마음이 철석같아 차라리 죽을 지언정 처음 뜻을 버리지 못하여 곤란을 당할수록 지향이 더욱 굳어졌다.

그후 반계에서 고된 공을 쌓은 6년 동안의 끈고는 이루 필설로 형용할 수 없다. 그러나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과 같이 일조에 앞길이 트여서 상천이 돌봐주신 덕택으로 비를 빌어서 얻고 일시에 명성이 전국에 드날려져서 황제의 총애를 받는 몸이 됐다. 비록 도과(道果)는 이루지 못했으나 이런 지위에 도달한 것도 또한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그대들도 출가를 지원한 이상 이와같은 신념으로 부귀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빈천에도 지향이 불변하여 한번 죽은 뒤에 재출발해서 큰지향을 세워 영구히 죽지 않는 법을 배운다면 가히 진인이 될 수 있으리라.”

구장춘이 말을 마치자 조벽이 구장춘 수도 당시의 고생을 절실히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사람이 고생의 절정에 도달하지 않으면 고생의 뿌리를 뽑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고생, 그것에서 도를 구하라. 고생을 한 번 겪으면 마의 장애가 한 번 풀리고 고생을 다 겪으면 마의 음침한 공기가 다 소멸된다.”

구장춘이 말을 마치고 날을 택하여 그들에게 머리를 틀어 관을 씌우고 각기 도호(道號)를 정해 주었다.

한편 황후는 마음이 불안하여 “내가 여아를 분만했는데 어찌 안고 나가서 남아로 변했을까? 백운선사가 그렇게 큰 서원을 구장춘에게 양도하게 된 것은 오로지 나 한 사람 때문이다. 그의 심중이 얼마나 괴로울까?”라고 생각하고 내사(內使)에 명하여 백운선사를 입궁하게하여 “어린애 하나로 스승에게 폐를 끼쳐서 죄송하오이다.”하고 위로하였다.

“수리학상으로도 봉황이 분명하운데 구장춘이 어떤 사법으로 남아로 바꾸었는지 모르겠사오나 이것이 국가 사직을 위하여 복을 가져온 일이 아닌가 하옵니다.”

“후사(後嗣)가 없으실까 염려중이므로 분궁(本宮)도 감히 이 문제를 따지지 못했사오니 성상(聖上)께서 남아를 얻으신 후로 구장춘을 신선으로 존경 하시어 매일 어원에서 강경설법을 들으시고 좀체 궁원(宮院)에 오시지 않사옵니다.”

“옛날 당명황이 재위시에 만조 문무백관이 장과를 신선이라 칭하므로 당명황이 술에 독을 타서 장과에게 마시게 했답니다. 장과가 그 술을 삼배 연이어 마신 후 술도 최고로 좋은 술이요 안주도 최고로 좋은 술이요 안주도 최고로 좋은 안주라고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반시간 혼돈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가 모조리 검어졌다 하옵니다. 장과가 깨어나서 어전의 여의주로 이를 쳐서 모두 떨어뜨리고 잠시 입을 다물었다 벌였는데 하얀 이가 새로이 들어 있으므로 당명황이 그제야 진짜 신선이 하강한 것으로 믿었다 하옵니다. 황후께서도 당명황의 옛 이야기처럼 식탁에 탁주를 마련했다가 구장춘에게 마시게 하옵소서. 그 술을 마시고도 죽지 않으면 진짜 신선입니다.”

황후가 백운선사의 말을 듣고 내사에게 명하여 백운사에 가서 구장춘을 모셔 오라 하였다. 독주를 마련해 둔 것은 물론이었다. 내관이 황후의 명령대로 구장춘을 불러 입궁시켰다. 구장춘이 그것을 미리 알고 사전에 조이 등에게 당부하였다.

“스물네 개의 항아리에 맑은 물을 가득 담아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좋은 수가 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큰 낭패가 있을 것이다.”

구장춘은 이렇듯 간곡히 부탁하고 내시와 함께 입궁하였다.

“앞서 구진인께서 본후(本后)가 태자를 낳을 것으로 추리한 바 과연 그 말씀과 같이 되었사오나 본후(本后)로서는 진인의 방정(芳情)에 보답할 길이 없사와 이제 어사주 삼배로써 약소하나마 경의를 표하고자 하옵니다.”

황후가 말을 마치고 내시에게 명하여 구장춘앞에 술을 올리게 했다. 구장춘은 사양 않고 삼배를 연이어 마신 후 황후를 하직하고 백운사로 돌아왔다.

냉수가 담긴 스물네 개의 항아리가 낭하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구장춘은 항아리 안으로 뛰어들어 냉수에 몸을 적시었다. 그러자 삼시간에 물이 펄펄 끓어 오르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둘째 항아리에 뛰어들었는데 그 물도 역시 끓어 올랐다. 이렇듯 스물세 번째 항아리에 뛰어들었다. 스물네 번째 항아리는 물이 가득하지 않았으므로 독기가 없어지지 않아 독화가 위로 올라서 머리의 천정(天庭)위 청실머리털이 손가락 3 개 들어갈 정도로 탈모(脫毛)가 되었다. 구장춘이 죽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백운선사는 입궁하여 황후에게 알렸다.

“학주(鶴酒)를 마시고도 죽지 않았으면 신선이 틀림 없겠지요.” 황후의 말에 “혹시 독을 많이 타지 않아서 죽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신이 듣자오니 신선은 오금팔석을 능히 이기어서 금·은·동·철도 손안에 들어가면 진흙과 같이 모나게 둥글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모문에 건이 있고 관이 있사온데 건은 머리털이 있어야 쓰는 것이오며 관은 머리털이 없어도 쓰는 것이니 황후께서 그것을 모르시는 것 같이 건관(巾冠)을 합하여 금관(金冠)이라고 부르시고 황금 한 덩어리를 구장춘에게 내 주시며 머리에 쓰게 하십시오. 그가 무사히 금 덩어리를 머리위에 얹으면 진짜 신선이지만 머리위에 얹지 못한다면 만인의 웃음거리가 되어서 그는 불안하고 사람을 대할 낫이 없어서 산림으로 은퇴할 것입니다.”

황후는 백운선사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다시 내시에게 명하여 구장춘이 입궁했다.

“구진인께서 어찌하여 액상에 머리털이 없으시옵니까?”

황후가 구장춘의 천정에 머리털이 없는 것을 보고 물었다.

“신이 어제 단조(丹詔)를 받자옵고 요계(瑤階)에 올랐을 때 왕모께서 신에게 주연을 하사하므로 신이 장수주 삼배를 마시자 정상의 천문(天門)이 열렸습니다.”

구장춘의 말에 황후는 부끄러워서 그의 묘법을 시험해 볼 생각이 없었으나 이미 백운선사의 제언을 승인한 더이므로 어쩔 수 없었다.

“구진인께서는 과연 신선이옵니다. 신통이 비상하시어 사람들이 모두 탄복하고 있사옵니다. 본후가 어제의 금관을 드리겠사오니 도상(道相)이 어울리실지 한번 써 보십시오.”

황후가 내관(內官)에 명하여 마노의 소반에 황금 한 덩어리를 얹고 진인께 드리도록 하였다.

“황후께서 하사하신 금관이옵니다. 진인께서는 머리에 올리시고 사은례를 올리시옵소서.”

내관이 구장춘에게 금을 주었다. 구장춘은 이미 알고 바늘을 소지하고 있었다. 쌍수로 황금을 받아들고 삼매의 진화(眞火)를 운용하여 황금을 후 불었다. 그러자 황금이 진흙같이 연해졌다. 구장춘은 바늘로 황금에 구멍을 뚫고 바늘에 머리털을 꿰어서 앞뒤로 금을 잡아챘다. 황금이 그대로 머리우에 앉혔다.

백운선사가 구장춘을 축출 당하게 하려 한 것인데 그것이 도리어 범규가 될줄이야. 지금 도인들이 금관을 쓰는 것이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구장춘이 황금을 머리에 얹고 황후에게 절하며 그 은혜를 치사하였다. 황후는 불안한 감이 있어 일어서서 사과했다.

“본후(本后)의 잘못이옵니다. 진인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황후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신이 홍진세계에 애착심이 많아서 자연 마의 장애를 초래한 것이옵니다.”

구장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백운선사가 병풍 뒤에서 뛰어나왔다.

“구장춘 선생 당신이 잘못해서 장애를 초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노승이 모략으로 사고가 생긴 것이지요.”

“선사는 사대가 모두 비신 분이신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지은 허물이지요.”

구장춘이 허물을 자기에 돌렸다. 본래는 백운선사가 일을 조작한 것이 아니었다. 구장춘이 용을 훔쳐서 봉과 바꾸어 백운사를 점령했으므로 이런 장애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백운선사가 황후에게 독주를 마련하게 하고 금관을 주게하여 보복을 피한 것이다. 구장춘이 만일 백운사를 점령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사고가 생기겠는가? 그러므로 구장춘은 허물을

자기에게 돌린 것이다. 그의 양심이 어둡지 않은 것이니 후인들은 승부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백운선사가 구장춘의 말을 듣고 나서 자기 또한 마음보가 나쁜 것을 후회했다.

“경을 읽는 순간은 모든 것이 다 공이 되는 데 어찌해서 처사의 경우에는 갑자기 마음이 몽롱해 지는가요?”

“용이니 봉이니 하는 것이 결국 무익한 일인데 마음을 잘못먹고 일을 잘못했던 말이에요.”

선사와 진인이 제각기 허물을 자기에게 돌리고 반성 하는 것을 보고 황후가 크게 기뻐했다. 황후가 두 사람의 덕을 찬양하려는 순간 궁인이 성가의 임어(臨御)하심을 보고했다. 황후는 바빠 성가를 영접하여 입궁하고 구장춘과 백운선사가 성가를 참배했다. 원주가 심히 기뻐했다.

“짐이 두 국가의 불화하심을 보고 때로 항상 우려하던 차 아까 서궁에 놀러갔다가 두 국사가 친선을 다짐한다는 궁인의 보고가 있어 짐이 기뻐 두 국사와 함담하고저 여기에 왔소.”

원순제의 말이 끝나자 황후가 두 국사의 자기들을 반성하는 이야기를 아뢰었다.

“유불선 삼교가 본래 두 가지 이치가 아닌 것이요. 승인, 도인이 본시 한 집 식솔이므로 앞으로 피차 서로 다투지 말고 다같이 서울에서 정과(正果)를 이룩하시기 바랍니다.”

백운선사와 구장춘이 원순제의 이 말을 듣고 다같이 성은을 치사했다.

“짐이 이미 황실비로 서원을 신축하는 비용을 국사께 제공하게 한 바, 공사가 원만히 준공되는 날에 백운사의 불상을 신축 서원에 옮기어 모셔서 서원 이름도 새로 정하고 백운사는 백운관으로 고쳐 도조의 불상을 모셔서 승도를 분간하되 다같이 천주에 향하가 불절하고 만세에 청양(瞻仰)의 표상이 되게 하며 거의 두 국사께선 짐을 보좌하신 보람이 될까 하오.”

원순제의 이야기는 승도의 이치가 다르지 않지만 그것을 분간하지 않으면 인심이 귀의할 바 종주(宗主)가 없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는 어디까지나 승도를 공평하게 대우 하려는 것이다. 구장춘이 백운선사와 같이 또 다시 사은례를 올리고 원주가 주연을 베풀어서 군신이 한 자리에서 즐겁게 마시고도 도법·불법을 합쳐서 담론하였다.

불(佛)은 공공을 설하고 도(道)는 허무를 주장했다. 공은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을 부정하는 것이요 허무도 또한 주색재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백운선사가 쫓겨나서 각 불당에 두류하던 승인들이 하루는 우연히 한 자리에 모였다.

“우리가 훌륭한 서원을 구장춘에게 뺏기고 가만히 앉아있을 것이냐 말이야. 내 생각 같으면 백운사 앞에 서풍사를 지으면 백운사가 대패할거야.”

그들 중에 술책이 있고 풍수로 자부하는 중이 말했다. 여러 중이 백운사가 대패하는 이유를 묻자.

“풍수법에 인과가 무서운 것이요. 이쪽 서풍 바람이 불면 저쪽 백운(흰구름)이 날라갈태이니 치패를 안보고 못견딜 것이요.”

그들은 의연금 명부를 작성하고 문제있는 중이 발기문을 썼다. 여러군데 관부에 백운선사를 찾아내어 그들의 서풍이야기를 알렸다.

“누가 이 계획을 세웠는가?”

백운선사가 웃으며 물었다.

“이 보살님이십니다.”

그들은 모두 풍수승을 가리켰다.

“어떤 이유로 서풍을 일으켜서 백운을 날리려는가?”

“후배는 상인의 원수를 갚고저 하나이다.”

“아불이 개교(開敎)하신 이래로 남과 결언하셨지 결원(結冤)하신 바 없었다. 출가인은 사대가 모두 비고 한 티끌도 묻지 않거늘 어찌 원수갚음이 있겠는가! 예날 아불이 가리왕에게 몸뚱이를 잘리고 뼈의 마디마디 지해(支解)를 당했으나 그래도 원한이 없으셨다. 이것이 결국 욕을 참고 인자하시고 올바르심으로 신통이 구족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을 공으로써 표현하는 것이다. 공은 일체가 없는 것이다. 남도 없고 자기도 없고 소리도 냄새도 없다. 남과 나의 편견이 없는데 어찌 원수갚음이 있으며 구름을 날려서 뭐하겠는가! 향차 구진인이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내가 그에게 양도한 것이지 그가 강탈한 것이 아니다. 어제 성상이 사찰 신축비용을 하사하셨다. 이제 너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날조해서 사단을 일으킨다면 성상이 아시게 되는 날엔 그 죄책을 노승은 감당할 수 없다. 서풍사를 지으려거든 너만 가서 짓거라.”

백운선사가 여러 중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입밖에 내지 못하게 했다. 여러 중이 백운선사의 말을 듣고 깨달아서 바람으로 구름을 해치자는 생각이 삽시에 사라졌다. 의연금 명부를 불사르고 각 불당으로 헤어져 갔다. 그러나 풍수중은 심중에 불쾌해서 “내가 돈만 있으면 백운사 앞에 서풍사를 지어서 나의 서풍이 일어나면 그의 흰 구름이 펄펄 날려서 도인 한 놈도 거기서 못살고 나갈 것인데...”하고는 아는 사람만 만나면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백운사의 도인은 열에 아홉은 다 엉터리꾼” 풍수중의 이야기가 도인들에게 들어갔다.

“그들이 서풍사를 지으면 우리는 백운사 앞에 큰 부채 모양으로 담을 쌓아올려서 바람이 불어오면 부채질하여 바람을 돌려보내는 거야. 제가 불고 제가 끄니 우리는 하등관계가 없어요.”

도인들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네가 바람을 돌리면 가서 불을 놓겠다. 서풍사가 바람에 타오르게...”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이 서풍사를 지으면 백운관 앞에 담을 쌓는데 자고로 구름은 바람을 무서워하고 바람은 담을 무서워하는 것이다. 이 담을 선자로 보아서 바람이 불어올 때 선자로 부치는 것을 이름하여 반풍(返風)이라고 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도인들이 주고 받고 하는 가운데 ‘너는 바람을 돌려라 나는 가서 불을 놓겠다’고 외친 것은 진령산에서 강도질하던 주구였다.

“그 사람이 불당을 짓기 전에 네가 어떻게 테우겠는가? 지어놓은 뒤에 태워도 늦지 않다.”

왕능이 구주가 날뛰는 것을 보고 막았다. 시시비비를 좋아하는 도인들이 가는 데마다 말을 하여 세월이 흐르자 이 이야기가 사실로 변하여 실제로 있었던 것 같이 믿어진 것이다.

“그때 승인들이 서풍사를 지어서 백우관을 날려 보내려고 했는데 도인들이 바람을 되돌리고 불을 야기하는 파법(破法)을 써서 서풍사를 불태웠다”라고 와전된 것이다.

실제는 이런 일은 없었고 다만 저쪽에 엉터리 승인과 이쪽에 엉터리 도인이 있어서 저쪽에서 말하면 이쪽도 말을 하고 선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없는 사실을 엮어낸 칠진전이 곧 그것이다. 이제 고서에 의거하여 이 사실을 교정하는 바이다. 후인들이 이것을 거울삼아 강악을 다투지 않는다면 이 수도의 역사가 한층 더 빛날 것이다.



구장춘은 백운선사와 친선을 다짐한 후 九九八十一 전(轉)이라는 수행공부를 九九八十 난(難)에 비유하여 진성(眞性), 진정(眞情), 심원(心猿), 의마(意馬)를 주인공 속으로 보고 칠정(七情), 육욕(六慾), 삼시(三尸), 육적(六賊)을 의마의 침탈로 보아서 일부의 명서를 저술했다. 그래서 도동(道童)을 시켜 집현관에 백운선사에게 증정하였다. 백운선사도 또한 크게 지혜가 열린 사람으로서 그 글을 보자 곧 이해했다. 그도 또한 골속을 풍경과 정중(靜中)의 묘용으로 풀어서 六六三十六로(路)의 외마(外魔)가 주인공을 침공할 때 지혜의 신통이 생극변화(生剋變化)하는 것으로 「봉신연의」라는 일부의 명서를 저술했다. 그래서 사미를 시켜 백운관의 구장춘에게 증정했다. 그후부터 양가의 친선이 더욱 두터워졌다.

이때 백운선사의 신통이 구족해서 지팡이를 날리고 강남지방에 이르러서 법을 천양했다. 그들이 저술한 「서유기(西遊記)」와 「봉신연의」는 길이 만고에 전해져서 묘용이 무궁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환영(幻影)을 지어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칠정육욕 가운데서 천마만마가 생겨나는 것이다.

구장춘이 백운관에서 법단을 열어 도법을 피고 계율을 정하여 세상을 제도하는 문을 크게 열어 완전 진실을 기하는 도가 다시 일어나고 규구를 세워 후인을 깨우치고 훈시를 내려서 우세에 전하고 72 개소에 총림(叢林)을 세우고 백천만세의 후예들을 맞기 위하여 삼천가지 공과 팔백가지 선행이 원만했으므로, 응당 자부(紫府)의 인선에 올라서 대라(大羅)의 금선(金仙)이 될 것이 었다.

삼십삼천에서 단서가 내리고 10 월 19 일 구장춘은 날아올랐다. 이 때 놀빛은 지상에 반영하고 자주색 안개는 하늘에 오르는데 금동옥녀가 쌍쌍이 들어서서 앞길을 인도하고, 화한 바람은 산들산들 불어서 반공 중에 동반기치의 갖가지 깃발이 나부끼고 구름 속에서 신선음악의 청아한 소리가 낭랑하게 들려왔다.

구진인이 삼시간에 복경을 떠나서 남천문에 내도하니 왕 마 은 조가 보고읍하고 장 칼 허 살이 웃으며 맞이하였다. 구진인이 지존(至尊)을 금궐에서 뵈옵고 천안을 옥경에서 우러러 보았다. 능소전 앞 옥계 아래 엮드려서 “거룩하신 제덕호생이시여...신은 옥황의 만수무강을 비읍니다.”라고 하니

상황이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다.

곧 공적을 심사하는 삼관대제에게 명하여 칠진의 공적을 심사했다.

“제 1 은 고행 내공 외공에 구장춘. 제 2 는 무극태극 신통현묘에 유장생. 제 3 은 도심이 견고한 담장진. 제 4 는 청정무위 마단양. 제 5 는 일진불염 학태고, 제 6 은 만려구적 왕옥양. 제 7 은 지혜원통 손불이. 본불이는 수행의 선구자로서 그 공이 응당 최고라 할 것이오나 일보를 양보하여 앞서 그에게 비롯했으므로 이제 그에게 마감하여 제칠에 이름을 올린 것은 전시전종(全始全終)이라는 뜻이옵고 칠진의 공적을 이와같이 자부(紫府)의 신선록에 올라서 성명을 포기한 것으로 아뢰어.”

삼관대제의 아뢰는 것을 듣고 천안이 기뻐하셔서 칠진을 각기 책봉하셨다.

“천성장원 지부선선상품 전진교주 신화명응교 주진군 구장춘, 정은진군 유장생, 종현명덕진군 담장진, 무위보화진군 마단양, 통현묘덕진군에 학태고, 광자보도진군 왕옥양, 현허순호원군 손불이”

상황의 책봉이 끝나자 유. 담. 마. 학. 왕. 손 6 명이 모두 사은례를 올렸다.

“구장춘은 왜 사은례를 올리지 않는가?”

삼관대제가 고함을 쳤다.

“신은 성은이 감사하오나 다만 도가 본래 배우기 어렵고 잘 배우지 못하면 더욱 어렵고 잘 배우지 않아면 도를 이루지 못하므로 신은 먼저 잘 배우기가 어려운 말씀을 아뢰고자 하옵니다. 도를 깨치기가 어려운데 잘 배우기는 더욱이 어렵습니다. 큰 역량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잘 배우지 못합니다. 때로는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낮에는 끼니가 끊어지고 밤에는 잘 데가 없고 날마다 남에게 미움받고 능욕받고.. 말하려면 가슴이 쓰리고 들으려면 간담이 싸늘하옵니다. 신은 이렇듯 천고만난을 겪으면서 잘 배우기가 어려운 것을 아옵니다. 잘 배우기가 어려운데 어찌 신선을 바라겠습니까? 신은 천하 후세에 도를 깨치려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신과 같이 천고만난을 겪지 않으면 도를 배운다는 이름은 있으나 도를 배우는 실력이 없으므로 신이 그들을 제도할 길이 없고 옥황의 영봉(榮封)하여 주신 보람이 없을까 두려우므로 감히 사은례를 올리지 못하옵니다. 널리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구진인이 옥계(玉階)에 엎드려서 체루(涕淚)를 흘리며 황공하여 아뢰는 것이었다. 상제께 아뢰는 구진인의 말씀을 군선(群仙)이 묵묵히 듣고만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일위 성군(星君)이 썩 나서는 것이었다.

천연색 붉은 머리 얼굴 수염 가슴팍 금투구 금갑옷 금화살 금채찍으로 삼오화차를 타고 바람과 번개같이 백만의 맹수들을 인솔하고 요마들을 행복받고 선악을 지공무사하게 규찰하는 철정퇴공 호법유감 공존 선천 영조였다.

잘배운 사람은 많은 끈고가 있는 반면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구진인의 호소를 듣고 측은한 마음이 일어난 영조가 호법신이 되고저 나섰던 것이다.

“후세에 수행하는 사람 또는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만일 30%를 수행한다면 내가 70%정도 감응하여 100%수행을 한다면 수시로 현화하여 공양할 사람이 자연히 생겨서 기아를 받지 않게 하리니 구진인은 염려말고 사은례를 올리라”고 크게 외쳤다.

구진인은 성군의 말을 듣고 그제야 사은례를 올렸다. 그리고 성군에게도 올리고 무게 몇 천근이나 되고 고리짝을 성군이 맡아서 어깨에 매었다.

조금 뒤 상황이 궁전에서 물러가고 군선(群仙)이 각기 헤어졌다. 칠진인이 다함께 자부(紫府)에 이르러서 계조(啓祖) 동화제군 종리조사 여동빈 조사를 참배하고 또한 사부 왕중양 진인을 배알했다. 동화제군의 자하(紫霞)진인으로서 칠진을 인솔하여 회장에 이르게 했다. 신진군선 남중복과 오조칠진이 멀리 요지궁을 바라보며 오는 것이었다. 그들이 멀리서 바라보니 붉은 옥으로 만든 제전(祭殿), 금으로 만든 궁문(宮門), 은으로 만든 궁전, 산호(珊瑚)나간 붉은 옥의 계단등 황금빛 청록색이 교차하여 빛나고 주홍색 자색이 눈에 황홀하고 기이한 향기가 풍기고 기쁨의 서광이 넘쳐 흘렀다. 붉은 옥으로 단장한 숲속, 푸른 옥으로 어우러진 나무에는 난조(鸞鳥)와 봉황이 날아서 춤추고 은동산 금기둥 밑에 범이 휘바람 불고 용이 옹는 것이었다. 까만 학, 흰 사슴, 푸른 사자, 흰 코끼리는 짝을 지어있고 봉의 연(輦)용의 차학의 사마(駟馬) 난조의 사인교는 세상에 다시 없는 것이었다.

요지궁(瑤池宮)의 장엄함은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고 곤륜산의 아름다운 풍경은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동화제군이 신진군선(新進群仙)을 안내하여 왕모께 참배하였다. 왕모께서 빈객래(賓客來)로 대하셨다. 조금뒤에 성인 진인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그 전 대회때의 규칙에 따라서 좌석의 차례가 있고 신진군선들은 꼭 주인측의 지시에 따르게 되었다.

“자, 신진군선들이 상성 선배선인에게 일일이 참배하려면 복잡하므로 편의에 따라서 일동의 단계(丹階)위에서 당상(堂上)을 향하여 한 번 절하고 상성은 답례로써 한 번 경례만 하라.”

왕모의 분부였다. 동화제군이 신진군선을 인솔하여 요계에 나란히 꿇어서 삼궤구고(三跪九叩)의 배례(拜禮)를 올렸다. 군천곡(鈞天曲)의 음악이 이끈주되고 예상곡(霓裳曲)의 가무(歌舞)와 석상(席上)의 진기한 물품들이 모두 진세(塵世)에는 없는 것이었다.

여러 선동들이 술잔과 술을 나르고 여러 옥녀들이 술을 권했다. 몇몇 동자가 손에 자죽(紫竹) 바구니를 들고 공중으로 날아올라서 큰 복숭아 나무의 꼭대기에 올라 반도(蟠桃)를 따는 것이었다. 꼭대기에서부터 따서 차츰 아래로 내려왔다. 순식간에 복숭아가 뜰에 가득찼다. 제일 큰 복숭아를 택해서 천존대성(天尊大聖)께 드리고 그 다음 것으로 대라금선(大羅金仙)들을 공양하고 또 그 다음 것으로 봉래도(蓬萊島)의 일반 여러 신선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복숭아는 누구나 쉽사리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수행을 마친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다. 후세의 수행인들이 이 복숭아를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이는 칠진의 마음법을 배워서 그와 같이 고된 수행으로 도를 깨치고 진을 이루고 요지궁(瑤池宮)에 가서 서왕모께 참배하면 사왕모께서 꼭 반도(蟠桃) 한 개를 주시게 되는 것이다. 이 복숭아를 한 개만 먹으면 천 년을 오래살고 불로장생하는 것이다.

대회가 끝나자 천진만성(千眞萬聖)이 각기 천궁으로 돌아가고 칠진은 동화제군의 인솔로 자부로 돌아갔다. 자부(紫府)는 방저산(方諸山) 꼭대기에 자리잡고 있다. 방저산은 곤륜산과 비슷하나 높이나 크기는 곤륜산만 못하다. 그러나 그 산속에는 사시장청(四時長靑)풀이 있고 팔절(八節)을지지 않는 꽃이 있다. 또한 천궁에서 제일가는 지역이다. 누구나 쉽사리 가지 못하는 지역인 것이다.

칠진의 좋은 인과는 후세에 길이길이 유전되고 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현묘한 도법을 잘 배워서 인간의 무한한 고통을 다 겪고나면 천상에서 한가로움을 즐기는 신선이 되는 것이다.

=끝=